

11-28-2014

##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방법을 중심으로

Kyeong Soo Kim 김경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경수,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Giorgi 방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YOUNG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GIORGI METHOD**

written by

**KYEONG SO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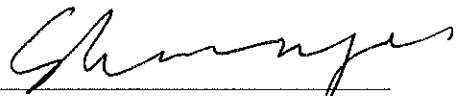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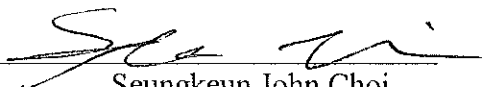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_\_\_\_\_  
Soo Myung Shim

  
\_\_\_\_\_  
Seungkeun John Choi

  
\_\_\_\_\_  
Jin Ki Hwang

November 28,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YOUNG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GIORGI METHOD**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YEONG SOO KIM**

NOVEMBER 2014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Giorgi 방법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심수명 교수

김경수

2014년 11월

##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Young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Kyeong Soo Kim

Doctor of Ministry

201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young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during their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and senior high school years. It demonstrates how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have influenced on their lives and describes how Christian counseling could help them.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defines young adults and describes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This chapter then addresses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Chapter 3 introduces Amedeo Giorgi's phenomenal and psychological methodology, which consists of four stages: reading the description for the sense of the whole; dividing the description into meaning units; transforming meaning units into best disciplinary expression; and synthesizing transformed meaning units in structure.

Chapter 4 contains the contents of interviews with five young women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during their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or senior high school years. This chapter then analyzes the contents by using Giorgi's methodology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and states its results.

Chapter 5 lists common experiences that those young women have had after being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This chapter argues that Christian counseling

could help them not only to overcome their negative experiences but also to find meanings of their lives even in their difficult situations.

Chapter 6 concludes thi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Soo Myung Sh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 감사의 글

올해는 10년간의 긴 대장정을 마친 감격의 해입니다.

영혼을 좀 더 잘 돌보기 위해 2004년도에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2014년, 10년 후에라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학기가 시작되던 해로부터 5년간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에 은총을 베푸셔서 세 번에 걸쳐 확장 이전하느라 논문이 늦어졌다고 하면 핑계일까요.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은 그 기간조차도 선한 뜻을 나타내시어 논문의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랜 기간의 임상을 통해 보다 폭 넓고, 심도 있는 논문을 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대 앞에 위치한 목회지에서 많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논문 주제를 설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논문 쓰다가 오십견이 찾아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일 년 내내 고통을 겪으면서 학위취득 목적이었다면 논문을 일찍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실성 하나로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아 부상당한 마라톤 주자처럼 자신과 싸우며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혜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동안 가정 사역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엄예선 박사님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심수명 교수님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최승근 박사님, 김태석 목사님, 이석환 목사님과 현상학적 논문에 도움을 주신 여러 박사 선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시댁 형님, 시누이님 부부, 조카들에게 감사하며, 늦게 낳아 사랑만 해 주시고 떠나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함께 천국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중인 사랑하는 오빠와 언니들과 조카들,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며 본 연구에 기꺼이 동참해 준 연구 참여자들과 격려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비전 공동체 지체들과 지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십견으로 고통 하며 논문 쓰는 동안 밤마다 30분 이상 주물러 주며 헌신과 사랑을 쏟아 붓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 젊어서 주님의 일하고 55세에 되어서야 등 굽어 줄 배우자 만나 결혼하리라 결심하고 주님의 길을 달려왔으나 55세가 되어 건강으로 힘겹게 논문을 쓰는 동안 돕는 남편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12년이나 앞당겨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글자 하나하나마다 주님 영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14년 11월 김경수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3  |
| 제 3 절 연구 문제 .....          | 5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6  |
| 제 1 절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 6  |
| 1. 학교폭력의 정의 .....          | 6  |
| 2. 학교폭력의 유형 .....          | 7  |
| 3. 학교폭력 피해의 요인 .....       | 8  |
| 제 2 절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해 .....  | 11 |
| 1. 집단 따돌림의 정의 .....        | 11 |
| 2. 집단 따돌림의 특성 .....        | 12 |
| 3.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    | 13 |
| 제 3 절 학교폭력의 실태 .....       | 15 |
|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 16 |
| 2. 학교폭력 피해 유형 .....        | 17 |
| 3. 성별·학교 급별 피해유형 비중 .....  | 18 |
| 4. 학교폭력 피해 장소 .....        | 19 |
| 5. 학교폭력 피해 시간 비중 .....     | 20 |
| 6. 학교폭력 피해 신고 비율과 효과 ..... | 21 |
| 7. 학교폭력 가해 유형과 경험율 .....   | 22 |
| 8. 학교폭력 가해 이유와 중단 이유 ..... | 23 |
| 제 3 장 연구 방법론 .....         | 25 |
| 제 1 절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  | 25 |

|                                  |    |
|----------------------------------|----|
|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              | 25 |
| 2. 지오르기의 기술적 현상학 .....           | 26 |
| 가.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자료 수집 .....       | 26 |
| 나. 지오르기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 | 27 |
| 제 2 절 연구의 진행과정 .....             | 30 |
| 1. 연구의 전체적 진행과정 설계 .....         | 30 |
|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              | 33 |
| 3. 자료 수집 .....                   | 33 |
| 4. 연구 참여자 배경 .....               | 35 |
| 5. 자료 분석 .....                   | 37 |
| 6.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            | 37 |
| 제 4 장 연구 결과 .....                | 40 |
| 제 1 절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     | 40 |
| 1. 학교폭력을 당함 .....                | 41 |
| 가. 친한 친구에게서 버림받음 .....           | 42 |
| 나. 집단 따돌림을 당함 .....              | 43 |
| 다. 괴롭힘을 당함 .....                 | 47 |
| 2. 해결방안을 시도함 .....               | 49 |
| 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            | 49 |
| 나. 친해지려고 노력함 .....               | 51 |
| 다. 노력이 허사가 됨 .....               | 53 |
| 3. 고립되어 외로움 .....                | 55 |
| 가. 외톨이가 됨 .....                  | 55 |
| 나. 학교 가기 싫음 .....                | 57 |
| 다. 죽고 싶음 .....                   | 58 |
| 라. 견디냄 .....                     | 61 |
| 4. 상처로 남음 .....                  | 64 |

|                         |     |
|-------------------------|-----|
| 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64  |
| 나. 공동체 생활이 힘들           | 68  |
| 다.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      | 70  |
| 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          | 72  |
| 마. 자존감이 낮아짐             | 75  |
| 바.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          | 78  |
| 사. 과거의 아픔을 현실에서도 느낌     | 82  |
| 아. 현실을 도피함              | 84  |
| 자.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 | 87  |
| 5. 성찰함                  | 90  |
| 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          | 90  |
| 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         | 93  |
| 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         | 96  |
| 6.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         | 98  |
| 가. 자각함                  | 98  |
| 나. 도전함                  | 99  |
| 다. 자신을 사랑하려 함           | 102 |
| 라. 관계가 회복되어감            | 107 |
| 제 2 절 상황의 구조 기술         | 113 |
| 1. 상황의 구체적 구조 기술        | 113 |
| 가. 참여자 1                | 113 |
| 나. 참여자 2                | 117 |
| 다. 참여자 3                | 119 |
| 라. 참여자 4                | 122 |
| 마. 참여자 5                | 125 |
| 2. 상황의 일반적 구조 기술        | 128 |
| 제 5 장 논 의               | 131 |

|                                     |     |
|-------------------------------------|-----|
| 제 1 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외상 후 스트레스 .....   | 131 |
| 제 2 절 학교폭력 피해와 관계의 깨어짐 .....        | 134 |
| 제 3 절 학교폭력 피해와 부모 양육의 관계 .....      | 136 |
| 제 4 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신앙적 의미 .....      | 139 |
| 제 5 절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의미 ..... | 143 |
| <br>                                |     |
| 제 6 장 결 론 .....                     | 147 |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               | 147 |
| 1. 학교폭력을 당함 .....                   | 148 |
| 2. 해결방안을 시도함 .....                  | 148 |
| 3. 고립되어 외로움 .....                   | 149 |
| 4. 상처로 남음 .....                     | 149 |
| 5. 성찰함 .....                        | 150 |
| 6.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 .....               | 151 |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 152 |
| <br>                                |     |
| 부록 .....                            | 154 |
| <br>                                |     |
| 참고문헌 .....                          | 159 |
| <br>                                |     |
| Vita .....                          | 163 |

## 표 목 차

|                                            |    |
|--------------------------------------------|----|
| 〈표 1〉 2014년도 학교 급별 피해응답률 전년도 비교표 .....     | 17 |
| 〈표 2〉 피해유형별 응답건수 (단위 : 명, %) .....         | 18 |
| 〈표 3〉 성별 피해유형 비중 .....                     | 18 |
| 〈표 4〉 학교 급별 피해유형 .....                     | 19 |
| 〈표 5〉 학교폭력 피해 장소 .....                     | 19 |
| 〈표 6〉 학교폭력 피해 시간 비중 .....                  | 20 |
| 〈표 7〉 학교폭력 피해 빈도 및 지속시간 .....              | 21 |
| 〈표 8〉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고3 미포함) .....           | 22 |
| 〈표 9〉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과정 .....            | 30 |
| 〈표 10〉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에 따른 전체적 진행과정 설계 ..... | 32 |
| 〈표 11〉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학교폭력 피해유형 .....         | 36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 및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일찍이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지만 대부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인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에 군대에서 집단 폭행으로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윤일병을 가해한 주동자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대 때 폭력·왕따 문화가 군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전역한 하사는 말하기를 ‘군대에서도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sup>1)</sup> 정영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의 강도가 높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sup>2)</sup>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가해학생의 25.4퍼센트가 피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에,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중복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가 폭력을 견

1) “10대 때 폭력 왕따 문화가 군대 폭력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2014년 8월 5일자, Online: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0171.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0171.html)

2) 정영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3)

다 못해 억눌렀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999년 미국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학생이 지속적인 따돌림의 피해자였음이 알려졌다. 흔히 학교폭력 피해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따돌림 상태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다가 억압된 분노를 극단적인 폭력 행위로 표출하다보면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쉽다. 그러므로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과 대처에 고민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젊은이들이 집결하는 신촌에서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다. 특별히 초·중·고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여성들을 많이 보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담당해왔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 및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수년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잘 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태도에 깊은 상처로 남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곽영길은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007년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후에 든 생각은 ‘학교가기 싫어졌다’가 40%, ‘똑같이 보복하고 싶다’ 30%,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다’ 10%, ‘가출의 충동을 느꼈다’가 5%로 나타났다.<sup>3)</sup>고 했다. 윤지은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지속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성격적, 신체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정서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 ‘억울함’, ‘심리적 위축과 의기소침’, ‘치욕감과 수치심’, ‘외로움과 배신감’, ‘불안감’, ‘무서움’, ‘삶에 대한 회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수반하는 스트레스 양상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대처한 양상들은 ‘망각하려는 노력’, ‘다

3)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른 일애의 몰입',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며 견뎌'므로 고통을 줄이려는 생존 전략을 했다고 한다. 또한 '분노를 없애기 위한 노력', '타인의 도움에 힘을 얻음'은 외부 관계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sup>4)</sup> 두경희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아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폭력은 정서적 고통을 더하여 기존 관계의 상실은 물론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sup>5)</sup>고 했다.

사공은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에서 조사 대상 348명 가운데 73.3퍼센트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 이상을 행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up>6)</sup> 이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데이트하는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데이트 상대에게 데이트 폭력 가해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한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오는 고통은 청소년 학창시절을 지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본 연구 결과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연구의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5명의 청년여성으로 한정

4) 윤지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2007)

5) 두경희,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 2013)

6) 사공은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7)



한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 학교폭력은 남학생·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지만, 남녀 학교폭력 경험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 경험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했다.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의 실태를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여학생(36.3%) > 남학생(33.5%), 집단 따돌림은 여학생(22.6%) > 남학생(13.6%), 사이버 괴롭힘은 여학생(15.4%) > 남학생(5.6%)으로 여학생 사이에서는 관계적 폭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의 학교폭력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여학생 사이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집단따돌림의 피해 경험에 대해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비가시적 폭력으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 각별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초기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재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신체적 폭력과 같이 외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심리적인 상처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비롯된 외상성 스트레스로 대인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며, 상처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범위와 방법과 연구 문제를 설정할 것이다. 2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알아보고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 진행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초·중·고등학교 때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청년 여성 5명을 심층 인터뷰한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여 기초자료를 만들 것이다. 앞에서 얻어진 자료를 메를리 폰띠(M. Merleau-Ponty)의 실존주의적 현상학을 토대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립한 지오르기(A.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에 의존하여 연구과정을 설계하고 구성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5장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결과로 나타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여성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년 여성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 경험이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그 본질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관점과 태도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첫째, 청년여성들은 학교폭력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둘째, 청년여성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구성하였다.

## 제 2 장

###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인 관계로 여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학교폭력 실태를 알아 볼 것이다.

#### 제 1 절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와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오래다. 학교폭력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터가 필요하다.

#####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학교’를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고, ‘폭력’ 역시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비가시적인 모든 폭력을 포함시켜 설명하자면 ‘학교 교내, 학교 주변, 등·하굣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인 장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sup>7)</sup>

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6), 30.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sup>8)</sup>

다시 말해, ‘학교 폭력’이란 가해자의 신분이 누가 되었든지 시간이나 장소의 구분 없이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심리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의 범위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따돌림도 포함한다.

##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종류로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추행·명예훼손·모욕·공갈·제물손괴·집단따돌림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사이버폭력으로 나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 직접적·신체적 유형이다.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예를 들면, 손, 발, 다른 도구나 흉기로 때리거나 발걸기, 때리기, 밀치기, 발길질하기, 찌르기, 침 뱉기, 가혹행위, 옷/물건 망가뜨리기, 일정한 장소로 유인 및 감금 행위 등이 포함된다.<sup>9)</sup> 때리기, 차기, 밀기 등이 가장 흔한 행동이지만, 점심 도시락이나 물건 훔치기, 교재에 낙서하기 등도 직접적 학교폭력과 유사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 신체적 유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인식되는 유형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간접적·언어적 폭력으로 피해 대상자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심하게 놀리거나 협박하고, 욕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이다. 심한 욕설과 언어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과 함께 발생하며,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따돌림이나 소문내기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조

9)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2013), 64-65.

리적인 괴로움을 주는 폭력이다. 예를 들면, 외모나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거나 은어로 놀리기, 별명 부르기, 겁주기, 병신 혹은 바보와 같은 말로 모욕하기, 모함하기, 비난하기, 협박 메일 보내기, 욕하기, 고함치기, 모욕하기, 말이나 쪽지 그리고 이메일 등으로 위협하기,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이다.

셋째, 사회적·관계적 폭력인데 이 유형은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흔히 집단 따돌림으로 불린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sup>10)</sup> 피해 학생을 또래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제시켜 친구관계를 깨뜨리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소외시키기, 거부하기, 무시하기, 대답 안하기, 췌려보기, 비웃기, 코웃음 치기 등이다. 이 유형은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폐해도 크게 나타난다.

넷째, 사이버 폭력 혹은 사이버 괴롭힘이다. 최근 들어 사이버 기기의 발달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폭력과 괴롭힘은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메일, 채팅, 문자 등을 통해 일어나는 공격행동으로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과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에 따르는 심리적 고통도 역시 매우 크다.

### 3. 학교폭력 피해의 요인

학교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나 양상이 다양해져 가고 있고,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특성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변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자들은 학교폭력의 요인으로 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지역요인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요인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의 2.

남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특성과 교우 선호도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거나 힘이 약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심리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여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약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튀는’ 대상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교사가 편애를 하거나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지나치게 원하여 주위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학생이 공격 대상이 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 교과 성적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 시샘을 살 만큼 돋보이는 대상을 피해자로 삼고, 건방지거나 잘난 척하는 성격의 소유자나 남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특징이 있는 대상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 하나의 특성은 학교폭력의 유형이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정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학생은 신체적 혹은 언어적 공격 등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괴롭힘의 유형을 나타내는 반면에 여학생에게서는 집단 따돌림과 사회적 고립 형태의 비가시적인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은 친밀성과 소속감에 기초한 밀착 집단(closer-knit group)을 가지는 여학생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여학생들은 전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폭력을 사용하고 몰래 괴롭히는 방법으로 소문 퍼뜨리기, 이간질하기, 배척하기, 따돌리기 등 간접적인 폭력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 부모,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관계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 여학생들에게는 당황, 배신, 분노, 걱정, 두려움, 수치심, 창피, 외로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

가정 환경요인에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과잉보호적인 양육을 받고 자랐거나, 부모의 양육방식이 처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받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또래보다 부모와 빈약한 애착, 빈약한 갈등관리와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부정적 관계와 태도를 갖고 있는 가족이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sup>13)</sup> 부모가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무지하

11)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142.

12) 송재홍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서울: 학지사, 2013), 74.

13) Georgiou, S. N.(2008). *Parental style and child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시와 감독의 부재 등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가정의 위협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sup>14)</sup> 또한 부모의 부부 불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로 가정 분위기가 위협적인 가정 배경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정적 특성으로 나타났다.<sup>15)</sup>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어 타인의 사소한 부정적인 말에도 금방 기가 죽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학교 환경적 특성으로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로 경쟁과 긴장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분출구를 찾지 못해 스트레스 해소를 약한 대상을 괴롭힘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학업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교실 내에서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된다. 인간 사회구조에서 힘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공격성과 공감능력 부족, 그리고 충동조절이 안 되는 것이 가해 행위와 연관된다. 특히 공격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우월성, 높은 지배성, 신체적인 강함이 연합되어 학교폭력의 가해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거론된다.<sup>16)</sup> 그러므로 힘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따른 협동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훈련해 나가도록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 학교폭력과 괴롭힘의 행동은 결코 학교 내, 그리고 청소년 시기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떠난 후의 직장 및 군대 생활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누구나 그 시절에 경험되는 성장통 정도로 이해하여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공동체에서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집단 따돌림에서 오는 소외감과 외로움·분노를 견디다 못해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단순히 교육 당국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요, 범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

at school.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 11, 213-22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329에서 재인용.

14) 송재홍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79.

15)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8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57에서 재인용.

16)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편,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원인진단과 대응* (서울: 학지사, 2014), 51.

## 제 2 절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해

집단 따돌림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하나이나, 여학생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므로 본 연구 대상인 청년 여성이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집단 따돌림의 정의

집단따돌림(bullying)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 따돌림은 외현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능동적인 공격행동을 가하는 직접적인 따돌림(direct bullying: 구타, 폭행)과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나 어느 한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또는 심리적 갈등, 부적응을 갖도록 괴롭히는 간접적인 따돌림(indirect bullying: 소외, 심리적 배제)으로 구분된다.<sup>17)</sup>

‘따돌림’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등이 따돌림에 속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 세계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행위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조 3항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sup>18)</sup>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불링’(bullying)이라고 하는데, 불링은 일반적 폭력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스쿨 불링(school bullying)’ 또는 ‘불링 인 스쿨(bullying in school)’로 따로 지칭하기도 한다.<sup>19)</sup>

1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72.

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의 대표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이지메(ijime)’가 있는데, ‘어떤 집단 내 권력자가 그 집단의 한 구성원을 지목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0)</sup>

중국은 ‘링그루(lingru)’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왕따(Wang-t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세계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왕따 현상은 서양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sup>21)</sup>

## 2. 집단 따돌림의 특성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는 집단 따돌림이다. 집단 따돌림은 각 나라마다 그 원인과 특성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단 따돌림은 집단적이고 지속적, 일반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다른 폭력 유형과 다르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인 폭력(indirect bullying) 형태로, 교사나 부모가 조기에 포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집단 따돌림의 구성원은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방관자로 나뉜다. 방관자 안에는 가해 조력자, 가해 강화자, 방관자, 피해 방어자로 나누어진다. 집단 따돌림은 집단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내면화 될 수 있는 폭력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들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므로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

19) 송재홍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98.

20) Taki, M. (2001).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ia*. Japanese Society, 5, 25-41.

21) Kwak, K., Bomstein M., Lee, M., Choi, S., & S. (2006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fferent participant roles in Korean bullying (Wang-ta)." Accepted paper for presenting in the biennial conference of SRA.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73에서 재인용.

또한 문제 해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3.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신이 공격받고 모욕당할 때 상대에게 보복하지 않고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인 피해자(passive victim)와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특성을 가진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나뉜다.<sup>22)</sup> 이 두 유형들은 집단 따돌림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수동적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보여 주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빠져 또래 사이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변화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게 된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강한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집단 따돌림 피해 대상으로 남게 된다.<sup>23)</sup> 나중에 학급이 바뀌거나 새로운 집단에서 새롭게 친구를 사귄 수 있을 때에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내면화되어 친구를 사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더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반복적,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재 경험 할 위험이 높다.

반면에 도발적 피해자들은 잘난 척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이와 같은 태도가 주위와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수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독특한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주위를 자극하여 충돌을 일으켜 대결 국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이들은 수동적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집단에게서 빠져 나오려

22) 김용태·박한샘, “청소년 친구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23)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228.

고 가해자 집단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sup>24)</sup> 도발적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서 불안한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을 함께 보여 수동적 피해자와는 달리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함으로써 피해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피해자가 되었다가 가해자로 바뀌어 일반적으로 가해-피해자로 분류되기도 한다.<sup>25)</sup>

이 외에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들의 특성으로는 얼굴 표정이 어둡고, 친구가 놀릴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과민반응을 보이고,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 외모 혹은 목소리가 특이하고, 잘 씻지 않아 청결하지 않고 복장이 지저분하다. 거짓말을 잘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옷차림이나 유행어, 연예인을 동경하거나 또래 집단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sup>26)</sup>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집단 따돌림의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정확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래 집단의 문화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가정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의 양육방식이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어머니의 애정이 집단 따돌림 피해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sup>27)</sup>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과잉 보호적이고 과잉 결속된 가족체계를 강조하여 어머니와 친밀하고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불안정한 애착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이들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지 않고 과잉보호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가정에서 올바른 친구관계 형성에 필요한 자기주장 기술과 독립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로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공격당하기 쉽다.<sup>29)</sup> 부모가 따뜻

24)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80.

25)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69-70.

26) 전재천,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0)

27) 김석진,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 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28)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197p.

29) Smith, P. K., & Myrone-Wilson, R. (1998).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clinical child

하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경청하고, 자녀가 어떤 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때에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위기에서도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나라는 학교환경의 특성상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거의 생활하고, 1년 동안 학급학생들과 계속적으로 생활하며, 담임선생님이 정해지면 1년간 지속되므로 집단 따돌림이 발생되기 쉽다. 한 학급 학생 전체가 특정인을 무시하고 배척하다가 나중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교생에게서 소외되는 전파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sup>30)</sup> 따라서 한 번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한 번 낙인이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 급이 바뀌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 집단 따돌림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괴롭힘이므로 교사나 학부모가 조기에 포착해 내는 주의와 그에 따른 대응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은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학교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다양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학교폭력의 실태

미국에서도 교육부는 1999~2000학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9~2010년까지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 61,100개 학교에서 1,183,700건의 폭력 관련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학교의 73퍼센트의 학교에서 1,000명당 25명 정도가 학교폭력에 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1994년부터 학교폭력의 정도를 교육통계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는데 1994~2004년까지 10년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4년 초(5,551건), 중(13,915), 고(2,121건)으로 모두 21,67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은 2000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역시 일본도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의 수가 많았다.<sup>31)</sup>

Psychology and Psychiatry, 3, 405-41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56에서 재인용.

30)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73.

우리나라도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하여 발생하자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에 나서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검경이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전국 시·도 교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했다. 약 498만 명의 대상 학생 가운데 91.6퍼센트인 456만 명이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조사에 응한 학생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2,000천명이다. 이는 2013년 2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 1.9퍼센트 대비 0.5퍼센트 감소대비를 보이고 있다.<sup>32)</sup>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양상 및 특성과 그 변화에 대해 더욱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의 변화를 살펴볼 때에 '12년도 2차 조사 때 8.5퍼센트에서 '13년도 1차 조사에서는 2.2퍼센트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년 2차 1.9퍼센트에서 '14년 1차 조사에서는 1.4퍼센트로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남학생(1.6%)이 여학생(1.1%)보다 피해응답률이 높았다. 학교규모를 비교해 볼 때 초(2.4%)>중(1.3%)>고(0.6%)로 학교 급이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31) 송재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102-104

32)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Online: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54873&mode=view>

〈표 1〉 2014년도 학교 급별 피해응답률 전년도 비교표<sup>33)</sup>

| 피해<br>응답률(%) | '12년 1차 | '12년 2차 | '13년 1차 | '13년 2차 | '14년 1차 |
|--------------|---------|---------|---------|---------|---------|
| 초            | 15.2    | 11.1    | 3.8     | 2.7     | 2.4     |
| 중            | 13.4    | 10.0    | 2.4     | 2.0     | 1.3     |
| 고            | 5.7     | 4.2     | 0.9     | 0.9     | 0.6     |

〈표 1〉은 초·중·고 모든 학교 피해응답률을 전년도와 비교하였는데 초·중·고 모든 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이 크게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 2. 학교폭력 피해 유형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가 '13년 2차 조사에서 161,187건에 비해 '14년 1차 조사에서는 128,532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 발견된다.

〈표 2〉 피해 유형별 응답건수를 살펴보면 피해유형별(중복응답)로 언어폭력>집단따돌림>폭행>스토킹>사이버 괴롭힘>금품갈취>강제심부름>추행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폭력·집단 따돌림·폭행·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이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스토킹<sup>34)</sup>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반면에 금품갈취·강제심부름 등 전통적 유형 폭력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34) 스토킹 :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다른 학생이 계속 따라 다니며 괴롭히고 불안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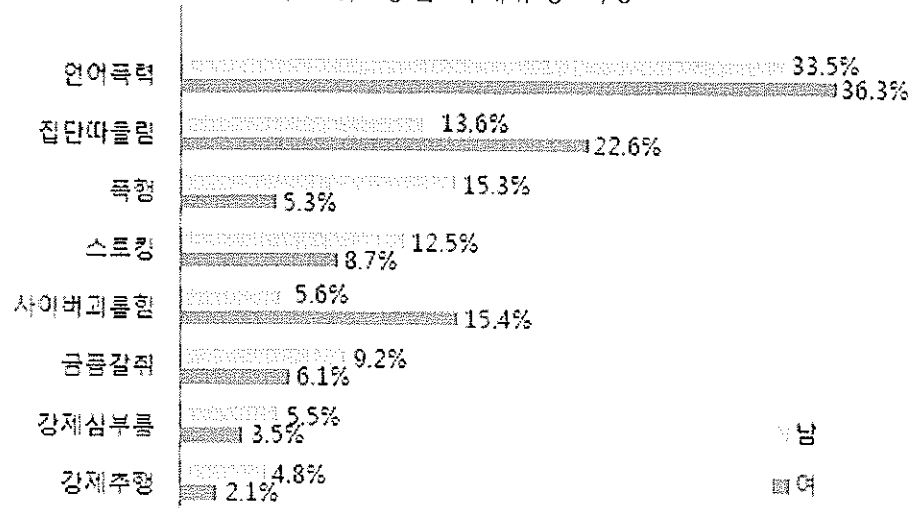
〈표 2〉 피해유형별 응답건수<sup>35)</sup> (단위 : 명, %)

|         | 언어 폭력           | 따돌림             | 폭행              | 스토킹             | 사이버 괴롭힘        | 금품 갈취           | 강제 심부름         | 강제 수행         | 합계      |
|---------|-----------------|-----------------|-----------------|-----------------|----------------|-----------------|----------------|---------------|---------|
| '14년 1차 | 46,564<br>34.6% | 22,826<br>17.0% | 15,535<br>11.5% | 14,887<br>11.1% | 12,490<br>9.3% | 10,813<br>8.0%  | 6,353<br>4.7%  | 5,107<br>3.8% | 134,575 |
| '13년 2차 | 56,961<br>35.3% | 26,549<br>16.5% | 18,544<br>11.5% | 14,495<br>9.0%  | 15,582<br>9.7% | 14,815<br>9.2%  | 8,618<br>5.3%  | 5,623<br>3.5% |         |
| '13년 1차 | 70,489<br>34.0% | 33,414<br>16.6% | 24,248<br>11.7% | 19,090<br>9.2%  | 18,861<br>9.1% | 20,822<br>10.0% | 12,582<br>6.1% | 6,818<br>3.3% | 207,324 |

3. 성별·학교 급별 피해유형 비중

아래 〈표 3〉은 성별·학교 급별 피해유형 비중을 살펴보았다. 남학생은 폭행, 스토킹,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강제수행이 여학생보다 상대적 비중이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 간 비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성별 피해유형 비중<sup>36)</sup>



35)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36) Ibid.

〈표 4〉의 학교 급별 피해유형에서는 학교 급별 명확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은 스토킹이 높고, 중·고등학생은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금품 갈취는 중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4〉 학교 급별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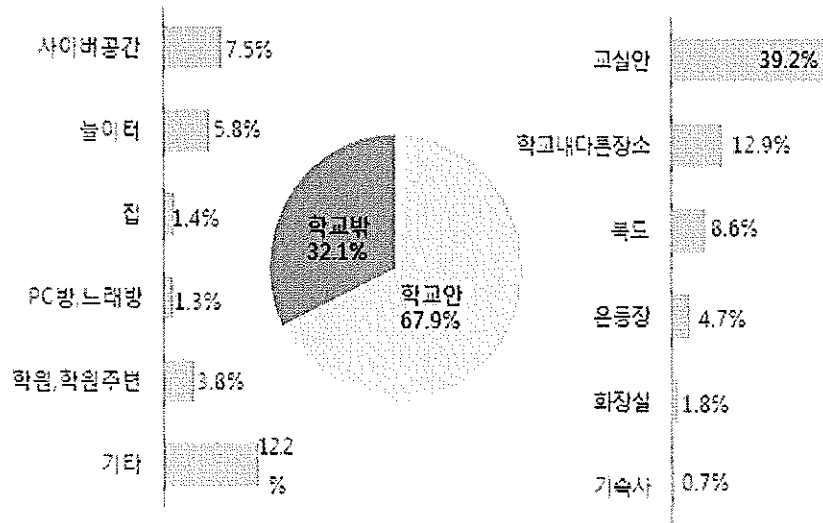
|   | 언어 폭력 | 집단 따돌림 | 폭행   | 스토킹  | 사이버 괴롭힘 | 금품 갈취 | 강제 심부름 | 강제 추행 |
|---|-------|--------|------|------|---------|-------|--------|-------|
| 초 | 35.1  | 17.2   | 12.5 | 12.7 | 7.2     | 7.0   | 4.2    | 4.1   |
| 중 | 33.7  | 17.6   | 10.4 | 9.1  | 11.7    | 9.6   | 4.9    | 3.1   |
| 고 | 34.8  | 15.0   | 10.9 | 10.1 | 10.8    | 8.0   | 6.0    | 4.4   |

4. 학교폭력 피해 장소

〈표 5〉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에 대한 분포도인데, 피해 장소로는 ‘학교 밖’보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학교 안 피해 비중은 ‘13년 2차 조사 대비 감소 (3.8%↓)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의 피해로는 사이버공간에서 높게 발생했고, 학교 내에서는 교실 안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학교폭력 피해 장소<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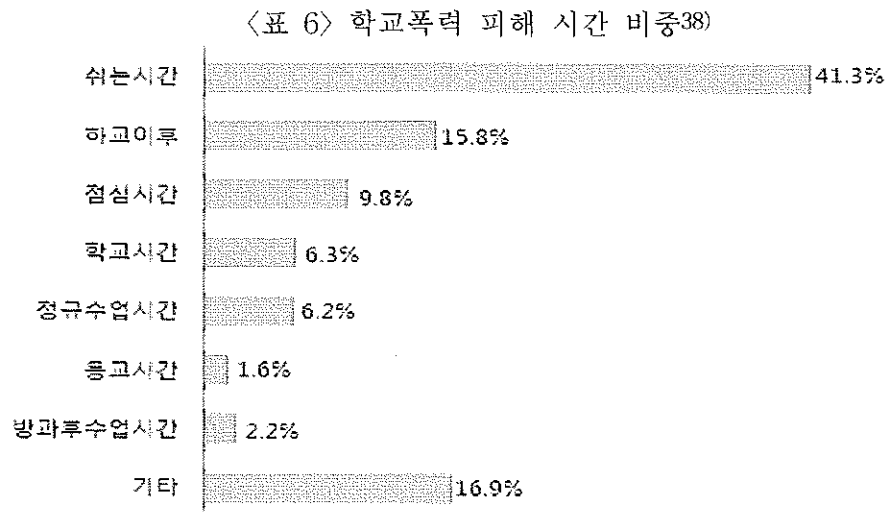




## 5. 학교폭력 피해 시간 비중

〈표 6〉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과 '하교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중에 대부분 발생했다.

'13년 2차 조사 대비해 볼 때, '쉬는 시간'(3.2%↓), '수업시간'(1.5%↓) 등 일과 시간 비중은 감소하고, '하교시간'(1.4%↑) 및 '하교 이후'(1.4%↑)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학교폭력 피해 빈도 및 지속시간을 살펴보면, 6개월에 1개월 지속하는 폭력을 1~2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년 1차에서 104,000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14년 1차 조사에서도 다른 피해 빈도 지속시간보다 63,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거의 매일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도 '14년 1차에서 23,000건으로 나타났다.

37)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38) Ibid.

〈표 7〉 학교폭력 피해 빈도 및 지속시간 39)

| 구 분                 | '13년 1차  | '13년 2차 | '14년 1차 |
|---------------------|----------|---------|---------|
| 6개월 1~2회 (1개월 지속)   | 10만 4천 건 | 7만 5천 건 | 6만 3천 건 |
| 1개월 1~2회 (2~3개월 지속) | 3만 9천 건  | 3만 3천 건 | 2만 5천 건 |
| 1주일 1~2회 (4~5개월 지속) | 3만 2천 건  | 2만 8천 건 | 2만 3천 건 |
| 거의 매일 (6개월 이상 지속)   | 3만 2천 건  | 2만 6천 건 | 2만 3천 건 |

## 6. 학교폭력 피해 신고 비율과 효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과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해 응답자의 78.4퍼센트가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친구나 선배·117 상담센터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알린 상대는 가족(36.3%)>학교(21.9%)>친구·선배(16.5%)>117(3.7%)순으로, '13년 2차 조사 대비 가족에게 알린 비중은 증가(4.9%↑)하였고, 학교에게 알린 비중은 소폭 감소(1.8%↓)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이유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의 응답비중이 감소(3.6%↓)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12년 대비 '13년도에도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의 범위가 교내, 학생 간 폭력이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핸드폰 소지자가 증가되면서 사이버따돌림·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추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sup>40)</sup> 또한,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효과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신고·상담전화 증가 사유로 판단된다. 피해 신고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다'(33.9%)>'보통이다'(33.0%)>'효과가 없었다'(33.1%)고 응답했다. 남 36.3퍼센트> 여

39)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40) 교육부,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보도관련 설명", Cited 15 April 2014, Online: <http://if-blog.tistory.com/3663>.

30.9퍼센트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학교 급이 높을수록 신고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25천 명으로, 목격 응답률은 7.2퍼센트로 나타났다. '13년 2차 9.4퍼센트 대비 2.2퍼센트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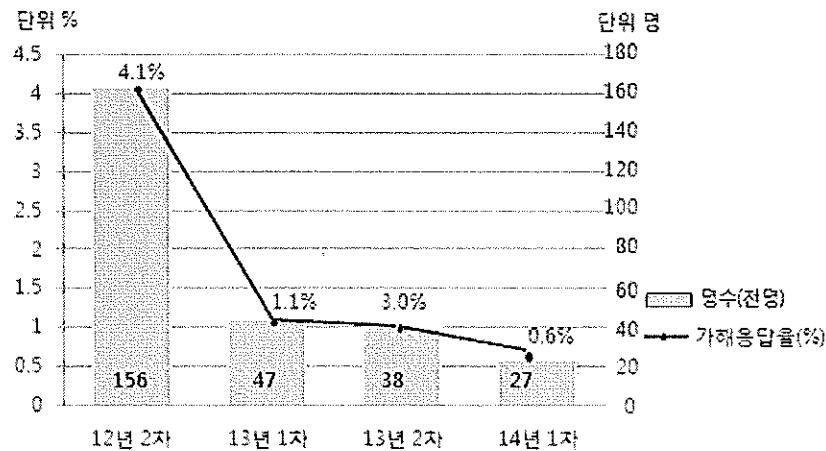
학교폭력 목격 시 '주변에 알려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9.1퍼센트로, '13년 1차 70.1퍼센트, 2차 75.3퍼센트에 비해 방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학교폭력 가해 유형과 경험을

가해 유형을 보면 집단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퍼센트이고 혼자서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퍼센트로 나타나 집단으로 가해했다는 비율이 '13년 2차 조사 64.2퍼센트 대비 4.0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비중으로는 동학교 동학년이 68.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나 '13년 2차 조사 대비 감소(4.4%↓)하였다. 반면, '모르는 사람' 비중은 소폭 증가(1.8%↑)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천 명으로, 가해 응답률 0.6퍼센트로, '13년 2차 1.0퍼센트 대비 0.4퍼센트 감소하였다.

<표 8> 학교폭력 가해 경험율<sup>41)</sup> (교3 미포함)



41)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 8. 학교폭력 가해 이유와 중단 이유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가해 이유로는 ‘장난으로’(28.4%)>‘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21.1%)>‘먼저 괴롭혀서’(18.9%)>‘이유 없음’(9.5%)>‘화풀이 스트레스’(5.0%)>‘다른 학생이 시켜서’(2.0%)>‘내 힘을 보여주려고’(1.0%)>‘관심 받고 싶어서’(0.4%)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13.5퍼센트였다. ‘장난으로’로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중을 보면, 남(35.5%)>여(11.6%)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마음에 안 들어서’의 응답비중이 남(15.9%)<여(33.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가해 이유에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학생 중 가해를 중단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93.8퍼센트(25천명)가 가해행동을 중단했다고 나타났다. 중단 이유로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0.8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분, 혼나서’가 20.7퍼센트, ‘피해학생이 싫어해서’가 10.9퍼센트, ‘예방 교육’이 8.9퍼센트로 나타나 앞으로 학교 당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것은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정책 등 전 사회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신체적 폭력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등 관계적 폭력 피해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폭력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메일, 채팅, 화상, 문자 등으로 사이버 상의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가시적인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교육부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중앙 부처 차원에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경찰청,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여러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별히 학교폭력 피해가 초기 경험 이후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외상성 스트레스가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가운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상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재 경험 예방과 피해 경험으로 인한 외상을 최소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 3 장

###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청년여성이 학교폭력 피해를 어떻게 경험했고, 청년여성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청년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지만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에 중점을 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선정했고, 연구의 계획과 자료 분석은 지오르기<sup>42)</sup>의 방법을 따랐다.

#### 제 1 절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현상학적인 연구는 인간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주어진 현상에 대해 발생적이고 구성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 참여자의 경험들을 확인하여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타 질적 연구에 비해 철학이라는 학문에 크게 근거하고 있는 만큼, 철학적 가정에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sup>43)</sup>

현상학적 연구과정은 현상 확인, 연구의 구조화, 자료수집, 보고 작성의 과정을

---

42) A. Giorgi는 John W. Creswell의 현상학을 심리학적 현상학으로 해석·발전시키면서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방법을 정립한 미국의 심리학자이다.

43)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 방법*, 조홍식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91-93.

거쳐 연구 대상이 진술한 텍스트는 콜라쥬(Colaizzi), 지오르기, 벤 메넨(M. van Manen)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한 귀납적(induction)이고 기술적(description)인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다.<sup>44)</sup>

질적 연구는 세계에 관찰자를 놓는 상황적인 활동이다. 가정, 세계관, 가능성이 있는 이론적 시각, 사회 또는 인간 문제에 기인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 문제를 갖고 조사하기 시작한다.<sup>45)</sup> 현상학적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텍스트로 만들어 그 안에 나타난 모든 개인의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해낸다. 여기서 연구자의 기술은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또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한다.

## 2. 지오르기의 기술적 현상학

지오르기는 ‘현상’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연구 실행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왜냐하면 심리학에 도움이 되기 위한 현상학은 단지 하나의 철학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상학적 방법의 핵심은 분석에 앞서 ‘기술(description)’의 강조이다.

### 가.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자료 수집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의사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사용한다. 심층면담의 1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90분 정도이고, 면담 주기는 1~2주 간격을 둔다. 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자료를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면담 내용은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서 듣는다. 끝으로 연구 참여자 자신이 그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면담한다.<sup>46)</sup>

44) 김분한 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 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999), 1209.

45) John W. Creswell, *질적 연구 방법*, 조흥식 외 공역, 61.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듣기이다. 면담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표정과 행동 등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고, 가능한 한 연구 참여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 질문은 연구자 자신이 들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 꼭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특정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질문과 연구 참여자 자신에게 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경험이 참여자에게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연구 참여자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유도되지 않고 연구 참여자 자신이 스스로 그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면담 시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감(sense of worth)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연구 참여자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한다.<sup>47)</sup> 아울러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치료적인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나. 지오르기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지오르기는 ‘해석’이 ‘기술’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해석’은 어디까지나 ‘기술’ 다음이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자체’를 먼저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1단계 :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진술 내용 읽기(Read the

46) Irving Seidman,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박혜준 ·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12), 139.

47) Ibid., 232.



description for the sense of the whole)

첫 번째 단계는 ‘전체의 인식’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전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얻기 위해서 진술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번 자유롭게 읽는다. 이 때 연구자는 진술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과 선지식은 괄호 속에 넣어(epoche) 진술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발견하는 데에 주목한다. 여기서 파악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질문 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주로 의미단위의 구별을 위한 다음 단계의 토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제2단계 : 진술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기(Divide the description into meaning units)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의 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를 통해서 얻어진 전체에 대한 맥락을 갖고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른 ‘의미의 단위’를 만들어간다. 전체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가면서 ‘의미의 전환’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곳마다 밑줄을 치며 나눈다. 이 때 표시된 부호는 문장이나 문단의 단위에 따른 문법적 표시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의미단위의 수립 과정은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실천적(practical) 과정이므로 진술자의 언어는 그대로 유지되고 연구자의 현상학적 태도와 학문적 태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그 분석에 실제의 특정 부분만을 주제화 하겠다는 자세로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단위는 연구자의 태도와 자세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한다.

제3단계 : 의미단위를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기(Transform meaning units into best disciplinary expression)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진술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 2단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본래의 자료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진술 내용인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용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시키고 중요한 내용들을 구별하여 반성(Reflection)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 단위들 간의 상호 맥락적인 의미를 찾는다. 여기서 '의미단위'는 텍스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태도와 자세와의 관련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발견되어지는 것이 매우 달라지는데, 이유는 연구자가 텍스트 전환의 게슈탈트<sup>48)</sup>를 느끼기 때문이다. 전환의 목적은 진술자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 안의 복합적인 심리학적 차원들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제4단계 : 전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Synthesize transformed meaning units into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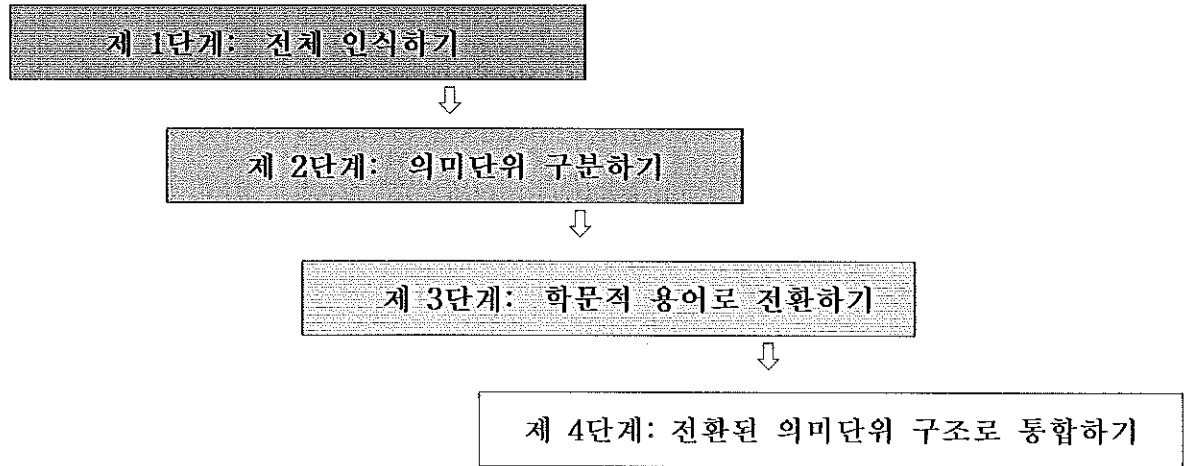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구조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험구조'라고 불리는 경험의 본질을 '구성요소(constituent)'로 묶는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구조는 여러 개의 의미가 모인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5명의 대상자에게서 5개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10명의 대상자에게서 1개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sup>49)</sup>

지금까지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오르기는 주로 진술자로부터 주어진 언어로 얻어진 텍스트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텍스트의 기술과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과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해석학적 현상학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8) gestalt 형태 : 지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

49) A. Giorgi,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C. Aanstoos, W. F. Fisher, A. Giorgi, and F. Wertz(eds),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10-22. Edited by Amedeo, Giorgi, 신경림 외 공역,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서울: 현문사, 2003), 21-31에서 재인용

〈표 9〉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과정



## 제 2 절 연구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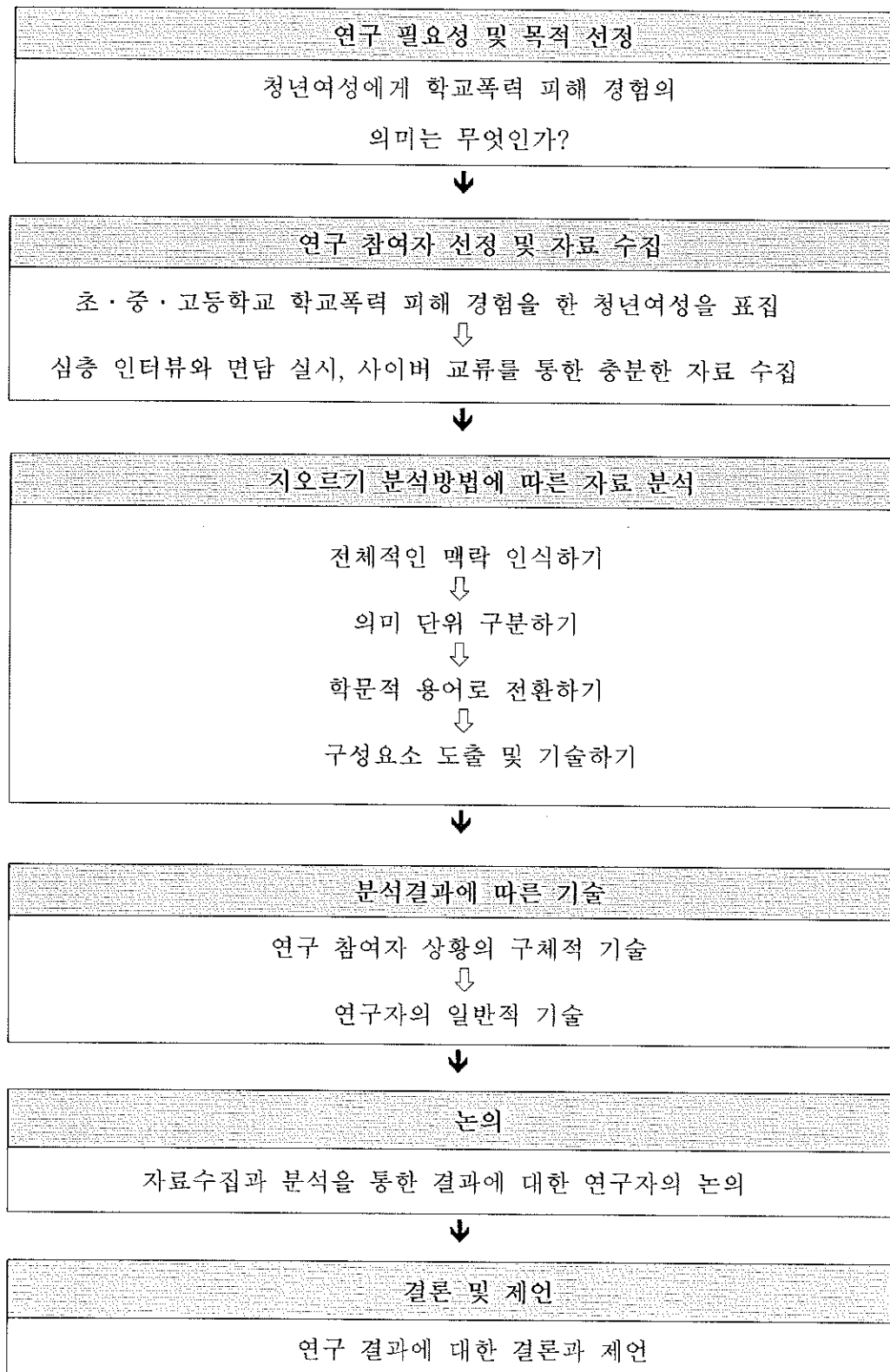
### 1. 연구의 전체적 진행과정 설계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어떻게 경험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6단계의 과정을 통해 연구 진행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갖고 있던 연구 주제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 근거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들을 표집하여 3회 이상 심층 인터뷰와 면담, 그리고 사이버 교류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수집된 내용들을 기술한다. 세 번째는,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이 중요한 만큼 수집된 연구 자료를 지오르기의 기술적 자료 분석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미 단위를 구분한다. 구별된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에서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기술한다. 네 번째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본질로 한 구체적인 상황기술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의미로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 구조로 기술한다. 다섯 번째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언급한다.

-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정
- 두 번째,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 세 번째, 지오르기 분석 방법에 의한 자료 분석
- 1단계: 전체적인 맥락 인식하기
  - 2단계: 의미 단위 구분하기
  - 3단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기
  - 4단계: 구성요소 도출 및 기술하기
- 네 번째, 지오르기의 분석 결과에 따라 기술하기
- 1단계: 상황의 구체적 구조 기술
  - 2단계: 연구자의 일반적 구조 기술
- 다섯 번째, 논의
- 여섯 번째, 결론 및 제언

〈표 10〉은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에 따라 본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설계한 것이다.

〈표 10〉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에 따른 전체적 진행과정 설계



##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sup>50)</sup>는 Morse와 Field가 말하는 ‘적절성’과 ‘충분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5명의 청년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단의 전형적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적절성’이란 연구 주제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분성’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충분할 만큼 포화상태(saturation)에 이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 대상자 선정 원칙에 따라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심층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구자와 2년 이상 성경공부 및 교제를 하였고, 이들 각 개인의 어머니도 연구자와 함께 성경공부 및 상담을 오래도록 하여 이미 형성된 신뢰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본 연구의 하나의 주체(subject)로서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근거한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과정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 3. 자료 수집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부터가 연구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므로 연구자는 현상학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심층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이나 그들의 어머니와 수년간의 교제를 해 왔으므로 그들에 대한 선지식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임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자는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상담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선지식이나 치료적 질문을 피하고 ‘질적 연구의 면담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진술자를 주체로 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50) ‘연구 대상자’라는 용어가 아닌 ‘연구 참여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귀납적 질적 연구과정의 특성 때문.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청년여성인 관계로 편안함을 주는 조용한 카페나 연구자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하기 전에 면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녹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했다. 면담 시간은 연구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 1회에 3시간 정도 심층면담을 했고, 면담 주기는 1~2주의 간격을 두고 각각 3회 이상 실시했다. 1차면담에서는 완전 개방형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진술을 기대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경험을 편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젊은 청년인 만큼 학교 폭력을 당하는 과정과 그 때에 느꼈던 감정과 형성된 사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2차 심층면담에서는 1차면담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경험된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고, 그 다음 단계로 학교폭력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어 달라고 했다. 1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사건 전개가 중심 내용이었다면 2차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신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내용이었다. 2차면담 내용은 대체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기점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쳤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과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해서 나누었다. 3차 심층 면담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과 삶의 태도 등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면담 중에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놀라워했다. 면담은 본인들이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시점에서 끝났으며, 연구 참여자들 개인에 따라 면담 시간, 횟수와 종료 시점은 각각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면담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10포인트 글자체로 전사하여 A4 용지 52매에 이르는 자료를 얻었고, 면담 당시에 연구 참여자가 보인 비언어적 행동 즉, 눈물이나 표정, 태도 등을 메모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어서 자료를 전사하거나 현장노트를 정리하는 가운데 궁금한 내용은 추후 전화통화 및 이메일, 문자를 통해 확인 및 보완하여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주력하였다.

#### 4. 연구 참여자 배경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다. 참여자 < 1 > 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참여자 < 3 > 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참여자 < 2 >, < 4 >, < 5 > 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참여자 < 1 >, < 2 > 는 중,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고, 참여자 < 3 >, < 4 >, < 5 > 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중, 고등학교 각 급 학교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였으며 대학생살에 부적응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 < 1 >. 현재 29세의 미혼여성이다. 가족사항은 부모님과 동생 셋이 있고, 1남 3녀의 장녀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짧게 하고, 현재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밝고 명랑하며 열정이 많고 적극적인 성향이나 자신의 전공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망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 오랜 기간 반 전체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때때로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 2 >. 현재 28세의 직장인이고 미혼여성이다. 부모님과 오빠가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나 중, 고등학교 때 한 차례씩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 자신감 결여로 좋은 학벌과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적이 잦다.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 < 3 >. 현재 28세의 미혼여성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끔 알바를 한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 활발하고 명랑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최초로 남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로 말이 없어지고, 중학교 때에도 남학생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여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대학생살에 적응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휴학을 했다.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으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감정 변화가 심하다.

연구 참여자 < 4 > . 현재 26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부모님과 오빠가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집단 따돌림 경험을 시작으로 중, 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대학생활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휴학을 했다. 직장생활에서도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겪는다.

연구 참여자 < 5 > . 현재 26세로 직장인이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남학생으로부터 외모로 놀림을 당하면서 자신감을 잃어 중, 고등학교 때까지 긴 시간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 그 경험으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혼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배경은 <표 11> 과 같다.

<표 11>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학교폭력 피해유형

|       | 연령  | 학력 | 직업    | 학교폭력 피해 |                   |
|-------|-----|----|-------|---------|-------------------|
|       |     |    |       | 시기      | 피해유형              |
| 참여자 1 | 29세 | 대졸 | 결혼 준비 | 고       |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
| 참여자 2 | 28세 | 대졸 | 직장인   | 중       |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
|       |     |    |       | 고       | 집단 따돌림            |
| 참여자 3 | 28세 | 대졸 | 취업 준비 | 초       | 놀림                |
|       |     |    |       | 중       | 괴롭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
|       |     |    |       | 고       | 집단 따돌림            |
| 참여자 4 | 26세 | 대졸 | 직장인   | 초       | 집단 따돌림            |
|       |     |    |       | 중       |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
|       |     |    |       | 고       | 집단 따돌림            |
|       |     |    |       | 대       | 집단 따돌림            |
| 참여자 5 | 26세 | 대졸 | 직장인   | 초       | 놀림                |
|       |     |    |       | 중       |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
|       |     |    |       | 고       | 집단 따돌림            |

## 5. 자료 분석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은 연역적보다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자 자신의 관점은 배제되고,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그 자체가 스스로 숨 쉬고 말하여지도록 자료를 분석해 나가야 하므로<sup>51)</sup> 연구 참여자의 진술한 내용을 전사한 텍스트를 주된 자료로 했다.

분석방법은 지오르기 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했다.

첫 번째 단계로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 당시에 녹취한 파일을 1~2회 이상 듣고 진술 내용을 컴퓨터를 사용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사했다. 전사한 내용을 프린트하여 반복해서 정독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해서 파악된 전체에 대한 맥락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 가면서 참여자가 학교폭력의 경험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의미의 전환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을 치거나 ' / '로 표시를 하여 '의미 단위'를 구분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주제에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시키고 의미 단위들 간의 상호 맥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총 324개를 구분해 냈고, 서로 관련성 있고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것들을 모아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며 요약한 의미 단위 총 104개를 도출했다.

마지막 단계로는 3단계에서 요약된 104개가 참여자들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26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또 다시 이것들을 비교,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6개의 통합된 구성요소를 도출해 냈다.

## 6.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은 구바(Guba)와 링컨(Lincoln)이 제시한 네 가지 사실성(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근거로 했다.<sup>52)</sup>

51) Irving Seidman,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해준 · 이승연 공역, 170-172.

52) C. Seals, "Qu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5(4), 1999) 조성남 외,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성(Truth value)은 실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고, 독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어지도록 하는가이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코딩하는 과정에 질적 현상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와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기술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왜곡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얼마나 일반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자들로 표집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도록 자료 수집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비중이 언어폭력>집단따돌림>폭행>스토킹>사이버 괴롭힘>금품갈취>강제심부름>추행 순으로 나타났듯이 여학생 사이에서는 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하나의 성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주제에 따라 여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이 높은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근절하는 노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미혼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되 한두 번 가볍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2회 이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였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로 표집했다.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 3회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한 내용과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때로는 추가적인 만남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관성(consistency)은 본 연구 결과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적용한다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료수집에서부터 분석, 그리고 구조를 형성하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 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도 자료의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주제와 범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5명의 연구 참여자의 면담 녹음 파일과 전사한 파일과 코딩하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그리고 날짜와 주제별로 정리하여 연구자의 컴퓨터와 USB에 보관하였다.

끝으로 '객관성'에 해당하는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는 전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도록 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진술함으로써 진술된 기본 자료가 연구 주제에 스스로 말하고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였다.

## 제 4 장

###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청년 여성에게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 여성 총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학교 폭력에 대한 관점과 피해 경험에 대해서 각각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5명의 청년 여성과 3회 이상 심층 인터뷰한 자료를 연구자의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26개의 하위구성요소와 6개의 구성요소로 도출해냈다.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경험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되는 6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어 나오는 과정과 그에 따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참여자들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진술들은 총 6개의 구성요소와 26개의 하위구성요소에 따라 전개된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시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개 방법은 지오르기의 방법에 준하여 연구자의 해석보다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기술하는 데에 노력하였고, 참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경험의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기술하였다.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학교폭력을 당함〉, 〈해결방안을 시도함〉, 〈고립되어 외로움〉, 〈상처로 남음〉, 〈성찰함〉,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의 6

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학교폭력 당함〉의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친구에게서 버림받음’, ‘집단 따돌림을 당함’, ‘괴롭힘을 당함’이다.

〈해결방안을 시도함〉의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친해지려고 노력함’, ‘노력이 허사가 됨’이다.

〈고립되어 외로움〉의 구성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외톨이가 됨’, ‘학교 가기 싫음’, ‘죽고 싶음’, ‘견뎌냄’이다.

〈상처로 남음〉의 하위구성요소로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공동체 생활이 힘들’,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 ‘자존감이 낮아짐’,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 ‘과거 아픔을 현실에서도 느낌’, ‘현실을 도피함’,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이다.

〈성찰함〉의 하위구성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이다.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의 하위구성으로는 ‘자각함’, ‘도전함’, ‘자신을 사랑하려고 함’, ‘관계가 회복되어 감’이다.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주요구성요소의 도출과정’을 표로 구성하여 부록으로 배치하였다.<sup>53)</sup>

## 1. 학교폭력을 당함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학교폭력을 당함〉이다. 참된 인간을 창출해 내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 내에서 참여자들은 인격이 파괴되는 다양한 폭력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 관해 기술함에 있어서 〈학교폭력 당함〉의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친구에게서 버림받음’, ‘집단 따돌림을 당함’, ‘괴롭힘을 당함’을 도출했다.

53) <부록 3> 참조

가. 친한 친구에게서 버림받음

하위구성 <친한 친구에게서 버림받음>의 의미단위로는 '친한 친구가 절교 쪽지를 남기고 떠남', '갑자기 놀아주지 않아 슬픔'이다.

(1) 친한 친구가 절교 쪽지를 남기고 떠남

참여자들은 친구가 항상 자신과 함께 할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친한 친구로부터 절교 쪽지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 참여자 4는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단점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면서 앞으로는 자신에게서 떠나 다른 친구와 놀겠다고 했다. 친구의 편지에 기록된 자신의 단점을 읽으면서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다른 친구에게로 간다는 말에 배신감을 느껴 화가 났다. 참여자 5는 학교를 오가며 마냥 즐겁게 지냈던 단짝 친구로부터 편지를 건네어 받는다.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 가는데 예기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내일부터 자신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는 절교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뭔가 부족하여 친구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에 몹시 낙심하고 슬펐다.

그 때는 쪽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어느 땐가 친구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그 때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 단점을 쓴 쪽지였던 것 같아요. 그 쪽지를 주면서 나와 절교를 하고 다른 친구에게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 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어요.(참여자 4)

학교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주고 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내일부터 나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혼자자가 되었어요.(참여자 5)

(2) 갑자기 놀아주지 않아 슬픔

청소년은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미숙하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돌발적 행동을 한 친구들로 인하여 참여자 2, 5는 당혹스러웠다. 어제까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잘 놀아 주던 친구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놀아주지 않아 슬펐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참여자 4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친구를 가리지 않고 사귀었다. 활발한

성격의 친구들과 또한 조용한 아이들 모두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런데 편을 갈라 노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소속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양쪽 편에서 받아 주지 않아 외톨이가 되었다. 이 일로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떠나고 다른 애들하고도 멀어져서 혼자가 된 거예요.(참여자 2)

반 애들이 극성인 애들과 저처럼 조용한 아이들로 나뉘기도 했는데 나는 극성인 애들하고도 어울리고 조용한 애들하고도 어울리며 지냈는데 그걸 갖고 '재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안 놀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부터 나를 끼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놀 수가 없다면서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너랑 놀면 다른 애들이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고 너를 끼워주면 우리까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끼어주지 않았어요.(참여자 4)

친구들이 갑자기 나하고 놀아 주지 않았어요. 그 때 내가 애들한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외면하지? 이해가 안됐어요.(참여자 5)

#### 나. 집단 따돌림을 당함

하위구성 <집단 따돌림을 당함> 의 의미단위로는 '안 좋은 소문이 퍼짐', '욕설을 들음', '협담을 많이 들음', '세력 있는 아이한테 잘못 보임', '감시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음'이다.

##### (1) 안 좋은 소문이 퍼짐

참여자들은 어느 날 자신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건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하지만 해명할 방도도 없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들 앞을 지나다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참여자 1은 자신이 한 학생에게 말실수 한 것을 인정은 하지만, 당사자 외에 다른 모든 아이들까지 자신을 외면하여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 참여자 4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 사는 이유로 시기를 받아 외톨이가 되었다. 참여자 5는 자신의 어



리석은 판단에서 비롯된 말실수로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자책도 했지만 이미 깨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

말실수 한 사건이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전교생 360명에게 다 알려졌어요. 내가 그런 애라고요. 그 후로 저는 갑자기 이상한 애가 된 거지요.(참여자 1)

지역 특성상 우리 집이 그 지역에서는 잘 사는 것으로 보였나 봐요. 애들 눈에는 우리가 자기네 집에 없는 것도 많고 내가 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내가 우리 집 얘기하는 것에 대해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재는 자기 집 얘기밖에 할 줄 모른다.'면서 안 좋은 얘기가 퍼진 거예요.(참여자 4)

제 친구한테 내 방은 사람이 한 1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하고 어느 날 우리 집엘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때 우리 집은 방 두 칸짜리 9평 월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때 나는 그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간 지각력이 없었던지 그 때는 정말 사람을 구겨서 넣으면 한 100명쯤은 들어가겠다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이후 다른 친구들한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폭로해 버렸던 거예요. 그 바람에 나는 하루아침에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참여자 5)

## (2) 욕설을 들음

욕은 듣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상스러운 욕을 들은 참여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 특히 참여자 1은 몇몇의 친구들로부터 욕을 들은 것이 아니고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동시에 엄청난 큰 소리로 부르짖듯 쏟아내는 욕을 들어야만 했다. 그 상황은 마치 도시 한 복판에 떨어진 폭탄과 같이 전 인격에 폭격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밤마다 겪어야만 했다. 그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참여자 2, 3도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욕을 들을 때마다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방과 후 도서실에서 야간자습을 하고 밤 12시쯤이면 학생 전체가 책가방을 메고 우르르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복도를 지나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방이 복도 맨 끝에 있

있던 거예요. 이쪽 복도에서부터 저쪽 복도 끝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내가 복도를 지나는데 모든 방의 방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일제히 엄청난 큰소리로 별의 별 욕을 다 쏟아 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도 이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괴로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참여자 1)

중2학년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참여자 2)

애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반에 민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애가 제일 많이 욕을 했어요.(참여자 3)

### (3) 험담을 많이 들음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며 험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거절한다는 생각에 거절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도 험담을 하는데 자신이 안 볼 때에는 얼마나 험담을 할까하는 생각에 집중되어 학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지만 해도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신경이 쓰였다. 모여 있는 아이들한테 찾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확인할 수도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했다.

당연히 아이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그랬지요.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퍼져서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말이 많이 들려 왔어요.(참여자 1)

중학교 1학년 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반의 모든 여자아이들이 복도에서 둥글게 빙 둘러 서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외에도 내 뒷담 하는 말을 들은 일이 많았어요. 애들이 하도 뒤에서 내 험담을 해서 심할 때는 길가다가도 내 욕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랬어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지요.(참여자 3)

한 달 학교 다니다보니까 통학시간이 멀고 긴장을 많이 해서 몸이 아파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학교를 가니까 분위기가 짝 달라진 거예요. 애들이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한 뒷담을 했던 거예요.(참여자 4)

## (4) 세력 있는 아이한테 잘못 보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참여자 1, 4는 반에서 가장 세력 있는 아이에게 실수를 하여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반 아이들을 좌지우지 하는 세력 있는 아이에게 잘못 보여 그 아이를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내가 말실수 했던 애가 누구냐 하면 일진희 같은 세력을 갖고 아이들을 주도했던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아이를 중심으로 나를 반 전체로부터 왕따를 시켰던 거지요.(참여자 1)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책을 샀는데 한 아이가 만화책 표지에 있는 연예인 사진을 찢어 달라는 거예요. 표지를 찢어 주면 헌책이 되는 게 싫어서 싫다고 했더니 그 때부터 그 애는 그 일을 꼬투리 잡아서 아이들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연예인 사진 달라고 한 아이가 반에서 세력이 있는 리더 같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 일로 그 아이한테 잘 못 보여서 갑자기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왕따가 되었어요.(참여자 4)

## (5) 감시 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음

집단 따돌림이 된 참여자들은 여러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지내게 된다. 참여자 1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며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숨 막히는 기숙사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학교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 4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또 무슨 꼬투리라도 잡힐까 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 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에서 다니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라도 하면 숨통이 트였을 텐데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내내 아이들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하니까 정말 감옥 같았어요.(참여자 1)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컴퓨터 채팅을 걸어오는데 하는 말이 “오늘도 너 나한테 상처를 주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데 나의 표정 하나하나에 상처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 학교에 가면 손끝 하나 발끝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같아서 학교 있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참여자 4)

#### 다. 괴롭힘을 당함

하위구성 〈괴롭힘을 당함〉의 의미단위로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낌’, ‘무가치하게 느낌’, ‘무력하여 대항하지 못함’이다.

##### (1) 수치와 모멸감을 느낌

여자 아이들과 달리 남자 아이들의 괴롭히는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학생들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것을 재미로 삼는다. 놀리는 사람은 재미로 할지 모르겠지만 놀리는 말을 다른 아이들이 듣고 합류해서 집단 놀림이 된다.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은 놀림을 당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여성으로서 매력 없는 사람일 거라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 참여자 3은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여자 아이들은 말로 많이 괴롭히는 반면 남자 아이들은 좀 더 짓궂게 괴롭혔다. 어느 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자신의 책상 위에 알 수 없는 더러운 오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이 앉는 책상에 묻은 오물을 보는 순간 마치 자신의 몸에 묻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이와 같은 괴롭힘이 잦았다. 참여자 5는 남학생 하나가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공개적으로 전체 앞에서 놀림으로 한 순간에 반 아이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었다.

남자 아이들이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많이 놀리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뭘 봐’ 하면서 툭툭 쳐어요. 여자들은 누가 얼굴이나 외모 갖고 놀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아이들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이름을 안 부르고 놀리는 말로 부르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내 책상위에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오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어요. 마치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의자에도 몸쓸 물건을 갖다 놓기도 했어요. (참여자 3)

어느 날 남자 아이들이 인기투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손을 드는 거였어요. 모두 다 자기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하고 긴장하며 자기 이름 불러질 때를 기다리며 집중하고 있을 때 마침내 내 이름이 불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아가 “OOO는 슈퍼 똥똥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반 전체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 때 나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인기는 커녕 그런 말을 들었으니깐요. 제가 좀 똥똥했었거든요. 그 일로 나는 반 아이들한테 ‘슈퍼 똥똥이’로 알려졌어요.(참여자 5)

## (2) 무가치하게 느낌

존엄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한낱 노리개라고 여겨질 만큼 참여자 3은 남자들의 놀림에 자존감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고 많은 여학생들 중에 하필이면 왜 자신일까? 그만큼 자신이 남자 아이들한테 만만하게 보였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자신이 과연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일까 하는 혼란을 겪는다. 남자들의 괴롭힘과 조롱을 받으며 자신은 남자들한테 매력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남자들에겐 수도 없이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나는 남자들에게 만만한 존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머릿속에 박혔고, 남자들의 '놀림감', 그리고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나는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3)

놀리는 아이들은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놀리는 그 말로 나는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많이 부족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그 때부터 들었어요.(참여자5)

## (3) 무력하여 대항하지 못함

한 사람이 아닌 집단이 가해왔을 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들의 숫자나 힘에 압도당하여 무력해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설령 대항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 후에 더 심한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욱이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참여자 3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힘센 남자 아이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앞으로 두려움에 분노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결국 자신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이고, 독 안에 든 쥐 같이 느껴지는 무력감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치욕적이고 모욕을 주는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가 엄청나게 일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내가 놀아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화를 내봤자 더 당하니깐요. 내가 화를 내든지 가만히 있든지 나는 상대방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이고, 독 안에 든 쥐처럼 여전히 그들이 주는 치욕을 받게 될

테니까요.(참여자 3)

화가 많이 나서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놀림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2. 해결방안을 시도함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해결방안을 시도함> 이다.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의 탈피를 갈망하며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 관해 기술함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시도함>의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친해지려고 노력함’, ‘노력이 허사가 됨’을 도출했다.

### 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하위구성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의 의미단위로는 ‘엄마에게 알림’, ‘전문상담을 받음’, ‘환경의 변화를 시도함’이다

#### (1) 엄마에게 알림

참여자 1은 엄마에게 알려 엄마랑 매일 통화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참여자 2는 학교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어머니한테 알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촌 언니를 만나 얘기 했지만 언니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섭섭했고 낙심이 되었다. 참여자 3은 엄마가 충격 받을까봐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힘들다고만 하고 실제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다.

엄마한테 알렸어요. 기숙사 생활하다보니까 아침마다 엄마가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참여자 1)

엄마한테 말씀 드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서 사촌언니한테 얘기 했는데 그 언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참여자 2)

엄마한테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

기 안 했어요. 엄마가 충격 받을 것 같았어요.(참여자 3)

## (2) 전문 상담을 받음

참여자 2는 어머니한테 말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경도 안 써서 견디다 못해 집에 배달되는 구몬 학습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실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한다. 집이나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 하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두려워서 집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의 공중전화를 찾아가 전화를 했다. 무려 한 달간 그렇게 매일 전화로 상담을 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멀리까지 가서 공중전화로 상담을 했지만, 전화상담사의 성의 없는 반응에 안타깝게도 상처를 받는다. 참여자 3은 어머니가 집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 내에 있는 상담실로 데려가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이 나누는 얘기가 어머니한테 전해져 충격을 받을까봐 솔직하게 상담에 응하지 않았다. 참여자 5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상태를 알림으로 TV에 출연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약이 잘 맞지 않아 공부시간에도 잠을 자게 되어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놀림거리가 되므로 상담을 중단했다.

엄마한테 말씀 드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경을 안 써서 구몬 학습지에 나오는 청소년 상담실 전화번호 보고 내가 직접 전화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집이나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게 될까 두려워 한참을 걸어서 집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가서 공중전화로 전화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매일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 너무나 쌀쌀하게 전화를 받아서 상처 받았어요.(참여자 2)

학교 갔다 오면 현관 문 열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매일 짜증내고 화를 내서 엄마는 내가 학교생활이 좀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내가 어느 정도 겪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친구 관계만 좀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집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 상담실에 정기적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상담 받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얘기가 엄마한테 다 들어갈 것 같아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3)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서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드려서 엄마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분한테 가서 상담 받으면서 받아온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졸린 거예요. 공부 시간에도 졸고 자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더 놀림 받고 안 좋아졌어요.(참여자 5)

### (3) 환경의 변화를 시도함

참여자는 물론 부모님도 함께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환경의 변화를 시도한다. 참여자 2는 3학년이 되어 반 편성이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학생과 한 반이 되었다.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씀드려 학교에 전화를 하여 반을 옮겼다. 참여자 4는 중학교 때 힘들게 했던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만날까 싶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중3 때 반편성이 되었는데 중2때 괴롭힌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었어요.(참여자 2)

중3 끝나는 겨울방학 때 우리가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역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니까 새로운 애들하고 학교 다니겠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 4)

엄마한테 얘기해서 전학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전학이 안 되었어요.(참여자 5)

### 나. 친해지려고 노력함

〈친해지려고 노력함〉의 의미단위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시도함’, ‘잘 못된 방법으로 친해지려고 시도함’이다.

#### (1)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시도함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 써본다. 참여자 3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한다. 참여자 4는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화의 공통 화제를 갖고 대화에 합류도 해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밝은 표정도



깃고 칭찬도 해본다.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나 찾아 봤어요. 그리고 인기 많은 아이들을 유심히 보고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해봤어요.(참여자 3)

여러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이 아이 저 아이하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밝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칭찬도 많이 했어요. 나는 워낙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god' 연예인 얘기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때 느끼게 '아 이렇게 연예인 얘기하면서 애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어요.(참여자 4)

## (2) 잘못된 방법으로 친해지려고 시도함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미숙했던 참여자 1은 이런 농담을 하면 그 아이랑 친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어디서 들었던 말을 했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 말한 마디의 실수는 집단 따돌림으로 발전해 나갔다. 참여자 5는 친구들 그룹에 끼고 싶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자신의 집안 배경을 거짓말했다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난다.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아이들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어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농담을 하면 친해질 줄 알고 한 아이한테 말을 했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학생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를 드리는데 지금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했는데 그 때에 그 아이한테 '너는 얼굴이 안 되니까 이제 뇌물로 들이 대냐?'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친해질 줄 알고 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을 훔쳐 냈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 일을 발단으로 아이들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꾸며내기 시작했고, 그 말들이 퍼지고 퍼져서 전교생 360명한테 다 알려진 거예요. 자신이 그렇고 그런 애라고요.(참여자 1)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다른 반이 되어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몇몇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 집보다 집안 환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집안 환경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아빠의 학력도 거짓말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통이 나서 그 날로부터 나는 왕따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참여자 5)

다. 노력이 허사가 됨

〈노력이 허사가 됨〉의 의미단위로는 ‘사과하고 애원했으나 거절당함’, ‘노력한 것이 역효과가 됨’,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겠음’, ‘관계하기를 포기하고 혼자 지냄’이다.

(1) 사과하고 애원했으나 거절당함

참여자 1은 자신의 실수가 발단이 되어 집단 따돌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사과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 참여자 4는 친구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찾아가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좌절하고 낙심한다.

미안하다고 사과의 편지를 그토록 많이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여자 1)

아이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해서 나를 안 좋게 보지 말아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저자세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애는 ‘그래도 나는 너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풀려서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건성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해명을 했는데 아이들은 다른 아이 말만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안 받아 주었어요.(참여자 4)

(2) 노력한 것이 역효과가 됨

참여자 2는 괴롭혔던 친구를 피해 반까지 옮겼는데 유감스럽게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일 년 동안 괴롭힘과 불공평한 편애를 당한다.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결과는 역효과로 돌아왔다. 참여자 4는 밝은 얼굴로 미소도 지어보고 칭찬도 해 봤지만 가식처럼 보인다고 아이들이 싫어했다. 참여자 5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괴롭히는 친구하고 같은 반이 안 되려고 반을 옮겼는데 옮겨 간 담임선생님한테 엄청 괴롭힘을 당했어요. 반장 선출을 하는데 반장후보를 담임이 무조건 성적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후보로 뽑게 했어요. 그 때 제가 10등 안에 들어 있어서 반장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저만 쪽 빼놓고 나 대신에 11등 하는 애를 반장 후보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 뿐 아니라 사사건건이 지적을 하고 공개적으로 반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많이 주었어요. 1년 내내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바람에 기가 팍 죽었고 자존감이 무척 낮아져 친구 관계도 더 어려워졌어요.(참여자 2)

친해지려고 아이들한테 칭찬도 하고 밝게 웃고 다녔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재는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저런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어하더라고요.(참여자 4)

친해지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집보다 집안 형편도 좋았고 부모님 수준도 우리 부모님보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우리 집 배경과 아빠의 학벌을 거짓말했다가 탈로가 나서 반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어요.(참여자 5)

### (3)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겠음

여자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어떻게 그들의 기분을 맞춰야 할지 답답하다. 여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여자 아이들 마음 맞추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아 하는지 말도 안 해주니까 어려워요. 어느 때엔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표현도 안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참여자 1)

여자 아이들은 노는 게 이상해요. 이 애한테 붙었다가 저 애한테 붙었다가 돌아가면서 왕따 시키고 그러는 여자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참여자 2)

여자 아이들 마음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고 그러는 이유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웠어요.(참여자 5)

### (4) 관계하기를 포기하고 혼자 지냄

참여자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과도 해보고 친해지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봤

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상황을 맞으면서 관계하기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만들려는 노력을 중지하고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다.

사과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니까 이젠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지냈어요.(참여자 1)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엔 그것도 하기 싫어졌고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경 안 쓰고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생각하고 혼자 지냈어요.(참여자 2)

중학교 때 하도 당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아예 거의 혼자 지냈어요. 외롭기는 했지만 신경 안 쓰니까 더 편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엔 지쳐서 어느 정도 이상은 굳이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2 때부터는 단짝 없이 우울하게 지냈어요. 친구를 맺으려고 애 쓰질 않았어요. (참여자 4)

### 3. 고립되어 외로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고립되어 외로움>이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동안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외톨이가 되어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 <고립되어 외로움>의 구성요소에서 도출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외톨이가 됨', '학교 가기 싫음', '죽고 싶음', '견뎌냄'이다.

#### 가. 외톨이가 됨

<외톨이가 됨>의 의미단위로는 '단짝 친구가 없어 외로움', '혼자 도시락 먹게 됨', '점심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움'이다.

##### (1) 단짝 친구가 없어 외로움

참여자들은 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엔 단짝 친구 한 사람도 없이 혼자가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고 웃고 재미있게 노는데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학교를 갈 때나 올 때도 혼자이다.

단짝 친구 하나 없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는 게 힘들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 이전에 아이들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학교에서 제일 힘든 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단짝 친구 하나 없이 혼자 학교 오고 가고 쉬는 시간에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참여자 3)

단짝 친구가 나를 떠나 다른 친구하고 한 편이 되어서 나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나 올 때도 혼자였고 학교 가서도 혼자였어요.(참여자 5)

## (2) 혼자 도시락 먹게 됨

중, 고등학교 시절의 점심시간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다. 여럿이 모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깔깔대고 웃으며 친밀함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러나 혼자가 된 참여자들은 옆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상대적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낀다. 아무도 도시락 같이 먹자고 다가와 주는 친구 하나 없이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도 매일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남학생들한테 가서 홍일점으로 먹을 수도 없었고요. 만일 남학생들하고 점심 같이 먹었다면 그 때는 정말 여자 아이들로부터 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지요.(참여자 1)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제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점심시간 다가오는 것이 정말 괴로웠어요. 점심시간에 밥도 혼자 먹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림만 열심히 그렸어요.(참여자 4)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제 기억에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여럿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그러는데 나는 혼자 먹어야 했어요. 소풍 가서까지도 혼자 밥을 먹었으니 평소에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참여자 5)

### (3) 점심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움

외톨이가 된 참여자들에게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점심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참여자 4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 자리를 피해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갔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책가방을 싸서 집에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야하는데 짝한테 만일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아파서 집에 갔다고 하라고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점심시간에 집에 갔어요. (참여자 4)

노는 시간은 짧아서 그래도 견딜만한데 점심시간은 노는 시간보다 길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재미있게 노는데 혼자 있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참여자 5)

## 나. 학교 가기 싫음

〈학교 가기 싫음〉의 의미단위로는 ‘학교가 지옥 같음’, ‘학교를 벗어나고 싶음’이다.

### (1) 학교가 지옥 같음

학교에 가면 자신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리며 험담하는 말이 들려오고, 손끝 발끝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것 같은 따가운 시선을 받는 학교가 지옥 같이 느껴진다. 남학생들의 괴롭힘으로 매일매일 고통을 겪는 참여자 3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겪을까 생각하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를 간다. 참여자 4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혼자 먹은 점심이 소화 장애를 일으켜 양호실을 수시로 드나든다. 참여자 5도 외톨이의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가 너무나 싫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참아낸다.

그런 상황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3년 내내 감옥 같았지요. 그렇게 힘든 것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참여자 1)

학교 가는 게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어요. 아침에 눈이 떠져서 학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학교가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럼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두려워서 아침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갔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참여자 3)

학교에 가면 혼자 지내야 하니까 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스트레스로 점심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양호실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2주일 내내 간 적도 있어요. 그 때 양호 선생님이 약을 주다가 약을 안 주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약을 먹어서 나올 병이 아니고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으니 문제를 풀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거예요.(참여자 4)

그 때 들었던 생각은 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져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 갔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했었어요.(참여자 5)

## (2) 학교를 벗어나고 싶음

지옥 같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참여자 3은 엄마한테 전학 시켜달라고 졸랐다. 참여자 4는 학교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공부 마치고도 전에 책가방을 챙겨 일찍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았다. 참여자 5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볼까 건강을 핑계 삼아 조퇴와 결석을 반복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싫지만 안 갈 수도 없고 학교 끝나기만 하면 곧 바로 집 앞에 있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참여자 2)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일까하고 아침에 공부 시간 딱 맞춰서 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집에 오고 그랬어요.(참여자 3)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 때 학교에서 헌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침 피 검사에서 간이 안 좋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핑계로 조퇴를 매일 하다시피하고 학교 늦게 가고 그랬어요. 전에는 개근이었는데 그 때는 결석과 조퇴를 밥 먹듯이 했어요.(참여자 5)

## 다. 죽고 싶음

〈죽고 싶음〉의 의미단위로는 ‘고통을 피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함’, ‘자살할 생각을 많이 함’, ‘자살을 시도해 봄’, ‘지옥이 두려워 자살하지 못함’이다.

## (1) 고통을 피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함

고통을 피하고자 전학을 시도했지만 전학도 안 되어 참여자 2, 3, 5는 죽음만이 고통을 피하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밤이면 밤마다 낮에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다가 죽었으면 한다. 죽음을 통해 고통스런 내일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아침에 눈이 떠져서 학교를 가야했고, 그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죽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테니까요. (참여자 2)

밤마다 드는 생각은 자다가 죽어서 아침이 안 왔으면 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괴롭혔던 남자애들 생각하면서 그 밤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살아서 눈을 떠서 학교 갈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와 괴로웠어요. (참여자 3)

전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는 것만이 그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5)

## (2) 자살할 생각을 많이 함

참여자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을 죽음으로써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죽기를 원했지만 죽지도 않으니 최후의 선택으로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 3, 5는 자살할 생각을 한다. 참여자 3은 자살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그 학생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자신은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행복하게 지내는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불일 듯 일어났다. 자신이 자살하여 가해 학생이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을 겪기를 원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 전까지 하고 그랬지만 그 때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힘들 때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2)

죽고 싶었지만 죽지도 않고 아침이 또 밝아 오니까 내가 죽는 것 밖엔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나 집에



서나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괴롭히는 아이들을 죽이는 상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죽일 수도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자살해서 그 아이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때문에 나는 아무런 즐거움도 행복함도 느끼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우울하게 지내는 내 삶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증오심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도 평생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어요.(참여자 3)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으니까 힘들 때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 방법밖엔 없었으니까요.(참여자 5)

### (3) 자살을 시도해 봄

고통을 피하는 방책으로 자살을 선택한 참여자 3은 자살의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어느 날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겠구나하는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을 참아봤다. 참여자 5는 수면제를 조금씩 사서 모았다. 수면제를 먹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수량이 부족하여 해를 입지는 않았다.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때는 자살할 생각을 수만 번을 했어요. 밤마다 별의 별 자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목을 매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약을 먹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동맥을 끊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죽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숨을 안 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살하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을 안 쉬어봤어요. 나름대로 자살을 시도했던 거지요.(참여자 3)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수면제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어서 어느 날 나도 수면제를 조금씩 사다가 모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얼마만큼 먹어야 죽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먹었는데 양이 적었는지 안 죽었어요.(참여자 5)

### (4) 지옥이 두려워 자살하지 못함

자살하려 했던 참여자들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진다. 고통스러운 현

실을 피하여 죽음을 선택해 보지만 자살하면 더 무서운 지옥을 가야한다는 사실이 두려워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살도 못했어요.(참여자 3)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통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웠어요. 아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 살자니 사는 것도 힘들고 죽자니 지옥 가는 게 무섭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라. 견뎌냄

〈견뎌냄〉의 의미단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함’, ‘교회에서 힘을 얻음’, ‘긍정적 생각을 함’, ‘음악과 그림으로 고통을 견뎌냄’, ‘괴롭혔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당함’이다.

### (1) 하나님을 의지함

고통을 벗어나고자 자살까지 시도했던 참여자들은 이제 견뎌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참여자 1은 남학생이 권유한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반 전체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이겨낼 힘을 얻는다. 시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나갔다. 참여자 3은 지옥 같은 학교를 향해 등교하는 중에 죽을 것만 같은 스트레스가 밀려 올 때마다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시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시편을 읽었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밑줄 쳐다가 아침마다 엄마랑 통화하면서 십분, 십오 분씩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힘내서 잘 지내라” 그러시면 힘을 얻고 하루를 버텼어요. 매일매일 그게 일과였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아침마다 지옥 같은 학교를 갈 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때마다 정말 주기도문을 수만 번 외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참여자 3)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에도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참여자 5)

## (2) 교회에서 힘을 얻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생활이 연속되었지만 참여자들 모두에게는 주일이 되어 큰 위로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다. 참여자 1은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힘을 얻었다. 참여자 4와 5는 교회에서만큼은 밝게 웃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달리 교회의 교우들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고 사랑해 주어 큰 위로를 받았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참여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안식처와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근원지였다.

교회도 그 때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기숙사가 시골에 있어서 주일이면 교회의 봉고차가 학교에 왔어요. 차를 타고 가서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은 자기 잤대로 나한테 이려고저려고 뭐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참여자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는 힘들었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친구들과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힘을 얻었어요.(참여자 4)

주일날엔 밝은 모습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애들이랑 떠들고 같이 어울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학교생활을 버텼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3) 긍정적 생각을 함

힘든 상황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견디는 방법은 자신이 바뀌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자 1은 최악의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견여내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그들로 하여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따돌린다는 생각을 한다. 참여자 2는 외톨이가 된 상황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다.

그 상황에서 어쩌면 자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저는 신기하게 자퇴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때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따 시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곧세게 이겨냈어요.(참여자 1)

마음은 괴로웠지만 혼자가 되다보니까 애들하고 노는 시간도 적고 그래서 이때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고 학교 끝나면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참여자 2)

#### (4) 음악과 그림으로 고통을 견뎌

참여자 3은 매일 밤 방문을 잠그고 슬픈 음악을 들으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울음으로 쏟아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 주는 가수가 유일한 위로자요 친구였다. 만화를 좋아하는 참여자 4는 학교에서 노는 시간에도 그림 그리면서 외톨이의 외로움을 이겨낸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음악을 들었어요. 일부러 슬픈 음악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음악이 나한테는 친구 같았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잠드는 건 정말 최고예요. 그만큼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괴로웠어요.(참여자 3)

학교에서도 혼자 지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노는 시간에도 그림만 그렸어요. 그림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엔 고통을 잊고 행복했어요.(참여자 4)

#### (5) 괴롭혔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당함

참여자 3과 4를 괴롭혔던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괴롭혔던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대로 당하는 역전의 상황이 찾아왔다. 그 덕분에 참여자들은 괴롭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를 괴롭힌 남학생은 비겁하고 치졸하게 여학생이나 괴롭히는 격이 낮은 한마디로 양아치 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반에서 힘세고 정말 괜찮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까불대는 양아치 같은 그 남학생을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정말 죽도록 펜 거예요. 그 때 얼마나 기분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일이 있던 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아이 부모가 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 덕분에 저는 좀 자유로워졌지요.(참여자 3)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해서 학교에 갔더니 나를 왕따 시켰던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왕따가 되어 역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학교 공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때리는 일도 있어서 정학을 당하고 그랬어요. 학교 분위기가 험해져서 그 때부터는 다들 조용히 지내게 되었어요.(참여자 4)

#### 4. 상처로 남음

〈상처로 남음〉의 하위구성 요소로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공동체 생활이 힘들’,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 ‘자존감이 낮아짐’,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 ‘과거 아픔이 현실에서도 느껴짐’, ‘현실을 도피함’,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이다.

##### 가.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참여자들은 중, 고등학교 때 경험한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친구 맺기가 힘들다. 외롭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한다.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의 의미단위로는 ‘대학생활이 재미없음’, ‘혼자 지내는 게 편함’, ‘친구 사귀기를 포기함’, ‘휴학함’이다.

##### (1) 대학생활이 재미없음

지옥 같았던 중, 고등학교 교정을 벗어나는 날을 손꼽으며 하루하루 버텨왔던 참여자들은 마침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 아직은 학교라고 하는 구조 속

에 있는 대학교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교 때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다. 하지만 슬프게도 중, 고등학교 때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참여자들의 생각과 정서와 그들의 삶 전반부에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었다. 고통스런 상황에 노출되었던 중, 고등학교 때보다도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처의 열매를 발견하면서 그들은 더 큰 절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 한다. 이와 같은 상처를 남겨 준 가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났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미래가 암담했다.

참여자 3에게는 학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의 복합체였다. 중, 고등학교 교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대학 강의실이었지만 사람들로 부터 받은 상처로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 모두의 얼굴도 보기 싫다. 학교의 모든 것들이 싫었다. 특별히 그룹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강의를 더 기피한다. 다른 학생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한창 행복하게 대학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괴리감으로 느껴졌고 아픔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가장 행복해야 하는 대학 캠퍼스 생활이 참여자들에게는 즐겁지도 재미있지도 않았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미팅해서 남자 친구를 만나 몇 년 동안 그 남학생하고 교제했고 여학생들하고는 친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 친구하고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오래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외로워서 그 아이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결국 대학생살도 재미없었어요. 지금 그 학교 캠퍼스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요.(참여자 1)

대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빈부 차이가 많은 우리 학교에서 또 다른 소외감으로 마음이 힘들었고 아이들이 하도 징글징글해서 혼자 지냈어요.(참여자 2)

나에게 학교란 트라우마의 복합체였어요. 같은 반 학생들 얼굴도 보기 싫었고, 그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그 자체도 싫었고, 그리고 그룹 활동 같은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이런 모든 게 싫어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석을 무척 많이 했어요.(참여자 3)

전공 공부는 재미있어서 대학교가 좋긴 했는데 아이들이 싫어서 대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대학교 가서도 여학생들이

내 험담을 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 때 주동이 되었던 아이하고는 졸업할 때까지 말 안했어요.(참여자 4)

### (2) 혼자 지내는 게 편함

참여자들이 혼자 지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쩌면 더 없는 슬픈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일찍이 외톨이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참여자 2는 사람들에게 대한 회의와 실망감이 고조되어 혼자 지내기에 편한 여대를 선택했고, 대학 생활하는 동안 동아리 활동도 기피했다.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자 4는 친해지려고 대학생활 내내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교에서도 잠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여 졸업할 때쯤에는 혼자 지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여대인데다 특히 다른 학교보다 개인 play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고 싶어서 그 학교를 선택했어요. 혼자 지내도 별 무리 없이 이상하게 안 보일 테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당연히 동아리 활동도 기피했지요.(참여자 2)

대학교 들어가서도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싫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인사하는 게 더 싫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나왔어요.(참여자 3)

대학교 때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어울려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되긴 하는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는 혼자 지냈어요.(참여자 4)

### (3) 친구 사귀기를 포기함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참여자들에게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요,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큰 스트레스이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겠거니와 그 방법을 안다하더라도 적용하여 관계를 하는 그 자체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또 다시 과거처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마음 한 가운데서 출렁였다. 그리하여 대학교에 들어가서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 참여자 2, 4, 5는 대학교 때 사귀 친구가 없다.

중, 고등학교 때 그런 일 겪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말자.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인간들이 하도 징글징글해서 아예 혼자 생활을 했어요.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그게 내 성격이려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중,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그런 일을 겪어서 친구를 아예 안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동창 중에서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참여자 2)

대학교 때는 괴롭힘을 당했던 중, 고등학교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을 겪었던 때였어요. 대학교 때는 상처 입은 자신을 직면하면서 정말 감당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통을 앓느라 친구 사귀는 생각은 꿈도 못 꿰고 사람들 자체를 싫어해서 눈도 안 마주쳤으니 말할 것도 없지요.(참여자 3)

대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그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반 편성 때문에 친구 사귀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이후에도 친구를 사귀려 했으면 얼마든지 사귀었을 텐데 친구 사귀는 게 두려워서인지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4) 휴학함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었던 참여자들은 건디다 못해 휴학을 한다. 참여자 3, 4 중간에 휴학을 했고, 참여자 5는 4학년 때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마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았다. 졸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10여년이 지난 후 자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야 복학해서 졸업을 했다.

학교는 저에게 가장 가기 싫은 곳,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학하면서부터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매학기 때마다 휴학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하다가 결국 3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참여자 3)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학교도 멀었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없고 재미없어서 그냥 휴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했어요.(참여자 4)



휴학이나 다름없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하고 남은 학점 이수 안 했어요. 다시 복학해야 하는데 학교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공부해야 하는 자신도 부끄러웠고요.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10여년이 지나 마음이 회복되고 보니까 학교를 못 마친 데에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복학해서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참여자 5)

#### 나. 공동체 생활이 힘들

〈공동체 생활이 힘들〉의 의미단위로는 ‘또래들과의 사귀기 힘들’, ‘또래집단에 소속하는 게 힘들’, ‘직장생활이 힘들’이다.

##### (1) 또래들과의 사귀기 힘들

학교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었고 또래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참여자들에게 공동체 생활은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특별히 또래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참여자들에게 또래들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의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힘든 과제였다. 참여자 3은 또래와 어울리려면 자신 안에 내재화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다. 또래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도 또래들 앞에만 서면 내면에서 창피와 수치심이 올라왔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래들과의 사귀는 것은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다.

또래와 어울리려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트라우마를 뛰어 넘고 창피와 수치심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아예 도피해 버리고 또래와 어울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또래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의 엄청난 거절감과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참여자 3)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것은 편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또래하고는 사귀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참여자 4)

##### (2) 또래집단에 소속하는 게 힘들

참여자 3은 또래들의 모임에서 경험했던 아픔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청년부에 소속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도 대부분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

문에 또래들이 없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학교 때도 제가 제일 힘들어 했던 게 그룹으로 작업하는 거였어요. 그룹 활동 자체를 무척 싫어했지만 특별히 또래만 있는 공동체는 더더욱 싫어요.(참여자 2)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고 교회에서 청년부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청년부에 들어가면 제 또래 집단들이 있어서 싫어요. 나이별로 조별 모임을 갖잖아요. 청년부 예배는 좋은데 조별 모임 들어가는 게 정말 저한테는 매주매주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또래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또래가 없는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요.(참여자 3)

직장이나 교회에 가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나이별로 팀이 정해지지 않아서 팀에 언니들이 많아서 좋아요. 동갑내기 모임이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참여자 4)

아무래도 또래만 있는 공동체는 불편하지요. 그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무척 불편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편해요.(참여자 5)

### (3) 직장생활이 힘들

대학교 생활도 힘들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 직장생활도 힘들다.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대인관계가 힘들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참고 다니는 거지 사실 힘들어요. 특성상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는 혼자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일이 편하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것 저 것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사 생활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참여자 2)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저는 자택 근무하는 것을 선호해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택 근무했을 때가 좋았어요.(참여자 4)

직장에서 동료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일하는 것은 업무상 자기 말

은 일이 있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기준도 모르겠고 눈치 보게 되고, 옳고 그름의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언제나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유난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서 피곤해요.(참여자 5)

#### 다.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의 의미단위로는 ‘외톨이가 될까봐 과도하게 애를 씀’, ‘자기주장을 못함’, ‘말실수 할까봐 대화가 편치 않음’,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함’이다.

##### (1) 외톨이가 될까봐 과도하게 애를 씀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혼자가 되었던 참여자들은 직장에서도 또 다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에 과도한 노력을 한다. 참여자 2는 직장에서 혼자 점심 식사하지 않기 위해 점심 같이 먹을 파트너를 찾아 이 사람 저 사람과 약속을 했다. 참여자 3은 몸이 피곤함에도 그룹에 끼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가 될까 두려워 누가 어디를 가자고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힘겹게 따라갔다. 참여자 5는 그룹에서 힘 있는 자에게 기대면 그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에게 기대었다.

그룹에서 제외될까봐 사람들이 가는 대로 지치도록 다 따라갔어요. 회사 다닐 때 업무상 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 같이 먹을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이 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면서 언니들하고 점심 약속을 해서 6개월 동안 혼자 먹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참여자 2)

그룹에 속하려고 피곤한데도 과도하게 그룹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룹 안에 머물면서도 그룹 안에 끼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면서 불안하여 그룹에 속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해요.(참여자 3)

혼자가 될까봐 직장이나 여러 사람 모였을 때 힘 있는 자에게 기대게 돼요. 특히 직장이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 서로 끼리끼리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그들 틈에 못 들어 갈까봐 무척 불안해요.(참여자 5)

## (2) 자기주장을 못함

자기를 주장하다가 혹 상대가 마음이 상하여 자신을 떠날까봐 자기주장을 못한다. 그리고 상대의 뜻에 맞추려고 눈치를 많이 본다.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무엇을 할 때는 내 주장을 못하고 타인의 기분에 맞추게 돼요. 그 사람이 떠날까봐서요.(참여자 2)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그가 무엇을 요구하면 내 주장을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참여자 3)

어느 날 내 자신을 더 보게 되었어요. 그 동안 내가 힘들었던 게 내가 남한테 맞추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4)

내 뜻보다는 주변 상황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움직이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쓰게 돼요.(참여자 5)

## (3) 말실수 할까봐 대화가 편치 않음

참여자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은 대부분 여학생들 사이에서 말실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실수다. 대화하는 중에도 혹 자신이 말실수 하지는 않을까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자신이 말한 것이 듣는 이에게 오해가 되어 문제가 될까 싶어 지나치게 신경을 써 대화하는 게 편치 않다. 참여자 1은 말실수 하지 않으려고 칭찬 외에 절대 농담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정한 특정한 규칙이 되었다.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농담이나 안 좋은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친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들한테 농담이나 안 좋은 말을 절대 못해요. 인간관계 안에서 너무 일관된 어떤 규칙으로 굳혀 있는 게 있는데 칭찬 외에는 다른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굳혀진 나의 룰이에요. 누구한테든지 믿고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참여자 1)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어 대화할 때에도 감정을 못 느끼고 어떤 때는 해야 할 말도 못하고 그래요.(참여자 2)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잘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못

써서 오히려 대화에 잘 끼질 못해요.(참여자 4)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혹 말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워서 대화가 편치 않아요.(참여자 5)

#### (4)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함

중, 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주목받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참여자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어딜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마음이 편치 않다. 참여자 1은 왕따 대상이 안 되려고 극도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이 나서서 주도하는 일이 없고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한다. 참여자 3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외출을 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 참여자 5는 직장에서 사람들 의식하는 데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극도로 피로하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나서거나 어떤 일을 주도하지 않아요. 한 가지 굳혀진 생각은 ‘어디 가서든 뭔가 나서서 주도하거나 시선을 받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예요. 주목을 받다가 왕따가 되기 십상이니까요.(참여자 1)

사람들을 의식하다보니까 표정이 굳어지거나 감정이 경직되는 것을 느껴요. 행동도 부자연스럽고요.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자연스럽고 여전히 사람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참여자 2)

어딜 가도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눈치를 봐요. 그래도 지금은 엄청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버스와 지하철 탈 때도 사람들 의식을 엄청 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창밖에 어느 누구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사람이 차 안으로 달려와서 자신에게 욕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 그 때부터 사람들을 의식해야 하니까 무척 피곤해서 전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때도 있어요.(참여자 3)

#### 라.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의 의미단위로는 ‘진심을 표현하지 못함’, ‘자기 보호로 방어를 함’, ‘갈등관계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 단절함’이다.

## (1) 진심을 표현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이 뿌리 내려져 있다. 참여자 1에게 사람들은 마음의 발을 편히 뻗을 수 없는 대상이었다. 불신감으로 진심을 털어 놓고 친해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참여자 3, 4는 이미 학창시절에 자신의 진심이 깃밋혀짐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어한다.

그 일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누구한테든 편하게 마음의 발을 못 뻗고 살아요.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에 시간도 한참 걸려요.(참여자 1)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부터는 누구한테든 진심을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진심을 무시하고 깃밋을까봐 절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특히 좋아하는 이성에게는 차가울 정도로 더욱더 내 진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참여자 3)

중,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누구한테든 진심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참여자 4)

## (2) 자기보호로 방어를 함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많이 겪은 참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를 선택한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가혹한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수란 즉시 집단 따돌림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참여자 1은 실수하면 비난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이 될 거라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관계의 경계선을 긋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참여자 2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성교제에서도 버림받을까봐 먼저 관계를 단절한다. 참여자 3은 또 다시 거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

실수하면 당을 지어 자신을 비난하고 혼자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관계에서 경계선을 딱 쳐놓고 그 선을 아예

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아무리 오래 만나도 친밀함을 못 이루어요.(참여자 1)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거부감이 들어서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공격적이 되고 싸한 표정으로 대해요. 그리고 이성교제 하면서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먼저 가차 없이 차 버렸어요.(참여자 2)

내가 인사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인사 안 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 쪽에서 '나는 재 싫은데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먼저 인사하거나 말 걸지 않아요. 내가 인사했다가 거절당할까봐서요.(참여자 3)

### (3) 갈등관계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 단절함

참여자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갈등 관계가 발생되면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다. 이들은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갈등을 회피한다. 참여자 1과 4는 학창시절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토록 사과의 편지를 쓰고 애를 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경험으로 인해 현실에서도 관계의 갈등이 빚어지면 참여자 1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이나 대책을 하지 않는다.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소망 없음과 기대함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 3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뒤로 물러선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대책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피로우니까 억지로라도 모르겠다하고 내던져 버려요. 대책을 갖고 노력해 봐야 안. 먹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학교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애를 썼지만 나의 노력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늘 조용히 당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놓아 버려요.(참여자 1)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보니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망연자실해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뒤로 물러서요. 해결보다는 단절을 해요. 관계를 끊고 달아나

요. 인간관계에서 내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찌겠어요.  
(참여자 3)

아무리 내가 용서를 구하고 오해를 풀려고 해명을 해도 아이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소망이 없어요.(참여자 4)

#### 마. 자존감이 낮아짐

〈자존감이 낮아짐〉의 의미단위로는 ‘기가 죽음’, ‘자기 비하를 함’,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감’이다.

##### (1) 기가 죽음

참여자들은 중, 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기가 많이 죽었고 성격도 바뀌었다. 자신감을 잃어 새로운 인간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등학교 때 그 일을 만나기 전까지 \*\*\*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고 기세가 등등했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일을 통해서 기가 확 죽었어요.(참여자 1)

원래 내가 밝은 성격이었는데 중3 때 그런 일을 당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기가 죽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변화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모습이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직장도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무척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뭘 시키면 기가 죽어서 자신감도 없고 그랬어요.(참여자 2)

중학교 때 남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여자 아이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활발하고 밝았던 외향적인 내 성격이 말 없는 내향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 만날 때 자신감도 없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누가 말 시키면 괜히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어요.(참여자 3)

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서 밖에서도 다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가 되면서 기가 많이 죽었어요.(참여자 4)

집에서도 아빠 때문에 기가 죽은 데다 학교에서 놀림 받고 집단



따들림을 당하면서 기가 팍 죽었어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기가 죽어서 움츠려 들어 있거든요.(참여자 5)

### (2) 자기 비하를 함

참여자들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받고 따들림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자신을 비하했다. 참여자 1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을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랑받을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뿌리 내렸다. 참여자 3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이고, 남자들에게 매력 없는 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 참여자 4는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참여자 5는 자신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고 정죄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

참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나’여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참여자 1)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언제 부턴가 나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서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남자들에게 외모를 갖고 놀림을 당하면서 나는 남자들에게 매력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엄청난 욕을 들을 때 내가 마치 ‘쓰레기’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참여자 3)

그 일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보아도 안 좋은 부분들만 보면서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아 왔어요.(참여자 4)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 ‘내가 뭐가 잘못 되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를 낮게 보고 안 좋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3)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김

자신의 부족함으로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선택한 것은 가면을 쓰거나 자신을 포장하여 부족한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이처럼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과거와 같은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강렬한 몸부림이다.

학교 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인기 많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남자들의 눈을 보면 나를 비호감으로 볼 것 같고 또 눈을 통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차릴 것 같아서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들을 알아 차려서 중학교 때처럼 나를 무시하고 내가 또 놀림감과 비난거리가 될까 두려워서 애써서 강한 척을 해요.(참여자 3)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리쿵저러쿵 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때부터 솔직한 나를 안 보이고 숨기려고 해요.(참여자 4)

저는 백조예요. 백조가 호수위에 노니는 모습은 평안해 보이지만 물속에 있는 다리는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안 보이려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참여자 5)

#### (4)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감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호감이고 사랑스럽지 않다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들로 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선택한 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나 주위를 살펴 인기 많은 사람을 따라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밝은 표정도 지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연기를 하듯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다. 이런 삶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피곤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제는 사람들하고 안 좋은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어요. 밝게 연기를 한다고나 할까요? 말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참여자 3)

오랜 시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장된 삶을 살아왔어요.(참여자 4)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서 저녁에는 녹초가 될 때도 많아요. 내가 아닌 포장된 또 다른 내가 사람을 만나다보니까 친밀함도 못 느끼고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로워요. (참여자 5)

#### 바.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의 의미단위로는 ‘거절감을 많이 느낌’, ‘수치심을 느낌’, ‘외로움에 시달림’, ‘학창시절을 상실한 분노가 일어남’, ‘부모님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남’,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일어남’이다.

##### (1) 거절감을 많이 느낌

놀림을 당하고, 욕과 비난을 받으며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참여자들 정서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관계 안에서 늘 거절감과 수치심이 민감하게 느껴진다. 때때로 과거의 아픔이 건드려져 아팠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관계를 멀리하거나 단절했다. 참여자 3의 대인관계 안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원인을 찾아가 보면 늘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조금 관계가 소원해지면 저 스스로 거절감을 느껴서 다가가기보다 뒤로 물러서는 편이에요 (참여자 1)

전에는 거절감을 많이 느낀 편이었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단련되긴 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느끼는 편일 거예요.(참여자 2)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거절감이라는 느낌은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인간관계의 밑바닥에 가면 결국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참여자 3)

삶 가운데서 특별히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맺기가 힘들고 스스로 거절감을 느껴 인간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참여자 5)

##### (2) 수치심을 느낌

놀림을 받고 외면을 당했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 때 친구들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시각으로 현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 볼 거

라는 생각을 하며 수치심을 느낀다. 참여자 2는 학교 벤치에서 혼자 김밥과 빵을 먹다가 친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일반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을 상황임에도 창피스럽게 여겼다.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중학교 때 왕따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빵이나 김밥 사서 벤치에서 먹곤 했는데 아는 학생들이 “어, 너 거기서 뭐해. 점심 먹어?”하고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데 나는 마치 중학교 때 왕따 당해서 혼자 밥 먹을 때 내 모습처럼 수치스러웠어요.(참여자 2)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타기가 싫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똥똥하고 촌스러운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 때 저 자신이 수치감을 많이 느껴 그 공간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갔어요.(참여자 3)

초등학교 때 남자 아이가 저의 신체적 약점을 갖고 놀려서 그 때부터 저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워졌어요(참여자 5)

### (3) 외로움에 시달림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 보았던 참여자들에게는 혼자로서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잘 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의 고통은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 혼자로서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참여자 2는 혼자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다. 참여자 5는 현재 외로워 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 정서적 고통에 시달린다.

몇 년 전에 혼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용기를 내고 또 내서 힘들게 준비해서 갔는데 그 때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상황에서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나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을 텐데 저는 혼자라는 그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젠 저한테 혼자라는 그 외로움은 끔찍해요.(참여자 2)

외로워서 친구들을 만나 보지만 만나면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결국 혼자가 되어 계속 외로움에 시달리는 삶의 연속이지요.(참여자 3)

내가 뭐 때문에 힘들까 하고 생각해 보면 외로움이에요. 그냥 외로워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환경으로 볼 때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런지 그냥 외로워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감정은 학교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참여자 5)

#### (4) 학창시절을 상실한 분노가 일어남

참여자들 안에는 학창시절에 느꼈던 분노와는 또 다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 참여자 1은 그 당시 철없던 가해자들에 대해서 나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현재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상처로 남겨져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화가 났다. 참여자 5는 학창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고통의 기억밖에 남은 게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십대의 시절을 상실하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그 때는 그 아이나 나나 다 철이 없고 어려서 그랬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 때 그 일로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화가 나요.(참여자 1)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나한테 뭐라고 했던 아이들 중에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나요.(참여자 4)

다른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대한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고통스러웠던 기억 밖에 없고 그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시절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창 꽃을 피울 십 대의 학창시절을 잃어버리게 한 그들을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요.(참여자 5)

#### (5) 부모님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남

참여자들은 학창시절에는 어려서 깨닫지 못했다가 성인이 되면서 자신을 양육한 부모님을 재조명하기 시작한다. 물론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 더 많지만 자신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부모님의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책도 보고 상처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그 때 내가 왜 그렇게 당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재대

로 양육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분노가 일어났어요.(참여자 2)

나도 문제가 있었지만 엄마가 친구 관계 맺는 것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도 내고 반항하기도 했어요.(참여자 3)

부모님 원망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까 내가 힘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참여자 5)

#### (6)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일어남

참여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 그러나 참여자 2, 3, 5는 그 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 참여자 3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분노하며 격한 감정을 폭발했다.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했고 엄마는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셨다고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참여자 2)

왕따 당할 때에 매일 아침 죽을 것만 같아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나의 상황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도 않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분노예요. 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차가움과 무관심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도 나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까지도 이제 사람을 가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3)

주일이면 교회 가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학교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 주셨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응답을 즉각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하기는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나요.(참여자 5)

사. 과거의 아픔을 현실에서도 느낌

〈과거의 아픔을 현실에서도 느낌〉의 의미단위로는 ‘교복 입은 학생을 보면 두려움을 느낌’,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림’, ‘소외감을 민감하게 느낌’이다.

(1) 교복 입은 학생을 보면 두려움을 느낌

참여자들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상처로 남아 현실 속에서 불쑥 튀어 나왔다. 길을 가다가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학창시절에 또래들에게 무능력하게 당했던 과거가 생각나면서 고통이 느껴왔다. 지금은 자신이 성인이 되어 중, 고등학생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자신이 그들 보다 작아 보여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남학생한테 당했던 일은 정말로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였던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남학생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요. 중학교 때의 상처로 지금도 교복 입은 남자아이들 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섭게 느껴져요. 지금 내 나이를 보면 그 아이들보다 내가 훨씬 많은 데도 그들을 보는 순간 나는 그 때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복 입은 학생들 보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특히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아이들 보면 보기 싫었어요. 그 때 생각이 나서요. 괜히 내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참여자 5)

(2)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림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던 참여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비난의 말들이 귀에 들리고 그들의 표정까지 눈에 그려졌다. 참여자 1은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머리로만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참여자 3과 4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 있으면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여 그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 그들이 당을 지어서 또 나를...’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내가 실수한 것은 분명하니까 나의 그 실수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고 저러서 그렇고 하는 그들이 나누는 대사가 내 귀에 들리고 표정이 보여요. 그럴 때엔 정말 고통에 시달려요. 정말 가혹해요.(참여자 1)

결정적으로 내 생각이 깨지게 된 계기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내가 정말 부정적인 자(自)해석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빼놓고 몇몇이 모여 있으면 다 내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괜히 마음 상해서 그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가 실제 들릴 정도로 심각했어요.(참여자 3)

정말 이걸 나를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나에게 대해서 뒷담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머리로 '아닐 거야' 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고 계속 불편하고 신경이 쓰여요.(참여자 5)

### (3) 소외감을 민감하게 느낌

참여자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참여자 1은 자신을 제외한 '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외감이 느껴져 강렬한 분노가 폭발했다. 참여자 2, 4는 대화중에도 자신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화제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몇 년 전에 중학교 친구들 관계 안에서 얘기하다가 '우리'라는 단어에 미친 듯이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때에 친구들도 내 모습에 놀랐는데 그 때만 해도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랬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왕따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나를 제외한 '우리'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화가 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활화산처럼 폭발했어요.(참여자 1)

1:1로 만날 때랑 둘 이상 같이 만날 때랑 내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1:1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만 집중하니까 괜찮은데 셋 이상이 만날 때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지 않으면 소외감 느끼고 기분 나빠서 내 표정이 달라져요.(참여자 2)

그룹에 들어가면 항상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내가 스스로 느



끼고 있을 뿐이에요. 어쨌거나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참여자 3)

여럿이 대화할 때 대화에 끼질 못하는 자신을 느껴요. 그 때 소외감을 느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어느 때는 나한테 집중하게 하려고 대화의 화제를 끊고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내 얘기를 계속해요.(참여자 4)

#### 아. 현실을 도피함

〈현실을 도피함〉의 의미단위로는 ‘죽고 싶음’,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폭식으로 해소함’, ‘대중매체로 피함’, ‘꿈과 공상의 세계로 피함’이다.

##### (1) 죽고 싶음

참여자 2와 3은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극복하기보다 쉽게 포기하게 된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이다. 죽는 게 현재의 고통보다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다. 자살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그 때로부터 힘들어지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쉽게 하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관계에서 힘이 들 때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힘들 때는 자살을 쉽게 생각해 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차라리 그나마 이렇게 좋을 때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2)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아,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그저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아! 죽고 싶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 죽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겪어왔어요.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생각해요. ‘그냥 죽자’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면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3)

##### (2)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폭식으로 해소함.

참여자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거절감이나 소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취한 행동은 폭식이다. 참여자 3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을 음식으로 채우려 했다. 음식은 이들에게 또 다른 친구와도 같다. 때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 한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고자 미친 듯이 폭식을 한다. 참여자 5는 외로워서 먹고 또 먹고 토할 때까지 먹고, 토하고 나서 또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으로 남아 있었다. 외로움으로 텅 빈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면 해결될 거라 무의식적으로 폭식을 했지만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 폭식은 외모에 예민한 여성에게 비만을 초래했고 비만은 또 다시 이들을 우울하게 하는 악순환이 되었다.

대학교 때 많이 폭식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외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2)

내가 왜 그렇게 먹는지 이유도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물처럼 먹는 것이 당기니까 먹었던 거고,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마다 반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았고, 항상 머릿속에는 먹을 것 생각만 했었어요. 특히 모임에 나갔을 때, 관계를 잘 못하니까 그 자리 자체가 나에겐 엄청난 거절감과 스트레스인지라 특히 더 먹을 것에 매달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애정을 사람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지출의 대부분이 먹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 사 먹었어요. 먹고 또 먹고 어느 때는 토할 때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배가 안 채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참여자 5)

### (3) 대중매체로 피함

외로운 참여자들에게 TV에 나오는 인물들은 간접적인 만남이다. TV화면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참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때로 웃어 주지만 참여자들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TV를 친구로 삼게 되고 TV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 3에게 TV는 자신의 삶의 전부다. TV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한 외롭지 않다. 그래서 TV가 없으면 불안하다. TV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DMB가 없던 때

라 밖에 나와서도 MP3를 통해 음악을 들었다. 음악과 함께 했고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달랬다.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이들은 계속적으로 대중매체와 함께 하고 있었다. 참여자 2도 혼자가 되었을 때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에 심취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엔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참여자 5도 자신의 기준에는 TV를 얼마 안 보는 것 같다고 했지만 보통사람보다 TV를 많이 시청했고 지금은 스마트 폰을 친구 삼아 지낸다.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한 게 대학교 때부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질리고 싫어서 드라마와 영화에 빠졌던 거예요.(참여자 2)

사실 그 동안은 내 자신도 싫고, 학교 자체도 싫고, 그래서 대중매체에 푸욱 빠져 살았어요. TV는 나에게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 같은 존재였어요. 외로운 마음을 TV드라마나 영화로 채웠어요. TV를 보는 동안은 현재를 잊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TV는 나의 위안이었고, 나의 친구였어요. 나의 삶의 전부였어요. 항상 TV를 끼고 살았어요.(참여자 3)

엄마는 나보고 TV를 많이 본다고 매일 뭐라고 하는데 그냥 엄마의 잔소리인가보다 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TV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왜 내가 그렇게 TV를 보나 했더니 외로워서 보고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 사람 의식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들하고 친밀감도 못 이루니까 마음이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TV 앞에 앉는 거예요.(참여자 5)

#### (4) 꿈과 공상의 세계로 피함

계속적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가 건드려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참여자들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무의식 세계로 피하는 수면과 자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공상의 세계다. 공상은 흥미진진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혼자 하는 것이다. 자신의 최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이다. 공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생활의 승리자로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패배를 공상 속에서 보상받는다. 그러므로 참여자 2는 공상하는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참여자 3은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상상 속에서라도 복수하는 것을 그리다가 지금까지 공상하는 습관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들은 현실이 힘들어지면 공상의 세계 뿐 아니라 잠의 세계로 도망갔다. 참여자 4는 대화하는 중에도 대화에 동참이 안 되어 힘들어질 때면 공상을 하면서 현실로부터 떠났다.

현실이 힘들고 막막할 때 공상을 했어요. 말 그대로 공상은 공상이잖아요.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공상을 하면서 공상에 쏟아 부은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맛보는 것뿐인데 한 번 공상하기 시작하면 한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참여자 2)

제가 공상을 하게 된 것은 학교생활이 힘들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나를 괴롭힌 남학생들을 상상 속에서라도 복수하는 것을 그려보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공상하는 습관이 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지겹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우울할 때는 현실도피 수단으로 잠을 잤어요.(참여자 3)

몸이 약한 것도 있지만 현실이 힘들면 잠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잤다 하면 계속 자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뜨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도 현실이 유쾌하지 않으니까 다시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는 거지요. 대화에 끼질 못하고 때로는 대화가 지루하고 그럴 때엔 공상의 나라를 띄고 상상의 나라로 떠나요.(참여자 4)

자.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의 의미단위로는 ‘버림받을까봐 극도로 불안함’, ‘사랑의 갈증을 많이 느낌’,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함’, ‘내 자녀도 학교폭력을 당할까 두려움’이다.

(1) 버림받을까봐 극도로 불안함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버림 받은 아픔이 있는 참여자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참여자 2는 이성 교제 안에서 남자 친구로부터 버려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심한 정서적 고통과 육체적 이상을 느낄 만큼 강도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남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참여자 3은 남자 친구 사귀는 것이 두렵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

게 되면서부터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지요. 이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좋은 때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엄습할 때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감에 한여름인데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참여자 2)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아예 못할 것 같아서요. 내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남자들이 나를 전혀 여자로 보지 않겠지. 난 똥똥하고 못생겼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 친구가 막상 생기면 그 남자가 떠날까봐 두려워요. 남자 친구 사귀는 게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솔직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지요.(참여자 3)

## (2) 사랑의 갈증을 많이 느낌

인간은 태어나서 최초로 부모나 그 외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학교에 가면 또래들과 선생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청소년 시절엔 부모보다도 또래와 친구관계를 더 갈망하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사랑을 한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정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랑의 갈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없다. 참여자 2는 채우고 채워도 해소되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

사귀던 남자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채우고 또 채워 주어도 부족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선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참여자 2)

돌아보면 그 때에 친구가 왜 떠났는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생기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질려서 떠났을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사랑이 목마르니까 달라붙었던 거예요.(참여자 3)

## (3)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함

참여자들은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도

사랑받을 자신이 없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은 분명한데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수고스러움이에요. 남자 친구에게도 나로서 사랑받는다고보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사랑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달파요.(참여자 1)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만한지 모르겠거든요. '왜 나를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자들에게 나는 매력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받지 못할 거 같은데요.(참여자 3)

어릴 때부터 예쁜 사람 명단에 제 친구는 꼭 들어갔는데 저는 빠졌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싫어했던 이유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남자 친구가 없어요.(참여자 4)

친구들이 하나, 둘 다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은 있는데 막상 나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겠지요. 그 남자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요.(참여자 5)

#### (4) 내 자녀도 학교폭력을 당할까 두려움

참여자들은 남자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자녀도 자신과 같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참여자 3, 5는 20대 때에는 그것이 두려워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했다. 참여자 1은 태어날 자신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나한테 오직 공부,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내 자식 낳으면 공부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하도록 가르칠 거예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공부보다도 인간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태어날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성품으로 자라서 학교에서 아무 일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참여자 1)

결혼에 대한 두려움 안에는 자식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

우셨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나처럼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참여자 3)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길러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우리 부모처럼 자녀를 길러서 내 자녀도 나처럼 똑같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결혼 안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면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이 내 자식한테 대물림 되어서 그런 삶을 살까봐 두려워요.(참여자 5)

## 5. 성찰함

〈성찰함〉의 하위구성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이다.

책장을 넘기듯이 고통스러웠던 학창시절은 과거의 한 페이지로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학창시절에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고 여전히 아팠다. 그 고통을 외면하고자 몸부림치며 최후엔 죽음까지도 불사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지난날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돌아보기에 이른다.

### 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의 의미단위로는 ‘잊고 싶음’, ‘후회스러움’, ‘반복해서 따돌림을 당함’,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음’이다.

#### (1) 잊고 싶음

참여자 1에게 아픔을 겪었던 학창시절은 자신의 인생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딴섬 같았다. 외딴섬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스스로도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자 3은 흑생각이라도 날까 싶어 그 때의 일들을 퐁퐁 묶어 무의식 세계에 가두었다. 참여자 5는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고 싶어 지금도 기억나는 일들이 거의 없다.

아주 오랫동안 학교시절에 당했던 그 일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그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우울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잊고 싶었어요(참여자 2)

그 때에도 고통을 잊으려고 공상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꽁꽁 묶어서 저 밑바닥에 가둬 놓는 데만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참여자 3)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 고등학교 때라고 답하면서 그 때가 제일 즐거웠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나에겐 중학교 시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추억이나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기억해봤자 피로우니까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 놓는 데에도 상당한 고통스러웠고 무척 두렵고 힘들었어요.(참여자 5)

## (2) 후회스러움

참여자 1은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의 편지를 썼던 일이 후회스러웠다. 그 당시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너무나 비굴해 보여 후회가 된다. 참여자 5는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외톨이가 되었을 때 바보처럼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것이 후회스럽다.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 될 것을 자신을 외면했던 그들만 바라봤던 자신이 바보 같이 느껴진다.

그 당시엔 애들한테 내가 편지 써 가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편지를 그 아이 부모도 읽어 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가 그 편지를 볼 때에 내 편지글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사과했던 자신이 비굴하게 느껴져요.(참여자 1)

후회스럽지요.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후회스럽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그때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 아직도 애들하고 잘 지낼 자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시절을 잘못 보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후회스러워요.(참여자 3)



왕따 당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바보처럼 그 무리의 뒤를 혼자 따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들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그 중의 하나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나는 그 아이 하고 노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요.(참여자 5)

### (3) 반복해서 따돌림을 당함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집단 따돌림을 반복해서 당했다는 점이다. 참여자 3, 4, 5는 최초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시기가 초등학교 때다. 집단 따돌림을 일찍 경험한 참여자 3, 4, 5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두 번 이상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다. 그리고 대학생할도 힘들게 보냈다.

고3 때도 중2 때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왕따를 당했어요.(참여자 2)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남자 아이들한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 아이들이 뒷담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거의 혼자 많이 지냈어요.(참여자 3)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비슷한 상황을 계속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왕따를 당했던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참여자 4)

중2 때도 왕따가 되었고, 고2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숫자 2를 싫어해요. 중2, 고2 때 그런 일을 당해서요.(참여자 5)

### (4)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음

그 때의 일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갖고 있다. 특별히 인생의 소중한 청소년 시절을 잃어 버렸다는 상실감의 아픔만큼 그에 대응하는 보상 받기를 바랐다. 참여자 3은 성경의 인물 요셉처럼 가해자들 앞에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했다. 참여자 5는 황금 같은 청소년 시절을 가해자들로 하여금 망쳤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때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보상해 주길 소망했다.

그때의 나의 소중한 시절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수많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바쳤던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나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싶어요.(참여자 3)

인생에 황금 같은 그 시절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청소년 시절을 보상받고 싶어요. 학창시절은 내 기억에 초등 1학년에서 중 1, 그리고 고1, 고3만 있고 중2, 3은 기억에 없어요. 중2 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중3 때에도 친구들이나 학교생활은 모두 망쳤고, 악몽 같은 기억밖엔 없어요. 그 시절을 누가 돌려 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보상 받아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5)

#### 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의 의미단위로는 ‘대화가 서투름’,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함’,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음’이다.

##### (1) 대화가 서투름

참여자 1은 4남매가 같이 자랐지만 일찍이 공부의 맛을 알아 공부만 하고 동생들과도 어울리지 않아 대화할 줄을 몰랐다. 대화가 서투러 어떤 말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지, 화나게 하는지 분별이 안 되었다. 친해지려고 했던 말이 도리어 상대를 화나게 했다. 참여자 3은 대화가 서투러 친구 관계가 오래 가지 못했다. 참여자 4는 가정에서 대화 훈련이 잘 안 되어 또래들과 대화하는 것이 서투러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제가 말실수를 해서 발생한 일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부끄럽지만 그 때 내 생각엔 그 말을 하면 그 애하고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가 서투렀었는지 알겠지요. 동생들하고 같이 지냈지만 공부만 했지 대화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화할 줄을 몰랐어요.(참여자 1)

우리 가족은 특별히 대화를 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대화훈련이 안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서투러서 친구를 오래 못 사귀고 문제가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3)

대화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나는.....' 이러면서 자꾸 대화의 주제를 바꿔 가면서 내 얘기만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애들이 '너는 매일 너희 집 얘기만 한다.'면서 왕따 시켰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참여자 4)

## (2)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친구들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한다. 참여자 1은 만이로서 동생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인 관계만 할 줄 알아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감각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필요를 몰라주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 2도 친구의 고민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참여자 4도 친구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지 못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집에 오면 동생들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다든지 친구로 초대할 일이 없고, 동생들이다 보니까 항상 내 맘대로 했지 동생들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왕따 대상이었겠다 싶은데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참여자 1)

한 번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그 때 나는 아빠하고 산책해야 한다고 하고 안 나갔어요. 그 이후에 친구가 나하고 멀어졌어요.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고민이 있어서 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나는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그 아이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참 못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요.(참여자 2)

말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 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얘기는 듣는 듯 마는 듯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을 잘 기억 못해요. 같이 있어도 내가 말한 것, 내가 느낀 것, 그런 것만 기억하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친구가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을 기억 못해서 물어보면 친구들이 많이 섭섭해 하고 그러더라고요.(참여자 4)

## (3)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음

참여자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참여자 1은 공부에 우선권을 두고 친구의 필요성을 못 느껴 친구를 아예 사귀려 하지 않았고, 참여자 2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참여자 4는 만화를 좋아해서 혼자 그림을 그리느라 친구 사귀기를 소홀히 하였다.

고등학교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사귀려 하지 않았던 것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학원에서 만난 친구 7명이 있었는데 다 괜찮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도 친구들은 그 정도면 족하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오직 대학 진학의 목표를 향해 공부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일체 관심도 없었고 사귀려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반 여자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한참 동안 나만 모르고 지낼 정도였으니까요.(참여자 1)

중학교 때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왕따 시켰던 아이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가서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그 아이랑 실내와 같아 신는 신발장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 아이는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나는 그 아이한테 별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내 성격이 원래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밝게 인사를 먼저 했는데 내가 반응을 별로 안 보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때 거절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기분 나빠서 나하고 말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내 험담을 하고 왕따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치여서 사람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참여자 2)

내가 만화를 좋아하다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 쉬는 시간에도 그림만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멀 사귀게 되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멀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려온 얘기인데 내가 쉬는 시간에 그림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아이들은 내가 왕따 당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왕따를 당했지만요.(참여자 4)

## 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의 의미단위로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음', '부정적 태

시지를 많이 들음'이다.

### (1) 사랑을 많이 못 받음

참여자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양육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참여자 2는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한창 당하고 있을 때에 다른 아이들이 한 친구를 자신과 똑같이 집단 따돌림 시키려는 상황을 목격한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단 따돌림 시키는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웃으면서 다가가 결국 집단 따돌림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있는 에너지가 자신한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에너지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을 성인이 되어 알았다. 참여자 5도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무서운 아빠로부터 눌러 있어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아이들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왕따를 당하는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따는 아무나 당하는 것도 아니고 왕따 당할 만하는 아이들이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왕따 당할 때 다른 한 친구도 나와 같이 여러 아이들이 그 아이 욕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가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 욕하던 아이들도 그냥 넘어가면서 그 아이하고 잘 지내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느꼈지만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거예요. 이미 떨어진 관계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가정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려는 과정에서 말려들지 않고 빠져 나와요.(참여자 2)

왕따를 당하면서도 아이들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왕따 시킨 아이들한테 '친구할 사람이 너희들 밖에 없느냐' 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사귀었으면 됐는데 바보처럼 왜 그들 뒤만 졸졸 따라 다녔는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니다가 그들 중의 누구 하나 왕따 당하면 그 아이하고 친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덩치만 컸지 기가 없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빠가 무섭고 집에서부터 사랑을 못 받아 밖에 나가서도 기를 못 피고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5)

## (2) 부정적 메시지를 많이 들음

한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 주는 말은 그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참여자 1은 아빠가 공부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 친구 관계를 무시하고 공부에만 치중하다가 마침내 반 전체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했다. 참여자 3과 5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교육하기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자신감을 잃고 친구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아빠가 인간관계를 폭 넓게 만나는 것을 심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을 나한테 심어 주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폭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제1의 가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공부 잘하여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였거든요.(참여자 1)

우리 엄마가 친구들하고 그냥 편하게 잘 지내라고 했으면 나도 편하게 지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한테 친구관계를 얘기하면 항상 '네가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안 좋게 생각해'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해 주니까 관계 하면서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하니 부자연스러웠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래서 싫어졌나보다 스스로 단정 짓고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지금도 엄마랑 자주 부딪히지만 엄마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걸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커서 보니까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못 나갔던 같아요(참여자 5)

## 6.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의 하위구성으로는 '자각함', '도전함', '자신을 사랑하려 함', '관계가 회복되어 감'이다.

## 가. 자각함

〈자각함〉의 의미단위로는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됨',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음'이다.

(1)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됨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오던 참여자들은 때로 고통을 피하려는 데에 주력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살면서 상처가 그렇게 나의 삶에 영향을 줄줄은 몰랐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과거의 상처들이 저를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요.(참여자 1)

졸업 후에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부딪히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아요.(참여자 2)

정말 오랜 세월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캄캄한 터널을 지나듯한 느낌이었어요. 지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더 이상 이 암울한 고통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아주 작은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참여자 3)

먹는 것에 돈도 많이 쓰고 물질 관리도 안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젠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 때서야 내가 바뀌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지요.(참여자 5)

(2)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음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 있는 상처로 고통하고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함이 싹텄다.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부러워졌다. 이제 자신도 예쁘게 꾸며 남자 친구도 사귀고 행복해지고 싶어졌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 대학 잘 나온 사람보다도 대학 안 나오고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나도 저렇게 될 날이 오겠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참여자 1)

대학교 때나 졸업 후에도 처음엔 뒤로 물러서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움츠려 들어서 살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졌어요. 그 당시에 자신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갈망함이 꿈틀했어요. 여행도 하고 싶었고,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결국 몇 년 전에 여행까지 하고 왔지만요(참여자 2)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는 여자들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마음이 건강해져서 남자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밝게 웃고 사람들 하고 얘기도 잘 하는 그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회복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참여자 3)

어릴 때부터 사람들한테 비교 당해서 자존감이 낮아져 행복의 꿈을 많이 잃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남자 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싶었어요.(참여자 4)

## 나. 도전함

〈도전함〉의 의미단위로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 봄’, ‘회복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음’, ‘은 힘을 다해 극복해 나감’,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노력함’이다.

### (1) 용기를 내어 도전해 봄

참여자 3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고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인사하기 전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위밍업이 필요했다. 참여자 2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마다 습관처럼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려 하는 자신과 싸웠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용기를 내고 또 내면서 도전해 나갔다.

그 동안 정말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직장에 들어가는 일도 엄청난 용기를 내서 들어갔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라든지, 업무 보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면서 용기를 내고 또 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저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계속 용기를 내고 있지만요.(참여자 2)

인간관계에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사를 한다든지, 먼저 말을 건다든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다든지, 사람들 앞에 선다든지 모든 면에서 용기를 갖고 인간관계를 가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일반적인 일일 테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용기가 필요하고 위명업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직까지 두렵고 떨리고 좌절할 때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중이에요.(참여자 3)

전에는 내가 잘못된 실수가 와전이 되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믿음이 가는 사람 같아서 용기를 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서 진심으로 사과를 받았어요.(참여자 4)

## (2) 회복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음

참여자들 대부분은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다가 회복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상처에 관련된 책을 관심 있게 보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사를 찾는다. 처음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를 받았지만 나중엔 스스로 찾아가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를 통해 상담하는 분을 소개 받았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아니까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지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지금 현실에서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몇 년간 그 분과 함께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1)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상처에 대한 책도 읽고 상담하는 목사님도 찾아 가고 그랬어요.(참여자 2)

어떤 교회에서 그룹으로 치유공부를 한다고 엄마가 가라고 강요를 해서 그 때는 등 떠밀려서 참석하게 되었지요. 근데 나중에는 제 스스로 찾아 갔어요. 그 계기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요. 그 때에 정말 저 자신도 변화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참여자 3)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었는데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엄청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때에 엄마가 보시기에 문제가 있어 보였는지 아시는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때만 해도 저 자신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몇 번 만나고 안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정말 제 문제를 스스로 알게 되면서 그 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참여자 5)

### (3) 온 힘을 다해 극복해 나감

변화되고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함을 갖고 상담사를 찾은 참여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전에는 고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회피를 하고 상처에서 비롯되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았지만 이제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며 극복해 나갔다.

관계 안에서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쏟는 노력은 정말 지치도록 해요. 나중에는 지쳐서 다 놓아버리기까지 하지만요. 하나님한테도 매달려가면서 온힘을 다해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되겠지요.(참여자 1)

지금 뒤를 돌아보면 사실 어떻게 내가 그 긴 터널을 통과해 왔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저 그때그때 헤쳐 나가고 그 시기를 견뎌나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온힘을 다해 싸워 왔어요. 아직도 사람들 관계에서 피하지 않고 나한테 먼저 말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호감이 아니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감과 싸우면서 이겨내고 있지만요.(참여자 3)

이대로 살다간 안 되겠다 언젠가는 이것을 뛰어 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이겨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참여자 5)

### (4)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노력함

집단 따돌림 경험으로 형성된 거절감과 수치심을 뛰어 넘어 자신의 연약함을 나눈다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이다. 참여자 4는 용기를 내어 마치 속옷을 비춰 보이듯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을 때에 다행히 상대방에게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었다. 참여자 3, 5도 모험을 하며 조

금씩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다.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한테는 엄청난 모험이예요. 그러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높았거든요. 거절감의 벽, 수치심의 벽, 두려움과 공포의 벽을 뛰어 넘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회복되어가면서 내 안에 힘이 생겨 사람에게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아주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계속 노력해야 되지만요.(참여자 3)

전엔 누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 보면 ‘괜찮지 않다’고 하면서 내 고민을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해해 주지 않고 험담만 늘어갈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를 숨기려고 ‘괜찮다’는 말을 주문을 외우듯이 많이 하고 살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괜찮냐?’고 물어 보면 내 속에 있는 고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 했을 때에 그 쪽에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따라 이야기할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4)

나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었어요. 나의 가장 밑바닥을 발견하면서 그 때 숨겨 두었고 억압했던 자신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일 이후부터는 나의 약함을 조금씩 더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참여자 5)

#### 다. 자신을 사랑하려 함

〈자신을 사랑하려 함〉의 의미단위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임’, ‘자신에게서 장점을 찾으려 노력함’, ‘자신을 알아가면서 삶의 의욕이 생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김’, ‘자신을 사랑하고 꾸밈’, ‘비전과 꿈을 찾아감’이다.

##### (1)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임

사람은 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더 크게 부각되어진다.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과 강점은 언제나 약점에 묻혀 갔다. 참여자 3은 어느 날 자신이 아무리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 이후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참여자 4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으므로 연약한 자신을 끌어안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경험

한다.

전에는 저의 부족함이나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가끔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지만요.(참여자 2)

그 동안 저는 나의 부정적인 것에 묶여서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살아 왔어요. 그런데 이젠 부정적인 면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고요. 어느 날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나이고, 그런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참여자 3)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참여자 4)

## (2) 자신에게서 장점을 찾으려 노력함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받은 참여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 되어 자신을 단점 투성이로 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한다. 참여자 4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외모나 스펙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전에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열등감을 많이 느꼈는데 회사 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있는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참여자 2)

예전엔 나 자신을 단점 투성이로만 봤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장점 0퍼센트, 단점 300퍼센트 정도라고나 할까요? 나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시기 시작하면서 내 장점들이 더 보였어요.(참여자 3)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보고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진짜 나도 괜찮은 애였구나. 중,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않지만, 단순히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참여자4)

### (3) 자신을 알아가면서 삶의 의욕이 생김

청소년 시절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그 때에 참여자들은 학교 폭력 피해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상실했다.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 간다. 마침내 어렵듯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암울했던 미래에 한 줄기 빛을 보듯 소망을 품게 되고, 종종 삶을 포기하고 싶어졌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씩 대면하면서 이제야 아주 조금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면서 내 삶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암울했던 나의 미래에 한 가닥 빛줄기라 할까요. 소망이 보여서 죽고 싶어졌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참여자 2)

현실로 돌아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데에 힘이 들고 정말 많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나한테는 대단한 삶의 의지라고 봐요. 내가 무얼 좋아하고,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 내가 누구인지 figure out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많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나 자신을 아는 정도가 한 5퍼센트? 정도라 할까요? 그런데 이 5퍼센트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전에는 특하면 죽고 싶다고 했는데 이젠 살고 싶어졌어요. (참여자 3)

### (4)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자 2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신에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참여자 3은 'I am valuable' 라는 말로 회복하기 시작한다. 워낙 자신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고 여겨 왔기에 'I am valuable'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힘을 발휘하면서 삶에 놀라운 엔진

이 되었다. 참여자 5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겨 외모를 명품으로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명품을 입는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서 내 삶도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이 큰 데서 오는 것만이 아니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참여자 2)

'I am valuable' 이 말은 내가 회복 하게 되는 출발이 되었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뚱고 싫었을 때, 울고 싶을 때 어떤 분이 나에게 해준 말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할 때에 사실 처음 한 달은 나 스스로 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만 병긱병긱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면서 그 생각이 내 삶의 엔진이 되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어요.(참여자 3)

전에는 자존감이 낮다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외모로 초라한 나를 커버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곤 했어요. 그런데 치유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 가면서 깨달은 것은 '명품을 입었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때부터는 겉치장보다도 내면의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데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참여자 5)

#### (5) 자신을 사랑하고 꾸밈

참여자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김과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고 꾸미기 시작한다. 참여자 3은 예쁜 옷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삶의 놀라운 turning point를 맞이한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연출해 나갔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실천했다.

자신이 얼굴 예쁘다는 것은 전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가 요즘에는 몸도 날씬해져서 어딜 가도 남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니까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꾸미고 있어요. 해외여행 가서 비싼 구두도 샀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살려고요. 그러다보니까 우울함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참여자 2)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삶이 바빠졌어요.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도 하고 싶어져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스케줄 짜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것도 절제가 되어서 어느 선에서 살도 더 이상 안 찌게 몸 관리도 하고 자신을 꾸미며 살고 있어요. 삶 전체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가고 관리가 되어가요. 이렇게 내 인생을 꾸며 가는 게 행복해요.(참여자 3)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는 항상 예쁘다고 칭찬해 주고, 교회 남자들도 매력적인 순위에서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는 항상 없는 상황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않지만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에는 나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나를 알아봐주고 내 매력을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서 내 매력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더 가꾸고 있어요.(참여자 4)

#### (6) 비전과 꿈을 찾아감

청소년기는 꿈을 꾸는 시절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꿈의 날개에 상처를 입었다. 자신감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 꺼져 갔다. 참여자 3에게 청소년 시절과 회복되기 전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의 암흑기였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자신은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비탄하면서 젊은 청춘을 보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날개를 치료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날기를 도전한다. 자신에게서 발견된 한 두 가지 장점은 마치 사막 한 가운데에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눈에 발견된 오아시스와 같았다. 자신에게 발견된 장점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생명의 불을 발견함 같이 꺼져 가는 영혼에 한 줄기 생명의 불빛이었다. 그 장점은 꿈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도 재미있어졌다.

아주 어렸을 때는 ‘간호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등의 꿈이 있었지만 중,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당하면서 꿈도 잃고 문제 속에 빠져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꿈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서히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부터 나의 미래가 보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이 조금씩 발견이 되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꿈을 찾아가고 있어요. 내 꿈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싶어졌고 공부의 맛을 느끼게 돼요.(참여자 3)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고 힘이 생긴데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꿈을 위해서 공부를 마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대견한 것 같아요.(참여자 5)

#### 라. 관계가 회복되어감

〈관계가 회복되어감〉의 의미단위로는 ‘가해자를 용서함’, ‘신뢰가 형성되어 감’, ‘이해의 폭이 넓어짐’, ‘타인을 배려하고 살피게 됨’, ‘사랑이 느껴짐’, ‘대화가 편해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인간관계가 재미있어짐’, ‘기대함’이다.

##### (1) 가해자를 용서함

학교폭력을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에 고통을 주었던 사실만으로도 용서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학교폭력 피해가 현재까지 자신의 인격과 삶 전반부에 상처로 남아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분노하게 했다. 참가자 2는 졸업 후에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만났다. 학교 때 자신한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 그 때 느낀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참여자 3은 가장 오랜 시간 강도 높게 괴롭혔던 남학생을 용서하기란 여간 쉽지 않았다. 괴롭힘을 당했던 그 때 일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상처였기에 참았던 분노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느 때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여 엄청난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증오심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맘에도 없는 용서기도를 했다. 그토록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던 중에 어느 날 가해학생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서서히 용서가 되어졌다.

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그 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늦게 물어봤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뒤부터는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려고 했어요.(참여자 2)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남학생 아이는 그 때 이후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용서하기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분노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몇 번이나 엄청난 눈물을 펄펄 쏟아낸 후에 증오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맘에도 없는 용서한다는 기도를 했었어요. 일단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고 말로라도 용서를 하니깐 나중에는 그들을 진짜로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참여자 3)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그래도 용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요.(참여자 4)

어떤 경우는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가 되는 아이도 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참여자 5)

## (2) 신뢰가 형성되어 감

친구들로부터 배신감을 받았던 참여자들이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쩌다 믿음을 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참여자 4는 상대의 실수를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이 왔지만 용기를 내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뢰감이 싹텄다. 그 때부터 관계에 자신감을 얻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차츰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2)

거절감 만큼 불신감도 내가 넘어야 할 벽이에요. 사람 만날 때 거절감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힘든데 그 벽을 뛰어 넘어 새로운 관계를 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참여자 3)

전에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부담스러웠고 여러 의미로 해석하고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해요. 아직도 내 안의 불신과 싸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가려가며 신뢰를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불신했던 마음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느껴져요. 중학교 때에는 진심을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험담이 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요즘에는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 할 때 받아주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참여자 4)

### (3) 이해의 폭이 넓어짐

사랑에는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참여자들은 회복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참여자 3은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성경말씀을 통해 전에는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했던 마음에서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갔다.

나도 이해를 못했고 타인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구절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왜 내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사실 나를 굉장히 겸손하게 해주었어요.(참여자 3)

이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다른 성향의 사람하고는 ‘아, 저 사람은 아니다’하고 힘들어 했는데 이젠 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다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편해졌어요.(참여자 4)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요.(참여자 5)

### (4) 타인을 배려하고 살피게 됨

참여자 2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만 힘든 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타인에게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참여자 3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힘듦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회복되어가면서 타인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타인을 배려하고 살피며 타인의 필요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

요(참여자2)

내가 힘들었을 때는 내 문제만 보여서 다른 사람의 힘든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든 것도 보이고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겨요.(참여자 3)

다른 사람들이 요즘도 상처주고 그러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해요.(참여자 4)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요.(참여자 5)

#### (5) 사랑이 느껴짐

참여자 4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왜곡된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면서 다른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물론 그 사랑을 금방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자신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되어져 갔다. 자신은 사랑 받을만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해졌다.

전에는 누구를 사랑할 줄도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느껴지면서 사랑도 주게 되어요.(참여자 3)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 주는 것도 좋게 생각을 안 해서 사랑을 못 느껴왔어요. 그런데 올해 생일에는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모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돼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언니들이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행복해요.(참여자 4)

#### (6) 대화가 편해짐

참여자 3은 그 동안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다. 게다가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 대화 자체를 꺼려했고 피했다. 그러나 공감기술을 배워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줄 때에 상대가 자신의 공감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놀란다.

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참여자 4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도 잘 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이 회복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대화하는 것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저녁마다 사람들과 약속을 해요.(참여자 2)

내가 원래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고 대화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데요. 그런데 전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그랬는데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한 가지만 했는데도 대화하는데 무척 자신이 생기고 마음도 편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공감해 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행복했어요.(참여자 3)

학교 졸업하고 나서 누구랑 대화할 때는 편하고 누구하고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대화도 편해졌어요.(참여자 4)

#### (7)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짐

학창시절에 비난을 많이 받은 참여자들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어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얼어붙었던 정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대인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전에는 정말 사람들 의식하느라 내 행동과 말이 무척 부자연스러웠고 경직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무척 편해졌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무시할 때도 많아요.(참여자 2)

아직도 눈 마주치는 게 무섭고 사람들 신경을 쓰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걷어내고 있어요. 옷 입는 것까지 사람들 신경 썼는데 지금은 제법 많이 자유로워졌고 표정과 행동이나 말투도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직까지 process중이니까 내 스스로 평가한다면 한 40프로 정도는 나아졌다고 할까요?(참여자 3)

## (8) 인간관계가 재미있어짐

새로운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존감도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그러자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재미있다.

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쭈뼛쭈뼛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이젠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관계 해나가는 게 재미있어졌어요.(참여자 2)

내가 회복되면서 사람들하고 조금씩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게 뭔지 알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니까 그 쪽에서도 나한테 다가와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을 맛보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 당당해지고 관계하는 것들이 재미있어져 가요.(참여자 3)

전에는 검증된 관계, 검증된 사람, 정말 편한 사람들에게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참여자 4)

## (9) 기대함

아직도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전에는 골방에 갇혀서 상처로 말미암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면, 이젠 사랑의 연고를 발라 상처에 딱지가 붙어 단단해지고 있다.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절망감에 빠져 낙심하며 한 숨 짓던 참여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 회복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언젠가는 상처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돌아날 것을 기대한다. 언젠가 온전히 회복되면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 사랑의 연고를 발라 주며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한다.

회복 받고자 하는 그게 또 너무 강하다보니까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될 거니까요. 어쨌든 회복된 삶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참여자 1)

지금까지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다면 이제는 햇살이 비추는 아름답고 멋진 곳에 가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모험을 하

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더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나와 같이 왕따 경험이 있거나 왕따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참여자 3)

지금도 사람들이 상처주고 그러지만 저는 그 고통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peace maker로 살아가려고 해요.(참여자 4)

아직까지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의 아픔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거라 믿어요.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돼요.(참여자 5)

## 제 2 절 상황의 구조 기술

상황의 구체적 구조 기술은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제와 중심의미를 규명해 내기 위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파악해 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이다.

### 1. 상황의 구체적 구조 기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로 간주되는 6개의 구성 요소 즉, 〈학교폭력을 당함〉, 〈해결방안을 시도함〉, 〈고립되어 외로움〉, 〈상처로 남음〉, 〈성찰함〉,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의 6개의 구성요소를 연구 참여자의 각각의 독특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하나의 의미 구조로 기술하고자 한다.

#### 가. 참여자 1

참여자 1은 1남 3녀의 맏딸로 형제, 자매가 많다 보니 친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맏이로서 동생들을 맘대로 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배려하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면 올백(all 100점)을 자주 받아와서 학교 성적을 우선시 하는 아빠가 좋아하셨다. 100점을 받아 올 때마다 아빠가 사 주시는 아몬드 초콜렛이 그렇게 좋았다. 그 때부

터 애들하고 노는 것보다 공부에 치우쳤다. 공부 외엔 다른 데 신경을 안 썼다. 동생들조차도 그들이 어떤 교복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그만큼 동생들하고도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 외에 관계 속에서 얻는 재미를 몰랐던 것 같다. 관계에서 재미를 느끼긴 했어도 오래 가지 못했다. 관계가 길어야 한 달 정도 가다가 끊어졌다. 친구관계에서 느꼈던 재미가 더 컸다면 그 재미가 생각나서라도 친구를 찾았을 텐데 공부하는 재미가 더 컸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혼자 가고,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에 책만 보았다. 중학교 때는 반의 실장이었기 때문에 일할 게 많아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공부 쪽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승승장구 평탄대로를 달려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왔다. 고등학교에 들어왔으니 대학진학을 위해서 더욱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중학교 때 학원에서 만난 7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는 그 정도면 족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았다. 중학교 때까지는 친구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외고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 밤낮 없이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자신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남학생들은 관계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한 대 툭 치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하면서 서운한 감정들을 바로바로 표현해 주어 관계가 편하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섭섭하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탄 소리나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기분을 맞춰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은 여학생들하고 어울리기 보다는 남학생들하고 더 잘 어울렸다.

반에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키 크고 잘 생긴 남학생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 여학생 15명 중에서 몇몇만 빼놓고 그 남학생을 다 좋아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로 여학생들하고 관계를 안 하고 지냈다. 그런 상황도 모르고 여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그 남학생하고 매점에도 자주 가고 가까이 지냈다. 그렇다고 그 남학생하고 특별한 감정으로 만났던 것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은 따로 있었다. 어쨌거나 다른 여학생들이 볼 때는 인기 많은 남학생하고 잘 어울리는 자신이 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한 여학생한테 실수를 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를 드리는 것을 보고 '너는 얼굴이 안 되니까 이제 뇌물로 들어 대냐?'라고 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은 그런 농담을 하면 친해 줄줄 알고 전에 어디서 들었던 말을 흉내 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아이 입에서 심한 욕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어, 이걸 뭐지?' 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어쨌든 자신이 내뱉은 말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겠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음료수를 받아 든 선생님도 당황스러워 하셨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놀랐다. 그 아이는 그렇게 욕을 퍼붓고 자리를 떠났다. 그 때만해도 자신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몰랐다. 자신이 한 말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내 머리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 일이 발단이 되어 그 때부터 자신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왜냐 하면 그 아이가 바로 일진회 같은 강한 세력을 갖고 아이들을 주도했던 두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로부터 그 아이가 주동이 되어 반 전체로부터 집단 따돌림이 되었다. 아이들은 뒤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꾸며내기 시작했고, 그 말들이 전교생한테 퍼지고 퍼져서 \*\*\*는 그렇고 그런 애라고 알려졌다.

매일 밤마다 반 전체 학생이 일제히 공격해 왔다. 도서관에서 야간자습을 마치고 밤 12시쯤에 학생 전체가 우르르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간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은 최악의 공포시간이다. 하필이면 자신의 방은 복도 맨 끝에 있었다. 자신의 방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모든 방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방방으로부터 별의 별 욕이 엄청나게 큰소리로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밤마다 그 욕을 들으며 자신의 방을 가야만 했다. 그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힘들어 도망가고 싶었다.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라면서 무서운 아빠한테 욕을 많이 듣고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단련이 되어 있었다. 그런 단련이 안 되었더라면 그 시기에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거다.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벗어나 숨통이라도 좀 트였을 텐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기에 24시간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숨 막혔다. 모든 아이들한테 다가온 시선을 받는 것이 최고조의 스트레스로 다가와 미칠 것만 같았다.



어쨌든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말실수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어쩌다 아주 작은 말실수라도 하면 무척 신경을 많이 쓴다. 때로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 사람들이 또 당을 지어서 자신을 비난하고 왕따를 시킬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의식하는 줄 몰랐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벗어나고 싶지만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큰 장애이다.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고 모임 안에서 걸돈다.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위에 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을 본다. 대학을 나왔다고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안 나오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뭔가? 좋은 대학 나오고도 저들처럼 행복해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받아들여진다. 사랑받고 싶지만 '나'라서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로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실 거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만 사랑 받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든 사람한테든 뭔가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를 써야 사랑 받을 것만 같다. 그래서 끊임없는 수고를 한다. 참 고달프다. '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나?' 그건 정말 모르겠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소망하고 기대함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또 다시 노력하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토닥이며 회복될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언젠가는 변화될 거니까...

## 나. 참여자 2

중2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주동이 되어 따돌림을 당했다. 한 6개월 정도 욕을 들으며 외톨이 생활을 했다. 중3 때 반 편성을 했는

데 중2 때 괴롭힌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되었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씀 드려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반으로 옮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다. 사사건건이 지적을 하고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다. 반장 선출을 하는데 담임이 무조건 성적순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반장후보를 뽑았다. 자신은 그 때 10등 안에 들어서 반장후보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자신만 쫓 빼놓고 대신에 11등하는 아이를 반장 후보로 올려놓았다. 그 때에 선생님의 불공정함에 무척 마음이 상했고, 왜 자신만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 와중에 자신이 공부라도 못했으면 엄청 무시하고 더 힘들게 했을 거다. 그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신은 수학을 참 잘했다. 만약 자신이 공부도 못하고 수학도 못했다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을 거다. 3학년 내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느 날 엄마하고 담임이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생각해 봤는데 원인은 엄마가 담임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학년 초에 자신이 다른 반에서 그 반으로 옮겨졌을 때 담임 입장에서는 힘든 학생을 하나 맡은 격이 된 셈 아니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찾아와서 힘든 내 딸을 맡겼으니 잘 부탁한다면서 그 당시 비밀비재했던 촌지라도 내밀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학년이 끝날 때쯤에서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 경제적 형편이 촌지를 줄 만큼 여유도 없었고, 설령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엄마도 아니었다. 말로는 담임이 엄마가 안 찾아가서 담임이 딸을 괴롭힌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때라도 담임을 찾아가지도 않고 매일 말씀만 하고 있었다. 어쨌든 중3 때는 담임 때문에 엄청나게 기가 죽었고 자존감이 툭 떨어졌다.

중3 때 기가 많이 죽어서 고등학교 때에도 친구관계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고3 때도 중2 때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따돌림 당하는 경험을 또 했다. 그러나 그 때 외톨이가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피해 학교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만 하다보니까 그 대학교를 갈 수 있었지 않나 싶다. 중, 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개인 play를 많이 하는 \*\*여대를 들어갔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징글징글해서 아예 혼자 생활을 했다. 동아리 활동도 기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 식당에

서 밥을 안 먹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빵이나 김밥을 사서 벤치에서 혼자 먹었다. 그러다가 학생들한테 눈에 띄어 ‘어! 너 거기서 뭐해. 점심 먹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볼 때 너무나 창피스러웠다. 하여튼 그렇게 혼자 지내면서 무척 외로웠지만 그래도 따돌림 당하는 고통을 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대학생활을 그렇게 혼자 지내서 대학교 친구는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대학교 때 조별로 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개인적인 과제는 잘하고 여럿이 같이 할 때는 대충하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 했다. 자신은 그들과 반대로 개인의 과제는 대충하고 남과 관계되는 일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무척 신경을 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무척 신경을 써서 그런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에 일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힘들다. 자신이 원하는 피드백이 안 오면 아예 손을 놓아 버린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어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다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타인의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물론 일은 잘하긴 하는데 그러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일찍 지친다. 단기적 효과는 내는데 장기적으로 가치를 못 한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끈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은 인정을 받아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나이가 있다 보니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버림받은 듯이라고나 할까?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에는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간다. 처음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남자가 자신을 좋아 하는 것을 느끼면 그 순간부터 불안해진다.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땅이 꺼지는 듯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처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달릴 때 마침 남자친구로부터 연락까지 안 오면 미칠 듯이 힘들다. 마음속으로는 문자 한 번 보내고 싶지만 꼭 참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문자를 기다리는 그 시간엔 극도의 스트레스로 아무 것도 못 한다. 한 여름에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 이처럼 지옥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는 가차 없이 그를 차 버린다. 그렇게 헤어지면 불안감으로 시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한 동안은 홀가분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또 다시 외로워진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만남을 반복한다. 과거의 남자친

구들을 과연 자신이 정말 좋아했을까? 자문해 본다. 생각해 보면 다만 외로워서 붙들려 하지 않았나 싶다. 혼자는 외롭고 같이 있으면 떠날까 불안에 떠는 이 패턴..... 중, 고등학교 때에 따돌림으로 혼자가 되었을 때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외로움이라면 끔찍하게 느껴진다. 외로움에서 오는 애정결핍과 갈망함, 그리고 혼자가 될까 불안함. 이것들의 끝은 어디일까? 사람을 만나면 학교 때 친구들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로 버려질까 두렵고 불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지금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신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 와서 무슨 일이든 항상 부정적인 예측을 잘 한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 같은 예측을 하고 지레 겁을 먹는다. 절망에 빠지고 암울해 한다. 정말 괴롭다. 답이 안 보인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 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28세의 청년 여성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밝은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남·여 공학 중학교에 들어가 1학년 때부터 남학생들한테도 괴롭힘을 당했다. 남학생들이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뭘 봐’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다. 남학생의 괴롭힘이 너무나 심했다. 여자 아이들로부터도 왕따가 되어 외톨이로 생활해야 하는 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방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쓰고 울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을 터트렸다. 식구들이 저녁 먹고 잠들 때까지 방에서 문 잠그고 나오질 않았다.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이소라나 이승환 같은 가수가 부르는 슬픈 음악을 들으며 울다가 밤이 깊어 가족들 모두 잠이 들면 그때서야 거실에 나왔다. 거실에서 혼자 밤새도록 TV 보다가 새벽 3시가 되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들으며 유일한 위로를 받았다. 새벽녘에서야 잠이 드는데 몇 시간 후면 지옥 같은 학교를 가야 하는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밤마다 생각했던 것은 이대로 죽어서 내일 아침을 맞지 않았으면 했다. 아침마다 식탁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당할 일들을 연상을 하며 밀려오는 스트레스로 한 숟가락의 밥도 목구멍으로 넘기질 못했다. 등교 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에 오늘 하루도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수백

번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몇 개월씩 지속되었다.

힘들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중학교 때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면서 기가 많이 죽어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한두 명 친한 친구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제 자신은 남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싫어한다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졌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고통이 중·고등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자신에게 학교는 한 마디로 트라우마의 복합체였다. 같이 강의 듣는 학생들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 한 학기가 지나도록 그 누구와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중, 고등학교 때 혼자 지냈던 외로움과 수치심과 거절감이 더 심하게 느껴졌다. 그런 학교생활이 싫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듣지 않았다.

지하철은 마주 앉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불편해서 지하철을 못 탔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창밖을 내다보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정류장에 서 있는 그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뿔 뵈' 하면서 당장에 버스 안으로 올라타서 자신한테 욕을 퍼부으며 창피를 줄 것 같아서다. 중학교 때 남학생한테 당했던 일이 십 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이처럼 치명적인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남자들 앞에만 서면 욕에 대한 트라우마와 거절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자신 안에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감정은 거절감과 수치심이다. 그래서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거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럴 때는 폭풍흡입과 같은 폭식을 하고 가족들한테 온갖 짜증을 낸다. 그리고 한 없이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 블랙홀에 한 번 빠지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린다. 한 번 우울 모드에 빠져 들면 보통 일주일, 열흘 걸려서야 헤어 나온다. 그러다보니 점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만나고 나서 당할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여 아예 약속을 안 한다.

남자공포증이 심하여 이성교제는 물론 결혼은 아예 못할 것 같았다. 삶의 소망이 없다보니 자살에 대한 생각도 수만 번 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데엔 그 만큼 상처를 준 그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그들 때문에 자신은 아름다운 시절에 아무런 즐

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우울함에 시달렸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자신이 자살하므로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것만큼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살고 싶어졌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한창 꿈을 찾을 때에 자신은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품었던 꿈마저 다 사라졌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도 못 느꼈다. 그러나 인생의 꿈을 찾고 다시 공부의 중요성을 되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만족감을 맛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지 실패의 두려움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삶에 열정이 생겼고 무언가를 계속 하려는 의욕이 생겼다. 이런 자신이 참으로 놀랍다. 아직도 때때로 무기력함의 벽에 부딪힐 때는 끊임없이 주저앉기도 한다. 열정과 무기력함의 줄다리기의 끝은 어디일까? 하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달려간다.

‘I am valuable’ 이 말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한다. 이 말 하나로 버티고 버티면서 지내오다 보니 한 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새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에 대해서 대견함을 느꼈다. 상담자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와 지지를 받으면서 전에 같으면 벌벌 떨고 수만 번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었다.

그 동안은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창피스럽고 부끄럽게 여겨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 그 때는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면서 심적인 고통의 부피가 작아지는 만큼 세상이 눈에 들어왔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활짝 핀 꽃이 보였다. 산을 오르며 내려다보이는 장관들을 보며 탄성이 나왔다. 자연을 통한 기쁨과 행복이 느껴왔다. 도시 한 가운데에서도 멋있는 거리를 찾아 혼자 걸기도 하고, 숲길과 산, 강을 찾아다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회복되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처럼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지난날 철혹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자신이 참으로 대견스럽다. 그 오랜 시

간 동안 고통과 싸우며 견뎌냈던 회복의 여정이 만만치 않아 수없이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기 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와 준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야 참 잘 했어. 잘 견뎌 냐. 정말 잘 참아냈어.....’라고.

#### 라. 참여자 4

참여자 4는 오빠랑 여섯 살 터울이 난다. 형제 많은 중에 막내아들인 아빠가 늦게 낳은 딸이라 친척들한테도 ‘\*\*\* 아씨’ 라는 말을 들으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자신의 집 1층에서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여 오는 손님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성장배경에서 자란 자신은 어른들로부터 사랑만 받았지 또래들하고는 어울린 경험이 없어 어딜 가도 자신은 사랑받는 줄 알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5학년 때까지는 친구들과 잘 지냈다. 그런데 6학년 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왔다. 만화를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도 만화를 그리다 보니 반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혼자가 되는 것을 느꼈다. 위기감을 느껴 아이들한테 다가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이후 혼자 지내다가 졸업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관계를 잘해 보려고 극성인 아이들하고도 어울리고, 조용한 아이들하고도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나 소속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어느 그룹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또 외톨이가 되었다.

어느 날 7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복도로 불러내어 나가 봤더니 ‘너는 왜 너의 집 자랑을 그렇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잘 났냐. 네 자랑이 심하다. 너는 네 애기밖에 할 줄 모른다. 우리 애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네 애기만 한다.’며 따졌다. 자신의 집이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 특정상 그들의 집에 비해 자신의 집이 좋아서 잘 사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다. 그 때 느낀 것은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있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그 이후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외톨이가 되고 나서 6학년 때 오빠가 자신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너는 지금처럼 지내면 나중에 정말 혼자가 될 거야’ 라고 했다. 오빠 말대로 중학교 때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 당시 오빠한테 ‘왜 내가 혼자 될 거라고 말을 했느냐’고 물어

보고 싶었지만 물어보다가 자신이 혼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속상한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 했는데 중학교 때 오빠가 사고를 친 이후로는 힘든 일을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오빠의 문제가 컸고 자신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빠가 좀 무뚝뚝하여 힘든 일은 엄마 혼자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럿이 대화할 때 딱 테를 본다. 그건 딱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내용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독특했던 것 같다. 어쨌거나 그러다보니 대화에 동참을 잘 못해 누구랑 대화하기 보다는 아예 혼자 있는 게 편했다.

사회생활 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가 있어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중학교 때까지 대화할 때 정말 자신만 주장했던 것 같다. 대화 주제가 자신의 집,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 얘기는 듣는 등 마는 등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도 자신이 말한 내용과 자신이 느낀 것만 기억하고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것은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랄까?

요즘도 조금은 자기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 하면서도 얘기하다 보면 친구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대화할 때 '아. 나는...' 이러면서 주제를 바꿔서 자신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한테 집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대화 방법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얘기하다가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딱 얘기하면 자신의 얘기 들어달라고 막 울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화중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대학생이다 보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관계가 금방 깨어지진 않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어느 정도 이상은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혼자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곳에서도 직장 동료가 고자질을 해서 직장을 못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여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외톨이가 되었던 아픔과 기억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부



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룹 안에서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룹에 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리에 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 혼자 집에서 자택 근무하는 게 좋다.

중학교 때 아이들로부터 거절과 따돌림을 당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못나 보였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다보니 끝없이 우울하고 자신을 잘못된 사람으로 여겼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받은 영향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엄마가 자신에게 아파를 닦아서 그렇다는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다. 그 말이 상처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싫어했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다.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싫어할까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어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면서 자신을 더 보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것은 만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맞추려고 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골똥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안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것 같았다. 그 이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칭찬을 했더니 그 친구가 무척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칭찬을 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때부터 칭찬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칭찬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통해서 다시 칭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만나도 진심으로 칭찬을 하면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쉬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전에는 검증된 관계, 검증된 사람, 정말 편한 사람들에게만 진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당당해졌다. 진심을 받아주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뢰가 많이 회복되어 갔다. 관계하는 것들이 재미있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다보니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오면 우선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했다. 그런데 이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다. 자신의 연약함도 나누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런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한다. 관계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어간다. 아직도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상처가 되긴 하지만 그다지 영향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으니까... 많이 단단해진 느낌이다.

#### 마. 참여자 5

참여자 5는 발육이 빨라 취학 전에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가 크고 덩치도 컸다.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런 신체의 약점을 갖고 남학생이 ‘스피 똥똥이’이라고 놀렸다. 이것이 학교폭력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 때부터 자신이 뭔가 잘 못된 사람 같다는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감을 잃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역시 자신은 사랑스럽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혀졌다.

외아들인 아빠에게서 첫 딸로 태어나 손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할머니로부터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박을 많이 받았다. 아빠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만한 어떤 기억이 전혀 없다.

엄마는 친절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시집 와서 셋째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들 못 낳았다고 할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다. 경제력 약한 아빠를 대신해 언제나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며 살아오셨다. 엄마의 고된 삶의 무게와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엄마의 한 없이 낮은 자존감은 맏딸인 자신에게 고스란히 젖어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바로 밑의 여동생이 뛰어나게 예뻐서 늘 그 동생과 비교를 당했다. 그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예쁘지 않다는 열등감이 자리 잡았다. 아빠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과 열등감으로 많이 먹었는지 체중이 많이 나가 엄마마저도

자신을 밖에 데리고 나갈 때면 창피하게 여겼다. 이처럼 취학 전부터 자신의 내면엔 이미 열등감과 거절감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왔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나를 노력했다. 친하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정환경도 좋았고 부모님 직업이나 학벌도 좋았다. 그들과 어울리려는 마음에 아빠의 학벌과 집안 환경을 거짓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었다.

학교에서 주눅이 들어 공부 시간에 일어나서 발표조차 할 수 없었다. 학교 가기가 싫었다.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도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늘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었다. 자존감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덩치만 컸지 속사람은 한 없이 작아졌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다. 그렇게 외톨이가 된 학교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 중에서 중학교 시절은 지워 버리고 싶다. 그래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그 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억이나 사건들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 물론 친구도 없다. 그 때 그 시절을 너무나 깊숙이 오래도록 눌러 놓고 지내 와서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다시 꺼내 놓는 데에도 무척 힘들었다. 두려움과 고통도 따랐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고2 때는 한참 여학생들이 미(美)에 관심이 많을 때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유복과 수학여행에 필요한 것을 쇼핑하느라 마음이 들떴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런 흥도 없고 도리어 우울해져만 갔다. 혼자 지낼 것 생각하니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마침내 수학여행 떠나는 날짜가 다가왔다. 소가도살장에 끌려가듯 마지못해 겨우 따라갔다. 억지로 따라간 수학여행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당연히 남아 있는 추억도 없다. 1박 2일이었는지 2박 3일이었는지 그 기억조차도 안 난다. 그때 어디서 무얼 했는지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 춥고 움츠렸던 기억 밖엔 없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던 시절이 짧게 한 계절이 아니라 1학기 소풍 때와 2학기 수학여행 때까지였으니까 꽤 긴 시간을 그렇게 외톨이로 지냈다. 그 기간 동안에 조

금이라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보려고 지각, 조퇴도 많이 하고, 결석도 많이 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결석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다 학교생활이 것처럼 망가졌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버린 두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졸업한 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꽃다운 18세 고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은 고사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쓴 기억만 남게 한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감정은 분노의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그 때의 일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다. 그 일들이 지금의 삶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글프기까지 하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해서 '2'라는 숫자가 참 싫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역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외톨이가 되었던 트라우마로 친구 사귀기 위해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억 때문에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오해할까봐 초조해 한다.

어디를 가든지 외톨이가 될까봐 인간관계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지내기보다는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대인관계 안에서 작은 일만 생겨도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여 잠을 못 이룬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게 삶의 습관이 되었다.

중,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버렸다. 사람들을 만날 때 늘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얼마 전부터는 미아처럼 버려진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자신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받지 못한 초라한 자신을 직면하는 게 싫고 두렵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런 자신을 사랑을 하겠는가라는 말에 동감은 하지만 아직은 자신을 사랑할 만큼 용기가 없다.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 가득한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부터 나온다. 마음이 언제나 공허하고 외롭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자신도 무엇에 홀린 듯이 정신없이 폭식을 한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다. 어느 때는 토할 때까지 먹는다. 토하고 나서 또 먹는다. 음식을 먹는 동안은 외로움을 잊는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안 채워진다. 배가 안 채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다. 외로움으로 텅 비어 있는 공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해서 먹는 데에 쓰는 지출이 월급의 대부분이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을 하면 솔직히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자신도 없고, 우리 부모처럼 자신의 자녀도 나와 같은 자녀로 똑같이 키울 것 같아서다. 자신이 지내온 그런 어린 시절이 자식한테 그대로 대물림 될까봐 두렵다.

## 2. 상황의 일반적 구조 기술

상황의 일반적 구조 기술은 구체적 기술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각각 독특한 상황과 경험의 의미를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구조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자의 통찰로 재분석하고 통합해 가는 기술이다.

학교폭력은 그것이 어떤 유형이 되었든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당면하는 것으로 느껴져 당황스럽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가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한 뒷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는 이미 자신이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왜 자신한테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혼란스럽다. 이유도 모른 채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이들은 막연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호감이야’, ‘나는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 된 아이야’ 등의 왜곡된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난·뒷담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는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 그 결과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자기 개념과 부정적 감정으로 대인관계에 더욱 자신감을 잃어간다. 친구 맺기에 부력감을 갖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들은 차라리 혼자 있기를 원하고 또 다시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어간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톨이의 삶에서 겪게 되는 지독한 외로움이다. 왕따를 당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은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누구보다도 사람을 그리워하고 갈망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과민한 반응으로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극도의 피로를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을 피하고자 인간관계에 소극적 자세로 뒤로 물러서거나 관계를 단절한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혼자 고립되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한편 외로움에서 탈피하고자 사람들을 갈망하지만 관계 안에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과민성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는 양극 패턴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어떠한 형태든 고통이 지속될 때에 고통을 피하고자 대체행동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외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폭식을 했다. 그로 인해 과체중 상태에 있었거나 현재도 과체중의 상태에 있다. 이들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고통은 곧 육체적 불균형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으로 외모에 예민한 여성 참여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진행되어 갔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으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생활이나 알바·직장생활·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소속을 힘들어 했다. 또래보다는 연상·연하 집단을 선호한다. 공동체 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뒷담을 하고 있을 거라는 부정적 자동해석으로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다. 그리고 무리에 끼지 못해 또 다시 외톨이가 될까하는 두려움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자기주장을 못한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면을 쓰고 지낸다. 부족한 자기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타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진실한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사람들과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피로감을 느낀다. 결혼해서 자신과 같은 자녀를 만들 것 같은 두려움에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두렵고, 결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결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심각한 상처를 안고 수 년, 길게는 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

면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나누지 못하고 고통하며 살아간다. 주위에 청년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불행을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던 당시처럼 고통스런 현실을 떠나 죽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한다. 현실 적응을 못하고 오랜 방황의 기간을 보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랄까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의지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에 상처 치유에 대한 책을 읽고 상담자를 찾아 간다. 상담 받기 전에는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상담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을 성찰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재조명한다. 자신의 부족함과 가정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온 요인들을 발견하면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겠다는 열망과 기대감을 갖고 도전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삶으로 전향한다.

오랜 시간 사람들로 부터, 자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먼저 자기 자신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음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어간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뀐다. 무기력하고 지루했던 삶에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이 일어난다. 그 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용납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관계에 자신감을 얻는다.

자신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며 자신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누구를 돕고 싶은 꿈을 갖게 된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상처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의 고통보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훨씬 값지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뒤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언젠가는 아름답게 회복되어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는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회복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힘이 솟는다.

## 제 5 장

### 논 의

#### 제 1 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외상 후 스트레스

보건복지부가 2001. 4. 25~2002. 2. 25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리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갖고 고진희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비교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순으로 병리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우울> 편집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정신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의 순으로 나타났다.<sup>54)</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불안> 자신감 결여> 우울> 신체적 증상> 등교거부> 대인기피> 의 순으로 나타났고, 입원환자에게서는 우울증> 불안> 신체증상> 등교거부> 정신분열증의 순의 결과가 나왔다. 외상은 문제가 되는 하나의 성격 특질이 아니라 복잡한 성격 문제와 연관되곤 한다.<sup>55)</sup>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SM-V(APA, 2013)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반복해서 그 사건을 재 경험하고, 외상과 관련된 사고, 느낌, 대화를 피하고, 외상과 관련된 장소, 사람, 활동을 피한다. 외상 이후의 기분과 인지기능에서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데, 피해자는 외상의 중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54) 고진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9), 46.

55) Johnson JG, Cohen P, Brown J. et al, “Childhood Maltreatment Increases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Early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1999), 600-606.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외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한다. 정서적으로 분노, 공포, 죄책감이 심해지는 반면 행복감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각성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속되어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폭발하거나, 집중을 못하고 과도하게 경계하며 잘 놀란다.<sup>56)</sup>

윤지은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지속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성격적, 신체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서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 '억울함', '심리적 위축과 의기소침', '치욕감과 수치심', '외로움과 배신감', '불안감', '무서움', '삶에 대한 회의', '죄책감과 자책감'이 나타났다<sup>57)</sup>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측면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당시는 물론 그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홍성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세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대면함',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의 삶의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관계적 맥락의 의미로는 '갈등 관계를 경험함', '다시 공동체에 속함, 치유의 시작'이라는 2개의 의미를 형성했다.<sup>58)</sup>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그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사고·정서·삶의 태도에 다양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고 영역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형성된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비하하여 자존감이 저하되었고, 부정적 자동해석으로 대인관계에서 오해를 가져오고, 사실을 왜곡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삶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증진시켰다.

정서적으로는 거절감, 불신, 두려움, 공포심, 수치심, 치욕감, 모멸감, 외로움, 소외

5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122.

57) 윤지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 2007)

58) 홍성희, "학교폭력 피해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승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 2014)

감, 열등감, 질투심, 우울, 원망, 분노, 좌절, 낮은 자존감, 자책감. 경직됨, 무기력감을 호소하였다. 대인관계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고,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며, 의기소침하고, 자기주장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방어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관계를 회피하고, 단절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또 다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과잉 반응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대체행동으로 폭식, 과도한 수면, 과소비를 하였고, 현실을 도피하여 영상이나 사이버 세계로 빠졌다. 삶의 태도는 무기력함으로 자아 효능력이 저하되었고, 어떤 일에 도전을 두려워하고 쉽게 포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여 청년 여성으로서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상실해 갔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발견한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중·고등학교 때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초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자신감 결여, 위축됨, 재 경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친구 맺기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으로 본다. 이는 정미향·성한기의 연구에서 실제로 중·고등학생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59)</sup>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3명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후에 중·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대학생활에도 적응이 안 되어 이들 모두 휴학을 하였다.

폭넓은 친구관계를 지향하고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가장 강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 존중감을 현저히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sup>60)</sup>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외상의 재 경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를 회피하고 단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이들의 대인 관계는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또 다시 대인관계의 실패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외상의 재 경험을 피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잦을 경우, 삶의 의식의 공간이 좁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만드

59) 정미향·성한기,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2007), 77.

60)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227.

는 결과를 가져온다.<sup>61)</sup> 그 결과 스스로 인간관계의 범위를 좁히고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 시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 횟수, 학교폭력 피해 기간, 피해의 강도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중, 고등학교 때에도 재 경험을 하였고,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 직장생활, 교회 생활에서까지 또래 집단의 공동체 소속을 힘들어 했다. 한편 한 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지만 장기간 강도 높은 피해를 경험했을 때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재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중·고등학교 어느 시기든 초기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기 포착하여 그에 따른 올바른 후속 조치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제 2 절 학교폭력 피해와 관계의 깨어짐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관계적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여러 영역에 ‘관계의 깨어짐’이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관계적 폭력 형태가 여학생 사이에서 75퍼센트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인 청년 여성들이 경험한 학교폭력은 대부분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의 관계적 폭력이다.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청년여성들은 아름다운 꿈을 키워 가는 청소년기의 교육현장에서 믿었던 친구로부터 일찍이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다. 관계의 깨어짐은 고통을 유발한다. 이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는 동안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업한 후에 학교폭력 피해가 자신의 삶에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다는 현실을

61) Judith Herman, *트라우마*, 최현정 역, (서울: 플레닛, 2005), 83.

직면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끝으로 '자연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삶의 생명력을 잃어간다. 대학생들은 물론 직장생활에서 학교폭력 경험에서 온 외상성 스트레스로 경계심과 적대감 및 방어기제 작용으로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다. 공동체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이 유발된다.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휴학을 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에서 잦은 이직 현상으로 나타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의 자존감과 자화상에 손상을 입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한다. 타인으로부터 거절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자화상은 '자신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자화상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감정을 교류하거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그리하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에 실패를 반복해 간다.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부정적 '자화상'을 수정하는 것이다. 자화상의 회복은 다른 말로 정체성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놀라운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가해자들이 말했던 부정적인 말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 자화상이나 부정적 정체성이 자기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자기 긍정은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다준다. 이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으로 발전되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쉽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자신을 거절하고 외면

했던 학교 친구들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 받을만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왜곡된 사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져 자연을 보고도 감동하거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자신 안에 깨어진 여러 관계들로 인하여 수반되는 고통으로 자연을 보고 감동을 느낄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이 가득하여 시야에 들어오는 자연세계가 들어올 마음의 빈 공간이 없다. 어느 정도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날 때 비로소 자연과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며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신과의 관계·타인과의 관계·하나님과의 관계·자연과의 관계의 연속적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관계에서 얻어지는 생명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여 우울한 삶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회복은 무엇보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영역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 제 3 절 학교폭력 피해와 부모 양육의 관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고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소속된 공동체의 특정한 양육과 교육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한 양육방식과 교육체계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환경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한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학습되어져 가는 과정이므로 가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어릴 때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내재화(internalized) 되었는지 그 표상(representation) 방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sup>62)</sup>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 방식과 어머니의 자존감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관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바움린드(D. Baumrind)는 부모의 유형을 크게 권위적 부모, 독재적 부모, 방관형 부모로 분류하는데 먼저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재형의 부모를

62) 유영권, 기독교(목회) 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14), 77.

뜻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자율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가진 규율을 교육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서로 안정적인 교류를 하며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녀는 독립심이 강하고, 창의성, 자신감이 있고, 미지에 대한 도전정신과 재능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 반면 독재형(authoritarian)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유형으로 자녀들은 독립심이 결여되고, 수동적이며, 사회성 결여, 지적 능력의 결여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무관심(indifference)형 방임형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과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형으로 자녀들이 성장 후에도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대인 관계에서 무례하며, 과도한 행위를 하고, 자신의 이기성에 기초하여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유형의 자녀는 독재적인 부모로부터 양육 받은 자녀보다 훨씬 더 반항적인 경향을 보인다.<sup>63)</sup>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부모의 특성은 엄격한 통제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되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자녀에게는 비효율적 대인관계, 사회성 부족, 의존적, 복종적, 반항적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 우월감, 독단, 욕하기, 비난으로, 자녀를 지나치게 비판함으로써 자녀에게서 죄책감이 유발되어 낮은 자존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한다.<sup>64)</sup>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자녀에게 그대로 학습된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었다.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이 개발되지 않아 학교에서 친구관계가 힘들었다고 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4명의 부모의 유형은 대부분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적인 부모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부모 양육방식으로 감정이 억압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감정 공유하는 능

63) 임경수,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247-248.

64)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308.

력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말이 듣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이 부족하여 말실수를 하고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해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참여자 1>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대리 만족에서 공부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작용될 때에 자녀의 삶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리하여 <참여자 1>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어 공부만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작은 말실수로 전체 왕따가 되었다.

<참여자 2>의 아버지는 분노가 많고 성인아이 성향이 많아 자녀에게는 의지할 만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다. 어머니는 과보호적으로 자녀에게 공부 외에 그 어떤 일을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가 공감력이 매우 떨어져 자녀 역시 공감력이 개발되지 않아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공감 받지 못했을 때 자녀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신감이 결여 되어 타인과의 친밀감을 이루지 못한다.

<참여자 3>의 아버지는 자애롭기는 했지만 방임적이었다.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단한 열정과 관심을 갖는 만큼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하였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많이 심어주었다. 그 결과 자녀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친구 관계가 자유롭지 못했다. 관계 안에서 실수를 할 경우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부정적 상황을 예측하여 결국은 생각한 대로 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자 4>는 허용적 양육을 받았다. 허용적 양육 방식은 애정적이긴 하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없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한다. 이러한 허용적 양육을 받은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자신감이 있고 적용은 잘하는 편이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참여자 4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딸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친척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아 자기중심적 인간관계가 학습되어 친구관계 안에서 독점적 사랑을 요구하였다. 가정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자기만 사랑해 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은 있었으나 타인

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하여 결국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 되었다. 따돌림의 최초 경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하여 중·고·대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따돌림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5>의 아버지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며 매우 권위주의적이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 엄격했다. 그리하여 자녀의 감정이 매우 억압되어 타인과의 감정 이입이 안 되고,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졌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언제나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한 강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다. 반면 어머니는 과보호적이었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져 의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인격적이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과 공허감의 정서적 부적인 문제가 섭식장애로 이어졌다. 폭식의 결과로 과체중을 불러왔고 이는 신체적 놀림의 제공거리가 되었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제공받지 못할 때 심리적 굶주림으로 음식에 의지하게 된다. 폭식증은 심대와 젊은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sup>65)</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들 모두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 피해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와 부모의 양육방식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친구들과 상호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관계 훈련이 선재되어야 하며 자녀의 인격체가 완성되기까지 부모의 교육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제 4 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신앙적 의미

인간은 일반적으로 극한 고통에 처하면 절대자를 찾고 신앙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면서 신앙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논의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정체감 탐색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은 보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왜 특

65) 정옥분,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229.



정 종교의 신자인가?’ 등 추상적 사고를 통해 종교적, 영적 개념에 대해 다양한 해답을 도출하려 한다. 여성 청소년들은 남성 청소년보다 더 종교적이다. 따라서 자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홀로 더 많이 기도하고 신(神)과도 더 가깝다고 지각한다.<sup>66)</sup>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어떤 종교든 선택하여 신앙을 갖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4명은 학교폭력을 당하기 전부터 일찍이 기독교 신앙 갖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 1>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지만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수개월 동안 반 전체로부터 동시에 집단 욕설을 듣고, 집단 왕따를 당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성경공부 같이 하자는 남학생의 권유를 받아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성경은 좋은 것이려니 생각을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따라가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단순한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밤마다 반 전체 학생들로부터 일제히 퍼붓는 욕을 듣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주일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처럼 <참여자 1>은 신앙이 없는 가운데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힘든 학교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와 생명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여자 2>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차가운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 이런 일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자 3>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심각하게 깨어졌다.

내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당할 때 매일 아침 긴장되고 두려워서 학교 가기 전에 주기도문을 수백 번, 수만 번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고, 나한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외웠던 주기도문은 그 분에게 무슨 의미였으며, 그 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였던 걸까요? 마치 응급실

66) 장휘숙,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13), 292.

에 온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처럼, 그 때의 신은 나를 보고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그때 나는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불안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신은 무서울 정도로 나에게 무관심했어요.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울었던 걸 보았을까요?

참여자 3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반응에 대해 이해가 안 되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참여자 3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못함’.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음’, ‘자신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 불안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자신에게 무관심했음’, ‘자신이 고통을 겪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음’, 이다.

그래요. 이런 내 질문에 모범답안은 항상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너의 기도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항상 네 옆에서 울고 계셨고. 너의 상처에 아파했을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진짜 그랬다면 그 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요. 무능력한 하나님.....

참여자 3은 하나님이 만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힘들음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면 왜 힘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거나 아님 능력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논문을 위해 그 때의 아픔을 다시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 오늘날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 그 일을 겪은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한테 ‘실험쥐’인가요?

라고 했다. 마치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도록 실험했던 것 아닐까 하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 많고 좋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나에게만 전혀 반응도 없고, 차갑고, 냉정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까지도 이제 사람을 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너무 가기 싫었어요.

라고 했다. 참여자 3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들어 주셨다고 판단했다. 결국 하나님도 학교 친구들처럼 자신을 차별하고 편애를 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따돌리고 거절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끝으로 “지금은 그 어떠한 위로도 나한테는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라며 하나님에 대해 굳게 닫힌 마음을 표출했다.

<참여자 4> 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힘으로 힘든 마음을 이겨낸 것도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교우들로부터 받는 사랑의 힘이 매우 컸다고 했다. 교회의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처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주중에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일에 교회에서 다 풀고 에너지를 얻었다고 했다.

<참여자 5> 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다.

그 당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보다 생각했어요.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제 감정은 아빠한테 느끼는 감정과 똑같이 느껴지니까요.

이와 같이 참여자 5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다. 윤지은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떠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생각조차 안 났고’, ‘하나님은 지켜보며 연단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며 ‘전능자로서 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답했고, 그 외에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졌고, 자신들의 고통에 무심한 하나님’<sup>67)</sup>이

라고 진술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일치되는 내용이 많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난 양상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반면에 신앙을 갖고 있던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뿐 아니라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위기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도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므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 자료나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살펴본 듯이 중, 고등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삶 속에 신앙을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는 교회의 역할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한다.

#### 제 5 절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의미

여러 영역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 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기독교 상담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 하고자 한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통해 범죄 한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 정서, 행동과 가치관, 세계관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학교폭력 또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간혹 가해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상처로 타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관계의 고리를 끊는 것은 하나이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성공적인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67) 윤지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 2007).

다. 관계에서 온 상처는 성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거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희생적 역할이 필요하다. 거절 받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고,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줌으로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이들을 치유하게 한다. 관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 상담자는 새로운 관계를 성공시켜 나가는 파트너이자 치유자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관계의 실패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성공시켜 나아가는 첫 번째 사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들이 그 누군가와 한 걸음씩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 줌으로 또 다른 관계에서 실제적인 성공을 경험할 때 마침내 이들의 삶에 생명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기독교 상담자가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 상담자가 고통당하는 내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최상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고통 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고통 하는 자의 고통을 예수님만큼 동일하게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담해 나가야 한다.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 상담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상담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시는 보혜사 즉, 상담자라고 명명되신 분<sup>68)</sup>이기 때문이다. 콜린스(Collins)는 '기독교 상담자란 헌신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이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sup>69)</sup>'이라고 정의했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과 지혜와 지식, 통찰력을 통

68) 심수명, *상담목회*, (서울: 다세움, 2008), 138.

69) 김용태, *기독교 상담학*, 82.

해 한 개인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자신감을 갖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돕는 자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성인들은 상담받기 전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인터뷰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상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상담자를 찾아와서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쉽게 개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본능적인 방어기제로 자기를 숨기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다. 이렇게 위장하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무력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sup>70)</sup>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상담자는 과거에 자신을 거절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똑같이 또 다시 자신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자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응해 나가야 한다.

한 인격을 잘 세워나가려면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상담자 자신도 문제를 개방하여 인격적인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을 여는 진실한 용기와 주도적인 개방은 내담자로 하여금 신뢰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진실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sup>71)</sup>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와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내담자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갈 수 있다.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내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시켜 주는 것이다.

허윤정은 30·40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생존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을 치유 받고 회복되었던 계기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이었으며, 신앙을 통해 피해경험을 극복하였다고 했다.<sup>72)</sup> 신앙은 이들의 삶에 절대적이었고, 또

70) 심수명,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2013), 32.

71) 심수명, *정신역동상담*, (서울: 다세움, 2010), 316.

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확인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했다. 한 인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회복이요, 나아가 성화과정(sanctifying process)<sup>73)</sup>이다. 기독교 상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따라오는 인간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삶은 마음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몸의 변화이다.<sup>74)</sup> 기독교 상담자가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흘러 보내어질 때에 그에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회복 과정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치유의 요소에는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피해 정도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회복되는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피해자나 이들의 회복을 돕는 상담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유의 과정을 인내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는 관계 안에서 상처를 입은 자이기에 개인 상담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룹에 속하여 수용 받고 관계 안에 함께 머무는 지원그룹이나 치유그룹을 통해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학교와 지역 내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실이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재단과의 연결망을 통해 실제적인 보살핌과 치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외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다양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제적인 회복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72) 허윤정, "30·40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생존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14)

73) 성화과정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말함.

74) Powlison, D. A. *Questions at the crossroads : The care of souls & modern psychotherapies*. In M. R. McMinn & T. R. Philips(Ed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1-61. 김용태,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6), 193.에서 재인용

## 제 6 장

### 결 론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했으며, 청년여성에게 학교폭력은 어떠한 의미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그 본질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상을 밝히고자 했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연구자의 제언을 남기면서 연구의 마무리를 하려 한다.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연구자는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현상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하여 경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현상학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한 경험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내는 지오르기의 방법을 따랐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5명의 20대 후반의 청년여성이다. 보다 진실 되고 풍성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은 대부분 2년 이상 연구자와 함께 성경공부를 해 오고, 연구자가 오랜 기간 상담해 온 여성 성도들의 자녀들로 표집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유형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깊은 연구를 위해 청년 여성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다수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그 이후 현상을 가장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청년 여성들로 선별하여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에 걸쳐 각각 3



회 이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헐적으로 수차례 짧은 면담이 이루어졌다. 1회 심층인터뷰는 평균 2~3시간 소요되었고, 심층 인터뷰는 완전 개방식 질문과 반 개방식 질문으로 참여자 스스로의 진술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취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초자료로 삼았다. 그 외 현장일지와 연구 참여자와의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진술 받은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단계까지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을 통해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진술을 연구 분석한 결과 총 324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고, 그것들을 104개로 요약하였으며, 다시 2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묶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되는 6개의 구성요소 ‘학교폭력을 당함’, ‘해결방안을 시도함’, ‘고립되어 외로움’, ‘상처로 남음’, ‘성찰함’,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으로 도출해냈다.

### 1. 학교폭력을 당함

학교 폭력을 당함의 의미는 친구에게서 버림을 받고,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폭력 피해 경험을 의미한다. 단짝 친구들이 떠나가고, 또한 반에서 세력 있는 아이한테 잘못 보여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때로는 집단 공격과 반 전체 학생으로부터 동시에 욕설을 듣는 등 반 전체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남학생들로부터는 놀림을 당하고, 욕설과 비난을 받는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과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 저항하고 싶었지만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무력감에 슬퍼하며 심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와 같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은 수개월 심지어 1년여 동안 지속된다.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거절감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 수치심,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2. 해결방안을 시도함

고통을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알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학교에서는 따돌림 당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본다. 대

화에 합류하고자 연애인 이야기도 해보고, 관계가 깨어진 친구들을 찾아가 사과도 하고 애원도 해 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애쓴 노력들은 허사로 돌아온다. 때로는 노력한 것들이 역효과를 가져와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하여 관계하기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도무지 여자아이들 마음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며 친구 맺기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 3. 고립되어 외로움

마침내 외톨이가 되어 쉬는 시간에도 혼자가 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혼자 먹게 되면서 극도로 외로움의 고통을 경험한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에 대해서 뒷담 하는 말을 들으며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남학생들의 괴롭힘과 함께 소외된 학교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진다. 학교 가기 싫어 전학하려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안 되자 고통스런 학교를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자살을 생각하고 마침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두려워 자살을 포기하고 고통을 견뎌내기로 결심한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되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가졌던 동일한 생각은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 4. 상처로 남음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의 지옥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고통도 끝날 줄 알았던 이들에게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게 한 것은 학교폭력을 당했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실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심리적, 정신적인 손상을 가져와 왜곡된 인지·정서·행동을 낳아 삶 가운데 다양한 고통을 유발했다. 대인관계에서는 과각성<sup>75)</sup>으로 과거의 아픔이 현실에서 그대로 느껴졌고, 대학생활 하는 동안 거절당할 것 같

75) 과각성 [hyperarousal, 過覺醒] : 자극에 대해 정상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

은 두려움으로 친구 사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로 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때로 사람들이 싫어졌다.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지낸다. 하지만 외톨이의 삶은 집단 따돌림 당하면서 경험했던 지독한 외로움의 고통을 재 경험하는 것이다.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는 대학생활이 재미없어 마침내 휴학을 한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알바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지만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많이 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두 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무리에 끼지 못해 또 다시 외톨이가 될까하는 두려움에 늘 불안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자신을 주장하지 못한다. 친해 지려고 노력하지만 두려움과 경직된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다보니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자기 비하를 하여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다.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자신을 버려두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마침내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홀로 있기를 선택한다.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려 또 다시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심리적으로 내재화된 거절감과 수치심과 싸워야 했다. 이러한 고통의 연속선상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대체행동으로 폭식을 하고 대중매체의 세계로 숨는다. 청년여성으로서 이성이 그렇지만 남자 친구 사귀는 것도 두렵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신과 같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만들 것 같은 두려움에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 간다.

## 5. 성찰함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처로 말미암은 다양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길게는 10년 이상 겪어왔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 아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잊고 싶은 싶었던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을 다시 꺼내 재조명하기에 이른다. 집단 따돌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였고 친구 관계에서 위축되어 재 경험하게 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자신과 가정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대화가 서툴렀고,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했

으며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과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친구 관계에서도 대화 참여에 실패함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 6.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함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암울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오는 중에 주위 친구들이나 청년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담자를 찾아간다. 상담을 받는 동안 무의식 세계에 밀어 넣었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의식세계로 떠올려야 하는 고통이 따랐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게 했으나 회복을 위한 시도로 이제부터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한다.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배우고 실천해 갔다. 그러자 상처 입은 자아가 놀랍게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암울했던 미래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났다. 언젠가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자신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야겠다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이 생겼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성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이 사라져 가고 관계 안에서 행복이 느껴진다. 과거의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져가고 앞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힘겹지만 오늘도 회복의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년여성들에게 나타난 6개의 구성 요소의 특징은 전체 참여자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형성되었다. 6개의 각각의 구성요소는 시간적·인과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피해의 고통을 힘겹게 견뎌내고 그 후에는 외상성 스트레스로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또 다시 고통을 직면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한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회복의 길로 돌입하는 역동적인 turning point 를 만들어 낸다.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단순히 자신의 성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연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담을 받는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재조명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는 연구자가 연구 질문으로 제시했던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청년여성에게 학교폭력의 의미’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신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더 새롭게 되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하고 도전해 나갔다.

학교폭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위배한 행위로서 관계를 깨뜨리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관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까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치유는 이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서 그 여정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 받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품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5명의 연구 참여자의 진술된 내용을 기초자료를 근거로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는 연구과정에서 적어도 2~3명의 연구 참여자를 더 참여 시켰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다. 다행히 5명 중의 4명은 오래도록 연구자와 알아온 관계라 내용적으로 더 깊이 있고 세부적이며 풍성했던 점은 유익했으나 연구 참여자의 숫자에 제한점을 둔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여학생에게서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만큼 본 연구 참여자를 청년여성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둔다.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인터뷰 하면서 발견된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의 강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세대가 낮아질수록 학교폭력 유형의 변화도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연령 차이가 평균 27세 있다 보니 그들 세대가 생활했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으나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학교생활에서도 선생님이나 교우들로부터 사랑 받고 모범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선지식이 별로 없이 거의 백지 상태에서 인터뷰를 임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진술 내용을 들으면서 동감은 할 수 없었지만 목회자와 상담가의 한 사람으로 공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자가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 더 의미 있는 진술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 본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성인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 상담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연구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학교 교육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더 많은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도 이루어져 더 풍성한 자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 부록 1.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주제 :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자(김경수)의 학위논문을 위한 인터뷰 대상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Korean Doctor of Ministry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에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심층 면담을하기를 원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여러 차원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 할 때 나누는 모든 진술은 녹취를 통해 기록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그에 관련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실하게 진술해 주신다면 본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3회 진행될 것이며, 1회에 면담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술 내용을 모두 녹음할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본 연구자는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귀하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며 본 연구가 활자화 될 때에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사적인 신분과 비밀을 지켜 줄 것을 약속합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연구논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의 사실에 동의하고 학위논문을 위한 인터뷰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동의하신다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자 \_\_\_\_\_ 참여일 \_\_\_\_\_ 서명 \_\_\_\_\_

## 부록 2.

## 분석단계 중심의미 기술의 예

| 의미단위                                                                                                                                                                                             | 중심의미 탐색                                                | 하위 구성 요소       | 구성 요소               |
|--------------------------------------------------------------------------------------------------------------------------------------------------------------------------------------------------|--------------------------------------------------------|----------------|---------------------|
|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아침에 눈이 떠져서 학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학교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느껴져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갔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69                                                                       | 자신에 대한 뒷 답을 들으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혼자 지내 야만 하는 학교 가 지옥 같이 느껴짐 | 학교<br>가기       | 고립<br>되어<br>의로<br>움 |
| 학교에 가면 혼자 지내야 하니까 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스트레스로 점심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양호실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2주일 내내 갔는데 그 때 양호 선생님이 약을 주다가 약을 안 주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약을 먹어서 나올 병이 아니고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거예요./70 |                                                        |                |                     |
| 그 때 들었던 생각은 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져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 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았어요./71                                                                                                         |                                                        |                |                     |
| 학교에 있는 시간이 싫지만 안 갈 수도 없고 학교 끝나기만 하면 곧 바로 집 앞에 있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72                                                                                                                                 | 지옥 같은 학교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음                                  | 싫음             | 고립<br>되어<br>의로<br>움 |
|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일까하고 아침에 공부 시간 딱 맞춰서 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집에 오고 그랬어요./73                                                                                                                          |                                                        |                |                     |
|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었는데 그 때 학교에서 현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침 피 검사에서 간이 안 좋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다는 핑계로 조퇴를 매일 하다시피하고 학교 늦게 가고 그랬어요. 전에는 개근이었는데 그 때는 결석과 조퇴를 밥 먹듯이 했어요./74                                       |                                                        |                |                     |
|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죽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테니까요./75                                                                                                                                            |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함                               | 자살<br>하고<br>싶음 | 고립<br>되어<br>의로<br>움 |
| 밤마다 드는 생각은 자다가 죽어서 아침이 안 왔으면 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괴롭혔던 남자애들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76                                                                                           |                                                        |                |                     |
| 전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어서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수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77                                                                                                                                                  |                                                        |                |                     |
| 자살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그랬어요. 그 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살해서 그 애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78                                                    | 자살할 생각을 많이 함                                           | 자살<br>하고<br>싶음 | 고립<br>되어<br>의로<br>움 |
|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으니까 힘들 때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79                                                                                                                           |                                                        |                |                     |



## 부록 3

## 청년여성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주요구성요소의 도출과정

| 구성요소                  | 하위구성요소       | 의미단위 요약                 |
|-----------------------|--------------|-------------------------|
| 1. 학교폭력을 당함           | 친구에게서 버림받음   | 친한 친구가 절교 쪽지를 남기고 떠남    |
|                       |              | 갑자기 놀아주지 않아 슬픔          |
|                       | 집단 따돌림을 당함   | 안 좋은 소문이 퍼짐             |
|                       |              | 욕설을 들음                  |
|                       |              | 힘담을 많이 들음               |
|                       |              | 세력 있는 아이한테 잘못 보임        |
|                       |              | 감시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음    |
|                       | 괴롭힘을 당함      | 수치와 모멸감을 느낌             |
|                       |              | 무가치하게 느낌                |
|                       |              | 무력하여 대항하지 못함            |
| 2. 해결 방안을 시도함         |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 엄마에게 알림                 |
|                       |              | 전문상담을 받음                |
|                       |              | 환경의 변화를 시도함             |
|                       | 친해지려고 노력함    |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시도함      |
|                       |              | 잘못된 방법으로 친해지려고 시도함      |
|                       | 노력이 허사가 됨    | 사과하고 애원했으나 거절당함         |
|                       |              | 노력한 것이 역효과가 됨           |
|                       |              |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겠음         |
|                       |              | 관계하기를 포기하고 혼자 지냄        |
|                       |              | 단짝 친구가 없어 외로움           |
| 3. 고립되어 외로움           | 외톨이가 됨       | 혼자 도시락 먹게 됨             |
|                       |              | 점심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움          |
|                       |              | 학교가 지옥 같음               |
|                       | 학교 가기 싫음     | 학교를 벗어나고 싶음             |
|                       |              | 고통을 피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함 |
|                       | 죽고 싶음        | 자살할 생각을 많이 함            |
|                       |              | 자살을 시도해 봄               |
|                       |              | 지옥이 두려워 자살하지 못함         |
|                       |              | 하나님을 의지함                |
|                       | 견뎌냄          | 교회에서 힘을 얻음              |
| 긍정적 생각을 함             |              |                         |
| 음악과 그림으로 고통을 견뎌냄      |              |                         |
| 괴롭혔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당함 |              |                         |
| 대학생활이 재미없음            |              |                         |
|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 혼자 지내는 게 편함  |                         |
|                       | 친구 사귀기를 포기함  |                         |

|                      |                     |                          |
|----------------------|---------------------|--------------------------|
| 4.<br>상처로<br>남음      |                     | 휴학함                      |
|                      | 공동체 생활이 힘들          | 또래들과의 사귀이 힘들             |
|                      |                     | 또래집단에 소속하는 게 힘들          |
|                      |                     | 직장생활이 힘들                 |
|                      |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애씀     | 외톨이가 될까봐 과도하게 애를 씀       |
|                      |                     | 자기주장을 못함                 |
|                      |                     | 말실수 할까봐 대화가 편치 않음        |
|                      | 친밀함을 이루지 못함         |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함             |
|                      |                     | 진심을 표현하지 못함              |
|                      |                     | 자기보호로 방어를 함              |
|                      | 자존감이 낮아짐            | 갈등관계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 단절함 |
|                      |                     | 기가 죽음                    |
|                      |                     | 자기 비하를 함                 |
|                      |                     |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김            |
|                      | 부정적 감정이 형성됨         |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감            |
|                      |                     | 거절감을 많이 느낌               |
|                      |                     | 수치심을 느낌                  |
|                      |                     | 외로움에 시달림                 |
|                      |                     | 확장시절을 상실한 분노가 일어남        |
|                      | 과거 아픔을 현실에서도 느낌     | 부모님에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남        |
|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일어남  |                     |                          |
| 교복 입은 학생을 보면 두려움을 느낌 |                     |                          |
| 현실을 도피함              | 비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림      |                          |
|                      | 소외감을 민감하게 느낌        |                          |
|                      | 죽고 싶음               |                          |
|                      |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폭식으로 해소함 |                          |
|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 | 대중매체로 피함            |                          |
|                      | 꿈과 공상의 세계로 피함       |                          |
|                      | 버림받을까봐 극도로 불안함      |                          |
|                      | 사랑의 갈증을 많이 느낌       |                          |
| 5.<br>성찰함            | 기억하고 싶지 않았음         | 사랑받지 못할 거라 생각함           |
|                      |                     | 내 자녀도 학교폭력을 당할까 두려움      |
|                      |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        | 있고 싶음                    |
|                      |                     | 후회스러움                    |
|                      |                     | 반복해서 따돌림을 당함             |
|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음         |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음    |                          |
|                      | 대화가 서투름             |                          |
|                      |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지 못함     |                          |
|                      |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 하지 않음 |                          |
|                      | 사랑을 많이 못 받음         |                          |

|                             |            |                     |
|-----------------------------|------------|---------------------|
| 6.<br>회복을<br>위한<br>시도를<br>함 | 자각함        | 부정적 메시지를 많이 들음      |
|                             |            |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됨   |
|                             | 도전함        |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음   |
|                             |            | 용기를 내어 도전해 봄        |
|                             |            | 회복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음 |
|                             | 자신을 사랑하려 함 | 은 힘을 다해 극복해 나감      |
|                             |            |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노력함  |
|                             |            |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임    |
|                             |            | 자신에게서 장점을 찾으려 노력함   |
|                             |            | 자신을 알아가면서 삶의 의욕이 생김 |
|                             |            |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김       |
|                             |            | 자신을 사랑하고 꾸밈         |
|                             |            | 비전과 꿈을 찾아감          |
|                             | 관계가 회복되어 감 | 가해자를 용서함            |
|                             |            | 신뢰가 형성되어 감          |
|                             |            | 이해의 폭이 넓어짐          |
|                             |            | 타인을 배려하고 살피게 됨      |
|                             |            | 사랑이 느껴짐             |
|                             |            | 대화가 편해짐             |
|                             |            |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짐    |
| 인간관계가 재미있어짐                 |            |                     |
| 기대함                         |            |                     |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고진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2014. 7. 11). Online: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54873&mode=view>
- \_\_\_\_\_.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보도관련 설명”. Cited 15 April 2014, Online: <http://if-blog.tistory.com/3663>.
- \_\_\_\_\_.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 사이트. Online: <http://www.stopbullying.or.kr>
- 김분한 외. “형상학적 연구 방법의 비교 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999
- 김석진.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 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 김용태.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6.
- 김용태, 박한샘. “청소년 친구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 김혜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2013.
- 두경희.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6.
- 사공은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송재홍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서울: 학지사. 2013.

- 심수명.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2013.
- \_\_\_\_\_.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본 정신역동상담*. 서울: 다세움, 2010.
- \_\_\_\_\_. *상담목회*. 서울: 다세움, 2008.
- 유영권. *기독교(목회)상담학 영역 및 증상별 접근*. 서울: 학지사, 2014.
- 윤지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외상성 스트레스와 하나님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서울: 학지사, 2014.
- 임경수. *인간발달 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2013.
- 전재천.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과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정미향·성한기.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2007.
- 정영제. “가정·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 분석”.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8.
- \_\_\_\_\_.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 장휘숙.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13.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편.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4.
- 허윤정. “30·40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생존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14.
- 홍성희. “학교폭력 피해 여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논문. 2014.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예단. Online: <http://www.jikim.ne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의 2.

## 2. 번역서

- Creswell, John W. *질적 연구방법론*. 조흥식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 Herman, Judith. *트라우마*. 최현정 역. 서울: 플래닛, 2005.
- Seidman, Irving.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박해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12.

## 3. 외국 서적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2). Cohes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8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실제*. 57. 서울: 학지사, 2006에서 재인용.
- Georgiou, S. N.(2008). Parental style and child bully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t school.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 11. 213-227.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329. 서울: 학지사, 2014에서 재인용
- Giorgi, A.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C. Aanstoos, W. F. Fisher, A. Giorgi, and F. Wertz(eds)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신경림 외 공역,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서울: 현문사, 2003에서 재인용
- Johnson, JG, Cohen P, Brown J. et al. "Childhood Maltreatment Increases Risk for Personality Disorders During Early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1999).
- Kwak, K., Bomstein M., Lee, M., Choi, S., & S. (2006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fferent participant roles in Korean bullying (Wang-ta)." Accepted paper for presenting in the biennial conference of SRA.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실제*. 73. 서울: 학지

사, 2006에서 재인용.

- Powlison, D. A. *Questions at the crossroads : The care of souls & modern psychotherapies*. In M. R. McMinn & T. R. Philips(Ed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1-61. 김용태, 기독교 상담학. 193. 서울: 학지사, 2006에서 재인용
- Smith, P. K., & Myrone-Wilson, R. (1998).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 405-417.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실제. 56. 서울: 학지사, 2006에서 재인용.
- Taki, M. *Relation among bull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ia*. Japanese Society. 2001

Vita of  
Kyeong Soo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Vision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Aug. 5. 1960  
 Marital Status: Married to Sang Yeoul Lee  
 Home Address: A-509 Gong-Jak APT.,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  
 02 782 1182 (H.P. 010 3232 4220)  
 Denomination: The Full Gospel Church of Korea  
 Ordained: 2003. 5. 26

Education: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1985  
 M.F.A.: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eoul, 1990.  
 M. Div.: Regent Theological Seminary, Virginia  
 Beach, 199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4

Personal Experience:

11/2000 to present: Senior Pastor of Vision Church, Seoul  
 2/1992~9/2000 Internship of Central Bible Church  
 10/1990~9/2000 General Secretary of Paul Scripture Society  
 for World Mission